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45년 남북한 분단 이후 서로 양립하기 힘든 갈등적 대결구조속에서 상호단절된 생활을 영위해 온 지 약 반 세기가 흐른 오늘날, 남북한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진 이질적 사회를 형성하여 분단시대를 더욱 공고화하고 있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간의 이질화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무너뜨리고, 적대적 대립속의 민족분열과 상극현상을 심화시켜 분단시대를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당위성에 위기를 초래하고 남북통일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 세기동안 남북통일은 민족의 최대 염원으로 존재해 왔으며, 우리 민족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며 사명으로서 꾸준히 강조되고 추구되어 왔다. 모든 국민들이 통일문제에 항상 관심을 갖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체험한 남북한간에는 극복해야 할 분단의 골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남북통일문제는 단 시간에 손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즉 남북통일은 장기적인 민족의 문제로서 8·15 해방이나 6·25 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들의 생애에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미래문제로서의 남북통일문제는 기성세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즉, 현장의 중심세대는 물러서고 오늘의 청소년들이 통일문제를 계승하여 결정하고 통일국가의 장래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청소년들은 통일의 새 역사를 펼칠 통일승계세대로서 민족통일을 위한 역사적 사명은 실로 막중한 것이다. 그러나,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청소년들은 8·15 해방이나 민족분단의 비극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로서 분단전 세대인 기성세대와는 달리 민족적 동질감과 민족문화의 공통성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들이 사회의 주도적인 인구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남북통일문제를 기성세대 중심으로 논의 되어 왔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 무관심속에서 상당히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을 전쟁경험세대로서 반공안보의식이 철두철미하고 통일의 사명감과 의욕에 불타는 통일문제 해결의 주역으로 미화되어 왔다. 반면에 청소년들은 전쟁미경험세대로서 전쟁의 참혹성과 비극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보 의식상에 문제가 있으며 통일의식면에서도 처음부터 통찰력이나 신념이 없는 세대로 간주되어 왔다. 이와 같은 양분화속에서 청소년들이 통일문제를 논할 때마다 기성세대들은 “너희들은 공산당의 정체를 모른다”, “북괴가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 정신차려라”, “너희는 아무 소리말고 무조건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하는 식의 훈계조로 말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무시해 왔다. 이와 같이 기성세대들은 청소년들을 자신들의 인식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함으로써 통일문제에서 청소년들을 제외시켜 왔다.

또한, 반공교육을 통하여 남한의 민주주의 사회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승공만이 통일의 지름길로 청소년들에게 꾸준히 강조해 왔다. 특히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경계성을 가지도록 육성해 왔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북한의 실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이해없이 북한을 한 민족으로서 보다는 무조건 ‘철천지 원수’, ‘침략자’, ‘오랑캐’ 등 적으로 간주하는 적대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반공교육은 분단과 대결을 습관화시켜 남북한간의 경쟁성과 적대성, 상극성 및 배제성이 분단이전 세대인 기성세대에서 보다 청소년세대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게다가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물질주의 풍조와 외래문화의 전래로 가치관이 혼란해짐에 따라 청소년들도 이와 같은 풍조에 휩쓸려 국가의식, 민족의식 및 통일의식이 희박해져 현재의 분단시대에 안착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이러한 상황속에서 남북통일문제를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하여 바라보기 보다는 분단으로 빚어진 이산가족들만의 문제나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먼

미래의 초현실적인 문제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대다수의 청소년들 사이에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통일 자체의 성취 뿐만 아니라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에조차 회의적인 의견을 갖고 통일에 대한 신념, 기대와 가능성, 외욕들이 약하며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청소년들이 갖는 의식구조나 성격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변수로써 앞으로 통일문제를 이끌 방향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이러한 의식성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청소년들의 의식구조는 그들 세대만의 단독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사활과 관련있는 전체 국민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은 기존 사회구조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독자적이고 고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의식은 기성세대의 가치나 의도에 의해 마음대로 규정되고 정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들이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대로의 통일방안이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승계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한 아무런 준비없이 통일을 추진할 때 또 어떠한 시련이 우리 민족에게 안겨질지 모른다. 결국, 오늘의 청소년들을 통일세대로서 조직화하여 분단된 조국의 현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남북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주체적 인식능력과 실천적 역량을 길러주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청소년들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볼 때, 그들이 현재 어떠한 통일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작업은 민족통일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급선무이고 기본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즉 통일에 대한 가치, 태도, 인식 등을 실질적인 조사를 통하여 폭넓게 파악하여 그 문제점과 시사점을 밝힘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정립시키고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구조를 알아 보기 위해서 문헌연구와 설문지조사
사를 주로 활용하였다.

1) 문헌 연구

문헌 연구방법은 통일의식의 개념 및 일반적 성격, 그리고 종래에 지적되어 온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 및 북한에 관련된 연구논문,
관계문헌, 관계학술지 등 선행 연구물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얻
은 자료들은 개념모형 설정, 질문지 내용작성 그리고 청소년들의 의식실태 및 문
제점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2) 설문지 조사연구

설문지 조사방법은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연구도구로서 다음과 같
이 실시되었다.

설문지 작성 설문지는 통일의식의 개념모형을 설정한 후에, 그것에 맞추어서
선행연구물들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선행 연구물들의 질문문항 중에서
연구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된 문항들을 추출하고, 현재 필요하다
고 생각되어지는 문항들을 첨가하여 연구 범위에 따라 각 부문별로 작성했다. 문
항내용은 되도록 간단히 하되 응답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였고, 결과처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자유사항은 최소화하였다. 설문지 초안은 사회조사전문가의 자문
과 예비조사를 통하여 그 타당성, 신뢰성 및 문제의 난이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를 토대로 몇 차례의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부록
참조).

설문내용은 청소년들의 개인적 배경(6문항) 외에 연구문제에 따라 크게 통일관(21문항), 북한관(13문항), 그리고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관한 견해(5문항)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내용에 있어서 학교급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단 대학생의 경우 개인적 배경에 관한 2문항이 더 첨가되어 총 47문항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사용된 문항은 2개의 자유기술식 문항 이외에 모두 선다지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 선정 본 연구는 중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학생청소년집단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조사표본의 선정은 전국의 학생청소년들을 추출하고, 성별, 학교급별, 지역별로 계층화하여 각 범주별로 실제 모집단의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을 선정하는 할당표집(quota sampling)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먼저 표본의 크기를 4,000명 정도로 선정한 뒤 전체 학생수와 지역별 학생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급별로 학생수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표집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별, 지역규모별, 학년별, 인문계와 실업계별 등의 변인들을 고려하여 그 대상자 수를 균등하게 선정하였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강남과 강북지역에서 균등하게 표집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후 학생청소년들을 학교단위로 할당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가능한 많은 학교가 안배되도록 유의하여 한 학교에 한 학급만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학교는 한국교육연감 부록 「교육명부」(1991)에 의거하여 임의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24개교의 중학교, 27개교의 고등학교, 그리고 32개교의 대학교, 총 83개교가 조사대상학교로 선정되었다.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는 1992년 5월 18일 부터 6월 12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먼저 각 학교별로 설문지를 우편발송하여 연구의 목적 및 취지, 설문조사 실시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설문조사 계획안에 따라 학교 자체에서 학급단위로 실시하게 한 후 연구원 및 현지조사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선정된 학교의 대학 교수를 비

뜻한 조교, 학생들의 협조를 얻어 각 대학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배포하여 실시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국에 산재한 82개교의 중·고·대학교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회수된 자료는 3,862명의 자료로 전체적으로 약 96.6%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러나 회수된 자료를 오류검토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재된 내용이 부실하거나 성의없이 기입되어 신뢰성이 낮다고 판정된 60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실제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실제로 분석의 대상으로 취급된 표집수는 3,802명(95.1%)이었다.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구체적으로 활용된 분석방법은 단순빈도분석법과 변량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단순빈도분석결과를 통하여 각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경향을 살펴보고, 변량분석방법에 의한 결과자료를 통하여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응답 경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 및 제시방법은 전체 및 배경변인별 각 집단에 백분율(%)을 가지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경향을 파악하였다. 배경변인별 분석은 성별, 학교수준별, 거주지별, 지역규모별, 생활수준별, 실향민 여부별로 하였으며,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차에 대한 유의도 검증은 F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대한 조사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조사대상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학생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근로청소년, 무직청소년, 군복무청소년등 다른 청소년집단들은 제외하였다. 학생청소년은 청소년집단중 가장 비율이 높은 주도적 집단이며, 표본추출에 대단히 용이하다. 그러나, 다른 청소년집단은 구성비율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 또한

매우 이질적이어서 표본추출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인력의 제한 등에서 오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학생청소년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청소년집단이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하위집단과 그 복합적인 성격을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고 본다.

둘째, 표본상의 오차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정된 조사 표본이 전체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누락한 학교가 생기고, 각 해당학교에서 동봉된 설문조사 계획안에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처리한 경우(특히, 성별이나 학년별 변인을 무시)도 있기 때문에, 표집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려한 성별, 지역규모별, 거주지별, 학년별, 인문계와 실업계별 등의 변인요소가 처음 선정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생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료가 사실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도는 높으나 대표성은 다소 적다고 볼 수 있다.

세째, 연구방법이 설문지조사에 주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연구영역을 설문지 내용에만 한정시켰다. 또한, 설문지 문항설정에 있어서 통일의식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조작적인 정의에 의존하였다. 물론, 이는 통일의식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힘든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일 뿐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관련자료 체계의 정립이 미흡하여 통일의식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있지 않는 상태에 기인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분야에 있어서 기초적인 연구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네째, 적은 인력으로 짧은 시간에 전국적인 규모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각 해당학교별로 설문지를 우편발송하여 동봉된 설문조사 계획안에 따라 학교 자체내에서 실시하게 하였다. 따라서, 설문조사 실시과정에서 설문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대화의 기회가 전무함으로써 인해 설문지의 진의를 오해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다섯째, 설문지 조사방법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점인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의 솔직성과 성의도의 문제가 있다. 각 문항마다 응답자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솔직하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응답자들중에는 솔직한 응답을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답을 하거나, 성의없이 부실하게 기입하

는 경우(응답자 자신에 관한 기초사항 질문에서 조차도)가 있었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모두 냉정한 이성으로 응답했다고 확신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표성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연구의 기간이 짧고 횡단적인 연구이므로 연구결과와 변화양상과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질적으로 추정하여 분석할 수 없었다. 또한, 연구의 대상과 내용의 차이점으로 인해 기존의 다른 연구와의 비교연구가 힘들었다. 게다가, 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해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별, 지역규모별, 생활수준별, 실향민 여부별 등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성향을 서로 관련시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각 문항에 대한 일반적인 성향만을 배경변인별로 기술하는데 그친 점을 무척 유감으로 생각한다. 물론, 설문지 조사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성향의 분석과 해석이 주핵심이 되며, 각 집단의 통계적인 차이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아쉬움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으로 인해 본 연구결과와 논의가 반드시 객관성을 지녔다고 단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데에 있어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형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또는 이 분야의 연구에 던지는 하나의 문제제기로서 약간이나마 공헌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4. 선행연구의 개관

1945년 민족의 분단이후 지난 반 세기동안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이요 역사적 과제로서 존재해 오고 있다.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열망과 이에 따른 국가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그동안 통일문제와 관련된 연구, 특히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1960년말 이후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는 국토통일원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연구는 전 국민들의 통일의식연구에서 단편적으로만 다

루어져 왔을 뿐 청소년의 통일의식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온 연구는 그리 많지가 않았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비로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주제로 한 연구가 석사학위의 논문중심으로 다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상수, 1983; 조덕열, 1983; 장경모, 1985; 홍성욱, 1985; 김동범, 1987; 김제만, 1988; 임상호, 1991 등).

그 동안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청소년들의 역할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배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여러 학자와 전문가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고, 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극히 미약하며 초보적인 단계에 놓여 있다. 이는 그동안 통일문제가 기성세대만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옴으로써, 통일승계세대인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극히 미약하여 그 중요성에 비해 상당히 소홀히 다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 조사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또는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연구의 한 부분으로서만 단편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지금까지의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에 관련된 많은 연구논문들은 그들이 다룬 주제가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명확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개론적인 수준의 보고서가 대부분이다.

결국,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지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에 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통일문제를 계승하여 결정하고 통일국가의 장래를 책임지게 될 통일승계세대로서 민족 통일을 위한 역사적 사명이 실로 막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적인 연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는 통일의 환경을 조성하고 통일후의 삶을 대비하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는 통일문제의 연구영역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필요한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많은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동안 행하여진 대표적인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통일원(1972), 통일 및 안보 가치관에 대한 여론조사 이 연구는 전남지역의 공무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여성단체지도자등 일반인(600명), 고등학생(700명), 대학생(700명)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통일 및 안보가치관에 대한 여론조사이다. 연구내용은 통일관과 안보관의 2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세분해 보면, 통일관에서는 통일의 방법, 시기, 협상과 접촉, 통일문제 주관부서, 통일의 가능성, 남북적십자회담 결과 기대의 총 6문항으로, 안보관은 안보 책임부서, 북한의 위장평화공세, 총력안보의 달성, 군단의 증강, 안보의 달성, 가치관 확립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목적은 국민교육의 기본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통일원(1973),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진단과 개선에 관한 연구(시범대학운영결과보고) 이 연구는 서울, 인천, 강원도지역 3개 대학의 대학생 64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대학 국민윤리교육의 실태분석을 위한 실증조사연구이다. 대학생을 비교학급(160명)과 실험학급(480명)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통일교육을 직접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내용은 국가관, 민주주의의 우월성, 공산주의 비판능력, 국제정세, 통일을 위한 국민의 사명감 등 5가지 범주에 걸쳐 있으며,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도를 비교분석하여 대학에서의 반공교육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통일교육정책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이우영·한점주(1977), 통일·안보문제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구조 이 연구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지역의 대학생 1,08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통일안보의식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내용은 통일의식, 안보의식, 대공의식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세분하여 보면, 통일의식에서는 통일시기, 통일이유, 통일저해요인, 통일방안의 4문항으로, 안보의식에서는 8·18사건저의, 8·18사건과 UN군축 태도, 남침시 중·소태도, 정신무장방법, 대외적 냉대의 5문항으로, 대공의식에서는 공산지식원, 남북한의 생활비교, 북한주민 설득자신감,

정통성주장의 근거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는 전체적인 성향과 함께 도시·농촌별, 성별, 학교급별등 각 배경변인별로 분석되어 있고, 고등학생의 통일안보의식과의 비교·검토되어 있다. 연구의 목적은 의식구조실태와 이상적인 가치관과의 접근정도를 진단하고 평가하여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청소년의 사회 및 국가의식에 관한 조사와 강화책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분석연구인 점이 특색이다.

김형원(1980), 한국 대학생의 대북한관 연구 이 연구는 전국 각 지역의 대학생 310명을 대상으로 한 북한관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내용은 북한관의 개념모형아래에 설정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인지 및 정의, 의지에 관련된 5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는 전체적인 성향과 함께 성별, 종교별, 부의 직업별, 교육, 수입별등 각 배경변인별로 분석되어 있다. 연구의 목적은 국민윤리교육방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정치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는 다른 기존의 연구와 달리, 특정한 한 영역(북한관)만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시행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홍성욱(1985), 고등학생의 통일안보의식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서울지역 고등학생 960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안보의식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내용은 국가관, 시국관, 북한관, 통일관, 그리고 현행 반공교육의 내용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는 전체적인 성향과 성별, 학교별(인문, 실업), 거주지별, 종교별, 생활정도별 각 배경변인별로 분석되어 있다. 연구의 목적은 국가안보를 위해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지 반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고등학교의 반공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장경모(1985), 청소년의 통일의식 조사연구—부산지방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부산지역 중·고등학생 679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이다. 연구내용은 통일의식의 개념모형에서 국가관, 북한관, 통일관, 안보관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총 8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내용을 심리학의 태도이론 구성을 토대로 행동차원에서 인지, 감정, 의지수준의 심리적 성향으로 분류한 것이 이 연구의 특징이다. 연구의 목적은 통일문제에 대한 일반적 성향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통일·안보교육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전제만(1988), 통일관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 연구는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관에 대한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내용은 개인적 배경(13문항)이외에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 통일의 방법, 통일의 의지, 통일시기의 전망, 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는 전체적인 성향과 가정 환경(성별, 부모의 고향, 직업, 학력, 나이, 생활수준, 이산가족 유무), 교육환경(학교소재지, 성적), 사회환경(신문구독, TV시청)의 배경변인별로 상세히 분석되어 있다. 통일관에 따른 문헌연구를 병행하였고, 연구가설을 책정하며 기존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 점이 이 연구의 특징이다. 또한, 설문 문항을 연구영역으로 묶어서 한 분석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석하고자 한 점이 특이하나, 조사결과를 너무나 압축해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미흡하다.

임성호(1991), 통일에 관한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태도조사 연구 이 연구는 서울, 인천지역의 청소년(중·고·대학생)과 전국의 청소년 지도자등 총 600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에 관한 설문조사연구이다. 연구 내용은 통일에 대한 관심도, 남북대화, 북한방문, 공산주의 실제와 이론, 제6공화국 이후 북방외교, 정부의 통일노력, 통일논의, 북한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경로, 북한동포, 향후 북한의 자세, UN 및 주변국가, 통일장애요인, 국내·국제 과제 등의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직접 접촉하고 지도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청소년지도자의 통일의식을 비교검토한 점이 이 연구의 특징이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청소년들의 주요한 배경변인(특히 학교수준)들을 무시하고 전체적인 성향만을 중

접적으로 다루어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무시하였고, 일반인을 의식화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자에 포함시켜 청소년지도자의 대표성을 문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토통일원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각 대학교의 학위논문, 각 연구소에서 발표된 연구논문 등 많이 있다. 다른 연구목적과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사한 점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은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학생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는 별로 많지 않으며, 주로 일부 지방의 특정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어떤 특정한 기간에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통일의식만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각 관련기간에 실행된 다른 표집대상과 내용은 통일의식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둘째, 연구내용은 통일안보의식 및 반공의식이 핵심이 되어 국가관, 북한관등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이들중 한 영역만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경향도 있다.

세째, 연구내용을 어떤 명확한 개념이나 분석틀에 의해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자신의 연구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상황에 따라 모아서 구성하여 조사 분석하고 있다. 또한, 조사결과의 분석과 해석에 있어서 통일의식의 관련 요소들의 상호관계나 행동성향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그 자체만을 상세히 나열하여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많은 이론적, 실제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통일교육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정립하는데 큰 공헌을 하여 왔다.

II.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통일의식이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수한 개념으로서, 통일문제에 대해 개인이 갖는 주관적인 가치관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을 어떻게 규정하고 분류하느냐 하는 것은 통일의식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된다. 통일의식은 실제로 관찰하고 파악하기 힘든 추상적이고 복잡한 것으로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다. 또한, 학자들마다 각자의 관심과 강조하는 측면에 따라 통일의식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식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 있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통일의식에 대한 엄밀한 정의보다는 통일의식과 관련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조사연구하여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관련영역은 통일관, 북한관, 남북한 청소년 교류관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3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세분해 보면, 먼저 통일관에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통일의 당위성, 통일의 방법, 통일국가의 선결과제, 통일의 미래상,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통일문제의 논의방식,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인식으로 나누어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관에서는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인지,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남북한 청소년 교류관은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필요성, 가능성, 영향력,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참가의사 및 가장 참여하고 싶은 교류활동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모형을 토대로 설정한 각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는 먼저 표집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첫째, 각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반응경향 및 반응분포를 제시하고 둘째, 표집대상자의 각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그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배경변인을 중심으로 반응경향을 분석하며 세째, 전체 또는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

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거나, 여러 문항중에서 서로 관련되어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반응결과를 보이고 있는 문항들은 함께 묶어서 분석하고 해석하였고 네째, 각 관련영역별로 묶어서 종합적인 반응경향을 제시하였다. 단,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고 각 집단의 반응경향이 전체 반응과 비슷한 문항의 경우는 전체 반응결과만 제시하였다.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설문조사의 표집대상인 학생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학교급별, 학년별, 연령별, 거주지별, 지역규모별, 생활수준별, 실향민 여부별등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지역이 25.4%로 가장 높고, 제주도지역이 3.2%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II-1-1 참조).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이 32.6%, 인문계 고등학생이 23.5%, 실업계 고등학생이 21.5%, 고등학생이 45.5%, 그리고 대학생이 22.5%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1-1) 응답자의 학교급별·거주지별 분포 (단위 : 명, %)

거주지별	학교급별 성 별	중		인 문 고		실 업 고		대		합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 울		106	164	107	110	56	233	70	120	966(25.4)
경 기		104	61	51	59		49	61	86	471(12.4)
강 원		58			60			14	25	157(4.1)
충 청		57	120		59	120		69	41	466(12.3)
영 남		91	264	179	56	60	177	164	91	1,082(28.5)
호 남		52	102	60	97	119		52	55	537(14.1)
제 주			59	54				2	8	123(3.2)
계		468 (12.3)	770 (20.3)	451 (11.9)	441 (11.6)	355 (9.3)	459 (12.1)	432 (11.4)	426 (11.1)	3,082(100.0)

학년별로 보면, 중학생은 3학년이 13.6%, 인문계 고등학생은 2학년이 14.4%로 가장 높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대체로 학년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학생은 2, 3학년이 각각 7.1%, 7.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II-1-2 참조).

〈표 II-1-2〉

응답자의 성별·학년별 분포

(단위:명, %)

성 별 학년별	남	여	계
중 학 교	468	770	1,238(32.6)
1학년	113	170	283(7.4)
2학년	159	280	439(11.6)
3학년	199	319	518(13.6)
인문계 고등학교	451	441	892(23.5)
1학년	64	119	183(4.8)
2학년	264	282	546(14.4)
3학년	122	44	166(4.3)
실업계 고등학교	355	459	814(21.5)
1학년	60	273	333(8.9)
2학년	113	65	178(4.8)
3학년	180	118	298(7.8)
대 학 교	432	426	858(22.5)
1학년	101	64	165(4.3)
2학년	152	119	271(7.1)
3학년	117	168	285(7.5)
4학년	61	71	132(3.5)
5·6학년	1	4	5(0.1)
계	1,706(44.9)	2,096(55.1)	3,802(100.0)

성별로 보면, 남성이 44.9%, 여성이 55.1%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설문조사 실시과정에서 3개 남자 중학교가 누락되어 여학생이 약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최저 12세, 최고 27세로 15세이상~17세 이하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II-1-3 참조).

〈표 II-1-3〉 응답자의 연령별·성별 분포

(단위:명, %)

연령별 \ 성 별	남	여	계
12~14	317	549	866 (22.8)
15~17	691	1,012	1,703 (44.8)
18~20	44	310	754 (19.8)
21~23	130	209	339 (8.9)
24세이상	124	16	140 (3.7)
계	1,706(44.9)	2,096(55.1)	3,802(100.0)

지역규모별로 보면, 서울이 29.1%, 직할시가 30.6%, 중소도시가 26.5%, 군지역이 13.8%로 분포되어 대체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II-1-4 참조).

〈표 II-1-4〉 응답자의 지역규모별·학교급별 분포

(단위:명, %)

지역별 \ 학교별	중	고	대	계
서울	282	481	341	1,104 (29.1)
직할시	360	508	296	1,164 (30.6)
중소도시	350	493	165	1,008 (26.5)
군지역	246	224	56	526 (13.8)
계	1,238(32.6)	1,706(44.9)	858(22.5)	3,802(100.0)

2. 통일관

청소년들의 통일관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관련요소는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통일의 당위성, 통일의 방법, 통일의 선결과제, 통일국가의 미래상,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통일문제의 논의방식,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인식 등의 8개의 요소로 집약된다. 이를 세분하여 보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에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통일문제에 관한 대화, 통일의 당위성에서는 통일의 의지,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가능성, 통일의 방법에서는 통일의 주체세력과 통일의 방법, 통일의 선결과제에서는 통일의 장애요인과 통일의 선결과제, 통일국가의 미래상에서는 통일국가의 모습, 통일국가의 체제, 통일국가의 전망, 남북한 통일정책에서는 남한의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인지도, 두 방안의 실현가능성, 현 남북한 관계에 대한 평가, 통일문제의 논의방식에서는 통일문제 논의에서의 문제점과 통일문제 논의의 개방성,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인식에서는 통일의 주체세대, 통일에 대한 청소년의 기여도, 남북한 학생회담 추진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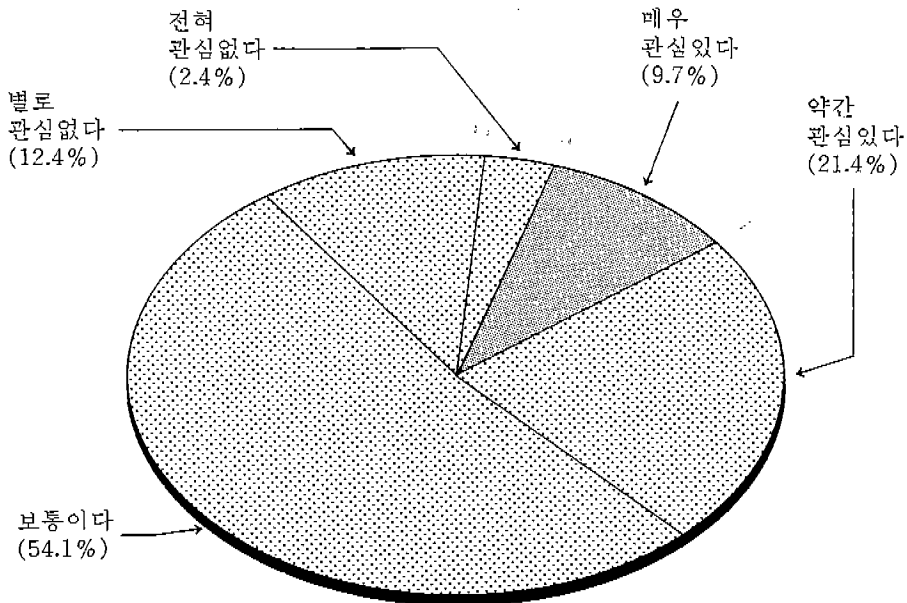
1)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우리나라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귀하는 친구나 가족 등 주위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나 대화를 하십니까?”라는 2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는 다음 〈표 II-2-1〉, 〈표 II-2-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관심이 있다’가 9.7%, ‘약간 관심이 있다’가 21.4%, ‘보통이다’가 54.1%, ‘별로 관심이 없다’가 12.4%, ‘전혀 관심이 없다’가 2.4%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2-1 참조).

〈그림 Ⅱ-2-1〉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



전체 응답자의 31.1%만이 통일문제에 대해 ‘매우’ 또는 ‘약간’ 관심이 있고, 나머지 68.9%가 중도적인 태도 내지 관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는 기대 이하로 무척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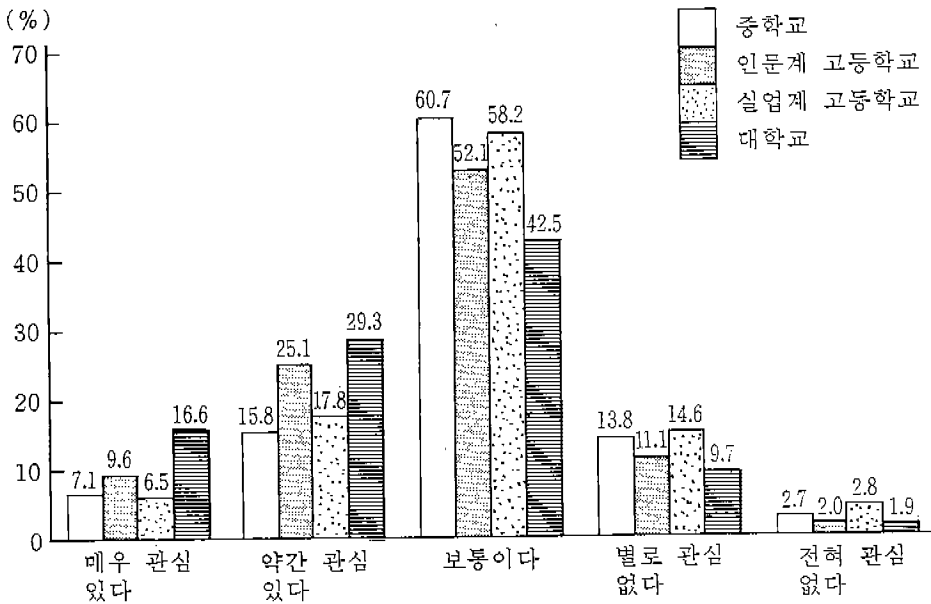
배경변인별 반응결과는 전반적으로 중간 미달의 낮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40.1%)이 여학생(24.0%)보다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중학생(22.9%), 실업계 고등학생(24.3%), 인문계 고등학생(34.7%), 대학생(45.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Ⅱ-2-2 참조). 따라서, 학력이 높을수록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의 관심도는 전체 응답자의 관심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중학생의 두배에 가까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거주지별로 보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호남지역 학생(35.2%)이 가장 높고, 서울지역 학생(29.0%)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 보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이 (30.5%)로 비교적 높고 상층에 속

〈그림 II -2-2〉

학교급별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



하는 학생이 (26.5%)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실험반 여부별로 보면, 가족중에 실험반이 있는 학생(39.1%)이 실험반이 없는 학생(30.5%)보다 통일문제에 대해 다소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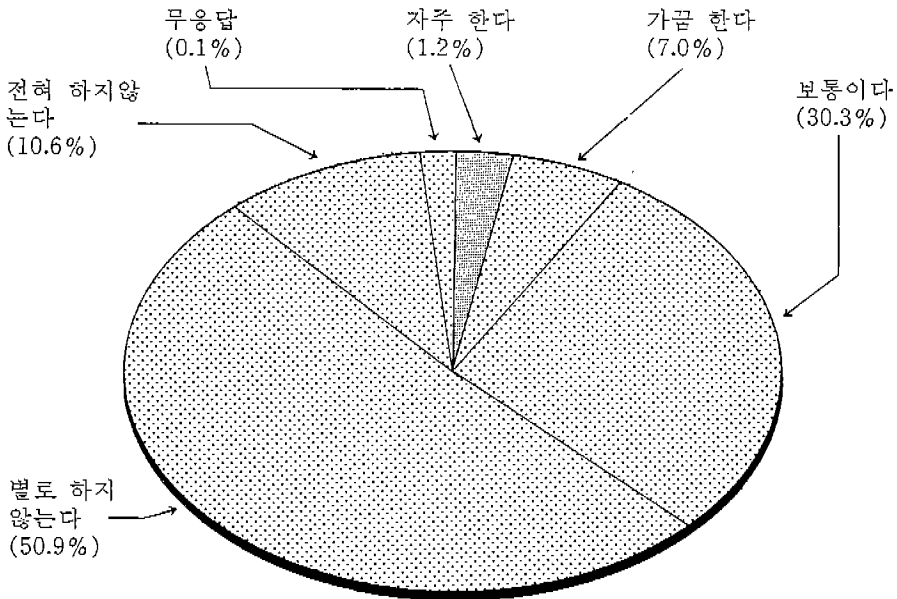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대학생(45.9%), 남학생(40.1%),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39.5%), 실험반인 학생(39.1%)이 높게 나타나고, 실험반이 아닌 학생(30.5%), 중학생(22.9%), 여학생(24.0%)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문제에 관한 대화 통일에 관한 청소년들의 대화의 정도는 전체적으로 '자주 한다'가 1.2%, '가끔 한다'가 7.0%, '보통이다'가 30.3%, '별로 하지 않는다'가 50.9%, '전혀 하지 않는다'가 10.6%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 -2-3 참조).

전체 응답자의 8.2%만이 통일문제에 관한 대화를 '자주' 내지 '가끔'하고, 절대 다수인 91.8%는 중간 태도 내지 거의('별로' 또는 '전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통일문제에 관한 청소년들의 대화의 정도는 대단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Ⅱ-2-3〉

통일문제에 관한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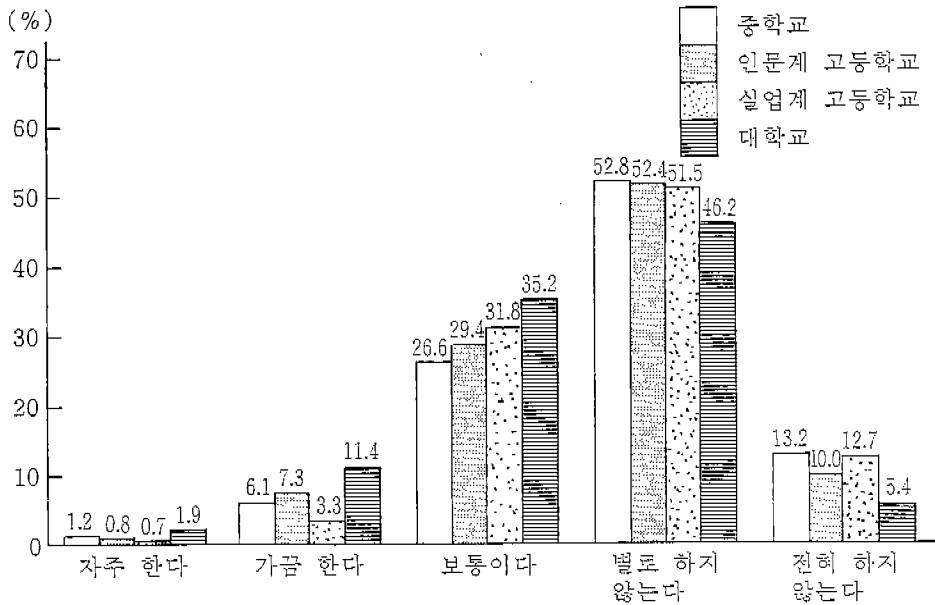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각 집단간의 차이 다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10.4%)이 여학생(6.4%)보다 통일문제에 관한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는, 통일문제에 관한 대화의 정도는 중학생(7.3%), 실업계 고등학생(4.0%), 인문계 고등학생(8.1%), 대학생(13.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Ⅱ-2-4 참조).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생을 제외하고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통일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에서와 같이, 대학생은 다른 집단의 학생들보다도 통일에 대한 대화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거주지별로는 통일문제에 관한 대화의 정도는 강원도지역 학생(12.7%)이 가장 높고, 제주도지역 학생(4.1%)이 가장 낮으며, 생활수준별로는 중상층에 속하는 학생(11.0%)이 가장 높고, 하층에 속하는 학생(5.9%)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층에 속하는 학생(19.6%)과 상층에 속하는 학생(18.4%)은 통일문제에 대한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도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태민 여부별로는 가족중 실태민이 있는 학생(15.0%)이 실태민이 없는 학생(7.6%)

(그림 II-2-4)

학교급별 통일문제에 관한 대화



들보다 통일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결과를 비교해 보면, 통일문제에 대한 대화의 정도는 실험집단이 있는 학생(15.0%), 대학생(13.3%), 강원도지역 학생(12.7%)이 두드러지게 높고, 실업계 고등학생(4.0%), 제주지역 학생(4.1%), 하층에 속하는 학생(5.9%)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약 68.9%의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고, 약 91.8%가 일상생활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와 대화의 정도는 무척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 UN 동시가입」, 「남북합의서」 등의 일련의 사태들로 남북한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위기가 고조되고 이에 통일에 관한 논의가 해야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료와 매체를 통하여 이루

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크게 우려할 정도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다. 물론 이는 그동안 남북한간에 있었던 통일에 대한 대화와 노력이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념과 방법론상의 차이로 인해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만을 주고 남북한간의 대립과 긴장, 갈등을 증대하여 분단을 더욱 고착화해 온 데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본 조사연구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들의 생활자체가 입시에 얽매어 정신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학교때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는 통일교육이 안보의식과 이념교육 위주의 교육내용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통일보다는 남북한간의 분단과 대결을 강조하여 현실, 분단체제에 안주하도록 일조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통일문제가 우리 민족의 사활과 관계있는 전체 국민적인 차원의 문제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청소년들의 무관심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관심은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통일을 지연시키는 본질적인 어려움을 자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2) 통일의 당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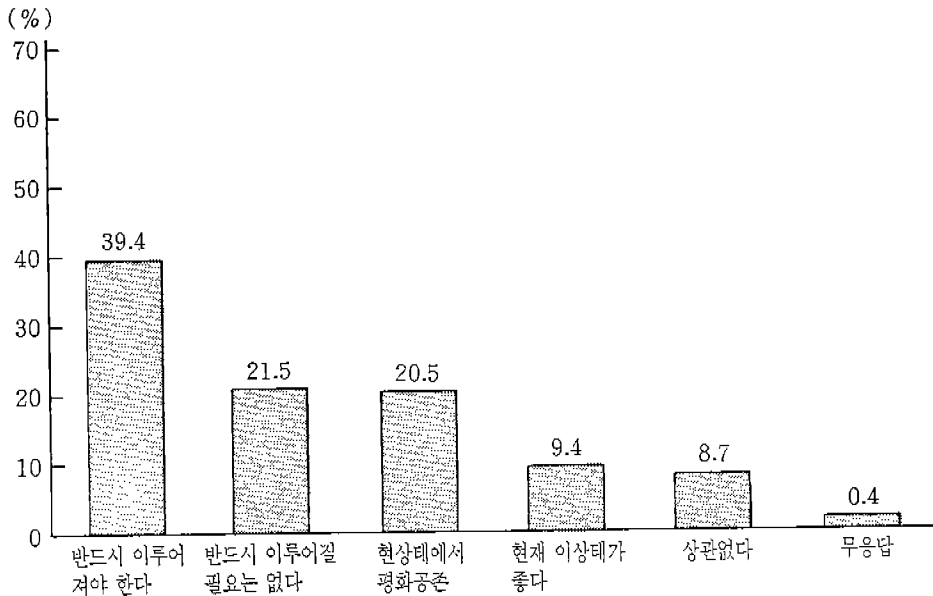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귀하는 통일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현재의 국내외 정세로 보아 대략 언제쯤 통일이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라는 3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는 다음 <표 II-2-3>, <표 II-2-4>, <표 II-2-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통일의 의지
통일의 의지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가 39.4%,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가 21.5%, ‘현 상태에서 평화공존하는 것이 좋다’가 20.5%,

‘통일은 많은 혼란을 초래하므로 현재 이 상태가 좋다’가 9.4%, ‘통일이 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상관없다’가 8.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Ⅱ-2-5 참조).

〈그림 Ⅱ-2-5〉

통일의 의지



전체 응답자의 39.4%만이 통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필코 달성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29.9%가 분단지향적인 태도를, 21.5%가 소극적인 태도를, 8.7%가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태도보다는 현실지향적으로 숙명적인 현실, 분단체제에 순응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으로 청소년들의 통일의지가 기대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치·사회적 불안, 동·서독 주민들간의 갈등 등 통일의 휴우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독일과 북한의 실상에 관한 각종 보고와 함께 사회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일에 대한 회의와 비판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반 세기라는 긴 기간동안 분단체제가 계속 지속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분단시대에 태어나 민족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이질적인 체제에서 성장

한 청소년들은 통일에 따르는 불안과 고통 보다는 다소 안정된 분단체제를 현실로 인정하고 그대로 안착하고 하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46.6%)이 여학생(33.5%)보다 통일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좀 더 체제안정적인 쪽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실업계 고등학생(31.8%), 인문계 고등학생(35.4%), 중학생(42.2%), 대학생(46.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분단체제 지향적인 태도는 실업계 고등학생(42.2%)이, 통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방관적인 태도는 인문계 고등학생(25.9%, 10.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 교육을 다른 집단보다 가장 체계적으로 보다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이 통일의 의지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물론 그들이 입시와 자신들의 장래문제로 통일에 대해 관심을 쏟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으나, 그동안 실시되어 온 통일교육이 오히려 분단지향적이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거주지별로는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호남지역 학생(45.3%)이 가장 높고, 서울지역 학생(36.3%)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분단지향적인 태도는 강원도지역 학생(34.4%)과 서울지역 학생(32.7%)이, 소극적인 태도는 경기도지역 학생(23.6%)과 제주도지역 학생(23.6%)이, 그리고 방관적인 태도는 충청도지역 학생(11.0%)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45.8%)이 가장 높고, 하층에 속하는 학생(35.3%)과 상층에 속하는 학생(36.7%)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분단지향적인 태도는 중상층에 속하는 학생(33.7%)과 중간층에 속하는 학생(30.2%)이, 소극적인 태도와 방관적인 태도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30.6%, 14.3%)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29.4%, 13.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향민 여부별로는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실향민이 있는 학생(47.9%)이 실향민이 없는 학생(38.8%)보다 더 높고, 분단체제 지향적인 태도는 실향민이 없는 학생(30.6%)이 실향민이 있는 학생(21.1%)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실향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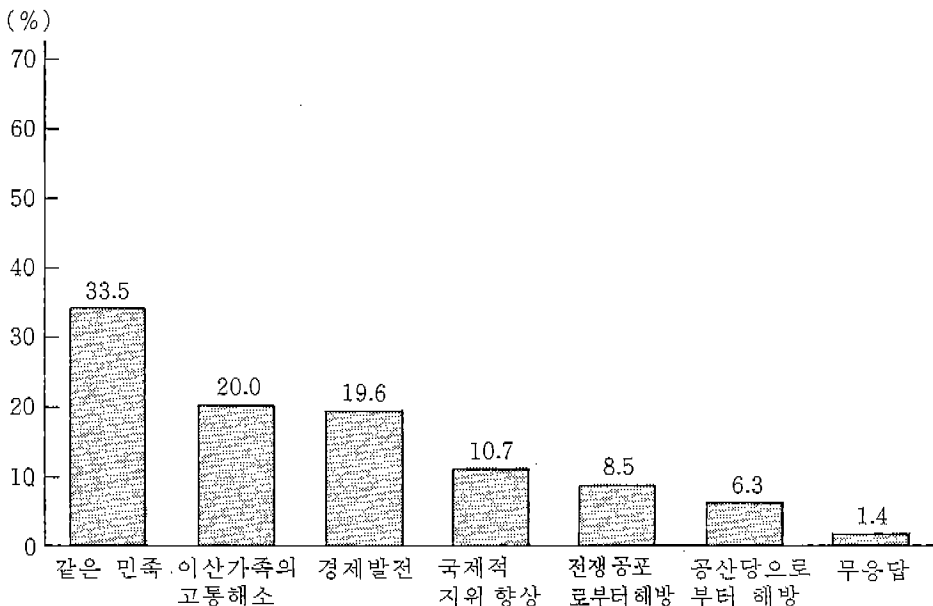
이 있는 학생이 실향민이 없는 학생보다 더 높은 통일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실향민이 있는 학생(47.9%),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45.8%), 대학생(46.7%), 남학생(46.6%), 호남지역 학생(45.3%)이 가장 높고, 실업계 고등학생(31.8%)과 여학생(33.5%)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분단지향적인 태도는 실업계 고등학생(42.2%)과 강원도지역 학생(34.4%)이, 소극적인 태도와 방관적인 태도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30.6%, 14.3%)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29.4%, 13.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같은 민족'이므로가 33.5%, '이산가족의 고통해소'가 20.0%, '경제발전'이 19.6%, '국제적 지위향상'이 10.7%,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이 8.5%, '공산당으로부터 해방'이 6.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Ⅱ-2-6 참조).

(그림 Ⅱ-2-6)

통일의 필요성 (중복응답)



전체 응답자의 33.5%가 통일의 근거를 ‘같은 민족’이라는 단일민족 의식에 두고 있다. 결국,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소년(전체 응답자의 39.4%)중의 33.5%, 즉 전체대상 청소년 중에서 약 13.2%만이 통일의 근거를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사적 정통성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민족 통일이라는 민족적 당위성의 개념이 청소년들에게는 무척 회박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민족적 당위적인 측면(33.5%)’에서보다 현실적인 측면(65.1%)에서 더 많이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8%의 청소년들이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북한 주민의 해방’, ‘전쟁의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통일의 주요한 이유로 보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은 민족의 분단에서 비롯된다고 믿음으로써,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불행과 고통’을 통일로써 해소하려는 현실적인 욕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30.3%의 청소년들이 ‘경제발전’과 ‘국제적 지위향상’을 통일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통일을 ‘민족번영의 기틀’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남북한간의 불필요한 대립과 경쟁에 따른 낭비와 손실을 줄이고 반으로 갈라진 민족역량을 합치면 보다 나은 발전을 통하여 부강한 통일국가를 이룩할 수 있으리라는 민족적 여망과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35.6%)은 여학생(31.1%)보다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적 당위성을 가장 주된 요인으로 지적한 반면에, 여학생(41.7%)은 남학생(28.5%)보다 ‘민족의 분단으로 불행과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논리를 가장 주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통일의 주된 이유로서 ‘같은 민족’은 중학생(24.7%), 실업계 고등학생(30.2%), 인문계 고등학생(35.5%), 대학생(46.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분단으로 인한 불행과 고통해소(47.7%), 특히 ‘이산가족의 고통해소’는 중학생(27.2%)이, ‘민족번영의 기틀’은 인문계 고등학생(36.9%)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력이 높아질수록, 통일에 대한 민족적 당위성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이 대학생에게서 다른 집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강한 민족적 성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거주지별로 보면, 통일의 주된 이유로서 ‘같은 민족’은 호남지역 학생(40.4%)이,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불행과 고통의 해소’는 강원도지역 학생(45.7%)이, ‘민족 번영의 기틀 모색’은 서울지역 학생(34.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 보면, 통일의 주된 이유로서 ‘같은 민족’은 하층에 속하는 학생(37.5%)이,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불행과 고통의 해소’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41.9%)이, 그리고 ‘민족 번영의 기틀 모색’은 중상층에 속하는 학생(34.2%)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향민 여부별로 보면, 통일의 주된 이유로서 ‘같은 민족’은 실향민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실향민이 있는 학생(40.1%, 24.8%)이 없는 학생(34.4%, 19.6%)보다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불행과 고통의 해소’, 특히 ‘이산 가족의 고통해소’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적 당위성은 대학생(46.8%), 호남지역 학생(40.4%)이, ‘이산가족의 고통해소’는 중학생(27.2%), 실향민인 학생(24.8%), 강원도지역 학생(24.1%)이, ‘북한주민의 해방’은 상층에 속하는 학생(12.9%)과 군지역 학생(11.9%)이, ‘전쟁공포로부터의 해방’은 강원도지역 학생(14.7%)과 상층에 속하는 학생(12.9%)이, ‘경제발전’과 ‘국제적 지위향상’은 인문계 고등학생(36.9%), 서울지역 학생(34.3%), 중상층에 속하는 학생(34.2%)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요약하면, 통일의 주된 이유로서 ‘같은 민족’은 대학생(46.8%)이,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불행과 고통의 해소’는 중학생(47.1%)과 강원도지역 학생(45.7%)이, 그리고 ‘민족 번영의 기틀 모색’은 인문계 고등학생(36.9%)과 중상층에 속하는 학생(34.2%)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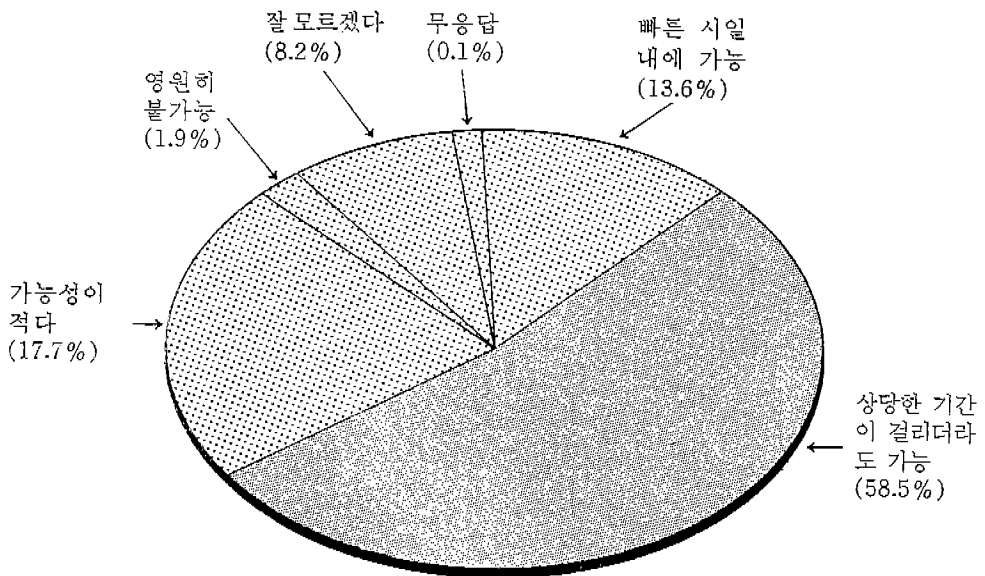
통일의 가능성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보아, ‘빠른 시일내에 가능할 것이다’가 13.6%, ‘상당한 기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할 것이다’가 58.5%, ‘가능성이 적다’가 17.7%, ‘영원히 불가능하다’가 1.9%, ‘잘 모르겠다’가 8.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2-7 참조).

전체 응답자의 72.1%가 언젠가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의 팽배(68.9%)와 통일에 대한 낮은 의지(39.4%)와는 달리 많은 청소년들이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이다. 이는 통일문제에 대해 관념적으로 밖에 모르는 청소년들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나 개인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판단에서 보다는 최근 급격한 국내외의 정세의 변화에 따라 통일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통일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하다.

〈그림 Ⅱ-2-7〉

통일의 가능성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다’고 보는 청소년은 13.6%에 불과하고, 통일의 시기를 멀리 내다 보는 청소년(58.5%)이 많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는 통일은 단시간에 쉽게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문제라는 인식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또한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적인 성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의 문제가 명분의 세계에서만 논의될 뿐이지 실제로 청소년들의 가슴에 와 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통일문제를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먼 훗날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생각된다. 결국, 통일의 시

기에 대한 전망을 통일에 대한 의지 정도와 관련시켜 본다면, 통일의 시기를 멀리 전망하는 것이 반드시 비관적인 견해로 볼 수는 없지만 가까운 시기에 통일이 이루어지라는 전망보다는 통일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으로만 볼 수가 없다.

통일의 가능성이 ‘적거나(17.7%)’, ‘불가능하다(1.9%)’고 보는 통일 성취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를 가진 청소년들이 19.6%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모르겠다’는 청소년들도 8.2%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통일의식을 정립하는 기본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신념을 알아 보는 간접적인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은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나 신념부족, 나아가 분단체제를 현실적으로 묵연하려는 안일한 경향이 청소년들에게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다’는 중학생(17.4%)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다’는 대학생(64.6%)이, ‘가능성이 적다’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실업계 고등학생(25.1%, 2.8%)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통일의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실업계 고등학생이 통일의 시기를 다른 집단보다 불투명하게 전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별로 보면, 통일이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다’는 제주도지역 학생(16.3%)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다’는 경기도지역 학생(61.8%)이, ‘가능성이 적다’는 강원도지역 학생(23.9%)이, ‘잘 모르겠다’는 충청도지역 학생(9.9%)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 보면, 통일이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다’와 ‘가능성이 적다’는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15.1%, 18.5%)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다’는 중상층에 속하는 학생(61.8%)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5.9%)이, ‘잘 모르겠다’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25.5%)과 상층에 속하는 학생(18.4%)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생활수준별로는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견해가 일

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향민 여부별로 보면, 실향민이 있는 학생(80.4%, 19.9%)이 없는 학생(71.5%, 13.2%)보다 통일의 가능성을 더 낙관적으로 보고 통일의 조기달성에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의 실현가능성은 북한이 고향인 학생(80.4%)과 대학생(77.7%)이 가장 높고, 하층에 속하는 학생(53.0%)과 상층에 속하는 학생(59.1%), 실업계 고등학생(63.7%)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다’는 통일의 조기 달성의 가능성은 실향민이 있는 학생(19.9%)과 중학생(17.4%)이 가장 높고, 하층에 속하는 학생(5.9%)과 실업계 고등학생(9.1%)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통일의 ‘가능성이 적다’는 실업계 고등학생(25.1%)과 강원도지역 학생(23.9%)이, ‘영원히 불가능하다’와 ‘잘 모르겠다’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5.9%, 25.5%)과 상층에 속하는 학생(4.1%, 18.4%)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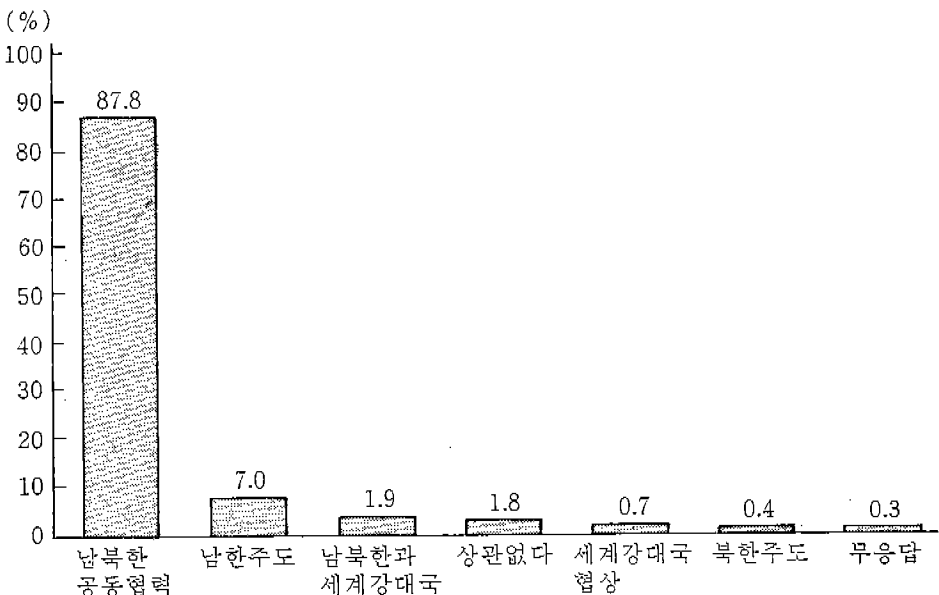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39.4%의 청소년들만이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중 33.5%의 청소년(전체의 약 13.2%)만이 통일의 근거를 ‘같은 민족’이라는 당위적인 논리에 두고 있어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이 청소년들 사이에 심각하게 회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이 회박한 데도 불구하고,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해적으로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실시되어 온 통일교육이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통일지향적인 교육보다 적대·대립관계로서의 남북한 관계를 중점적으로 강조해 온 분단지향적인 교육의 결과로 볼 수 있다.

3) 통일의 방법

통일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통일방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귀하는 누구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통일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2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는 다음 <표 II-2-6>, <표 II-2-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통일의 주체세력 통일의 주체세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남북한이 공동협력하여 이루어야 한다’가 87.8%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그 밖에 ‘남한의 주도하에 이루어야 한다’가 7.0%, ‘남북한을 포함한 세계강대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가 1.9%로, ‘누가 하든 상관없다’가 1.8%, ‘세계강대국들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가 0.7%, 그리고 ‘북한의 주도하에 이루어야 한다’가 0.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2-8 참조).

<그림 II-2-8> 통일의 주체세력



대다수의 청소년(87.8%)들이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 전체의 문제로서 남한이나 북한 어느 한 곳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모두가 주체가 되어 함께 일치단결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통일노력의 주체를 세계강대국이 아닌 우리민족 내부에서 찾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의지에 비해 통일의 주체성에 대한 강한 인식은 무척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외세에 의해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어 왔던 민족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강한 반외세의식 경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통일의 주체를 우리 민족 전체임을 자각하여 통일은 외세의존성에서 벗어나서 우리 민족의 힘 즉, 남북한 공동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스스로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강하게 느끼고 있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을 엿볼 수 있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각 집단간의 유의한 차가 거의 없고, 그 반응경향은 전체반응과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학교급별로는 대학생들이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남한의 주도(3.6%)’와 ‘통일문제의 국제성(0.8%)’에 대하여서 부정적이며, ‘남북한 공동협력(93.4%)’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거주지별로 보면, ‘남한 주도’는 강원도지역 학생(11.5%)이, ‘남북한 공동협력’은 호남지역 학생(91.1%)이 다른 지역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강원도지역과 제주도지역의 경우 ‘북한 주도’를 지적한 청소년들이 하나도 없는 점이 특색이다.

생활수준별로 보면, 상층에 속하는 학생은 ‘남북한 공동협력’(67.3%)이 낮으며 ‘남한 주도(14.3%)’, ‘북한 주도(2.0%)’ 및 ‘상관없다(12.2%)’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하층에 속하는 학생 역시 ‘남북한 공동협력(72.5%)’이 낮고 ‘상관없다(11.8%)’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계층의 통일 의식에 문제점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실향민 여부별로 보면, 실향민이 있는 학생(10.7%, 83.5%)이 없는 학생(6.7%, 88.1%)보다 통일의 주체세력으로 ‘남한 주도’가 더 높고 ‘남북한 공동협력’이 낮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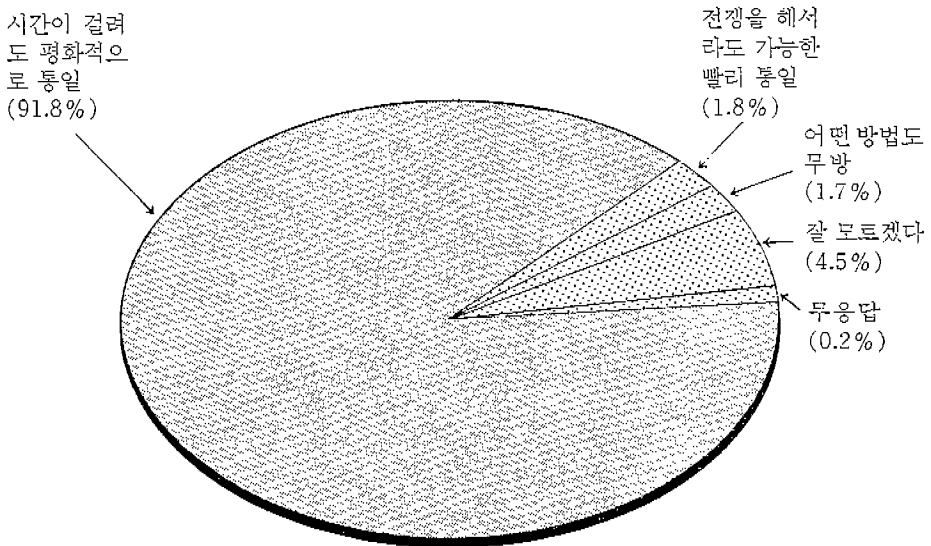
나타나는 점이 특이하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결과를 비교하면, 통일의 주체세력으로 ‘남북한 공동협력’은 대학생(93.4%)과 호남지역 학생(91.1%)이, ‘남한 주도’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14.3%)과 강원도지역 학생(11.5%)이, ‘남북한과 세계강대국’은 실업계 고등학생(4.2%)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3.9%)이, ‘상관없다’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12.2%)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11.9%)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의 방법 통일의 방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려도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가 91.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가 4.5%, ‘전쟁을 해서라도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가 1.8%, ‘어떤 방법도 무방하다’가 1.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2-9 참조).

〈그림 II-2-9〉

통일의 방법



전체 응답자의 3.5%만이 ‘전쟁에 의한 통일’과 ‘어떤 방법도 무방하다’는 조금한

통일론을 지지하고, 절대 다수인 91.8%가 ‘평화적인 점진적인 통일’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족상잔을 겪은 민족으로서 전쟁에 의한 방법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국민적 정체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 정세속에서는 전쟁에 의한 방법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배경변인별에 따라 통일의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성별로 보면 여학생(93.8%)이 남학생(89.3%)보다 평화적 통일을 더 바라고 남학생(3.3%, 2.6%)은 여학생(0.5%, 1.0%)보다 전쟁에 의한 혹은 어떤 방법에도 무관한 조급한 통일을 더 바라고 있다. 이는 남자들의 조급함과 여성의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인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은 중간층에 속하는 학생(92.8%)이, ‘전쟁을 해서라도 빨리’와 ‘어떤 방법도 무방하다’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5.9%, 5.9%)이, ‘잘 모르겠다’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16.3%)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13.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층에 속하는 학생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은 다른 집단보다도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높게 반영하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결과를 비교하면,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은 대체로 거의 모든 집단이 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유독 하층에 속하는 학생(74.5%)과 상층에 속하는 학생(79.6%)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쟁을 통한 통일’과 ‘어떤 방법도 무방하다’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5.9%, 5.9%)이, ‘잘 모르겠다’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16.3%)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13.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층에 속하는 학생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높게 반영하고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87.8%의 청소년들이 통일의 주체는 남북한 민족 전체임을 자각하고 있으며, 91.8%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적이며 점진적인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통일의 방법에 있어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도 청소년들 사이에 ‘민족의 운명은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겠다’는 민족주체성에 입각하여 통일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자주적 통일성취의 의지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점은 무척 바람직하며 앞으로의 통일문제해결의 전망을 밝게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4) 통일의 선결과제

통일을 이룩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측정하기 위하여 “귀하는 통일을 이룩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이 시급히 서둘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2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는 다음 <표 II-2-8>, <표 II-2-9>에 제시된 바와 같다.

통일의 장애요인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남북한의 이념대립’, 즉 남한의 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의 대립이 20.2%로 주된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되고 ‘남북한간의 이질화’가 13.5%, ‘북한의 공산주의체제 고수’가 13.0%,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관계’가 11.0%, 그리고 ‘상호 통일의지 결여 및 실질적인 노력부족’이 10.0%, ‘통일방법상의 차이’가 9.6%, ‘남북한의 경제적 차이’가 7.8%,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6.7%,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이 4.9%, ‘주한미군 주둔’이 2.3%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II-2-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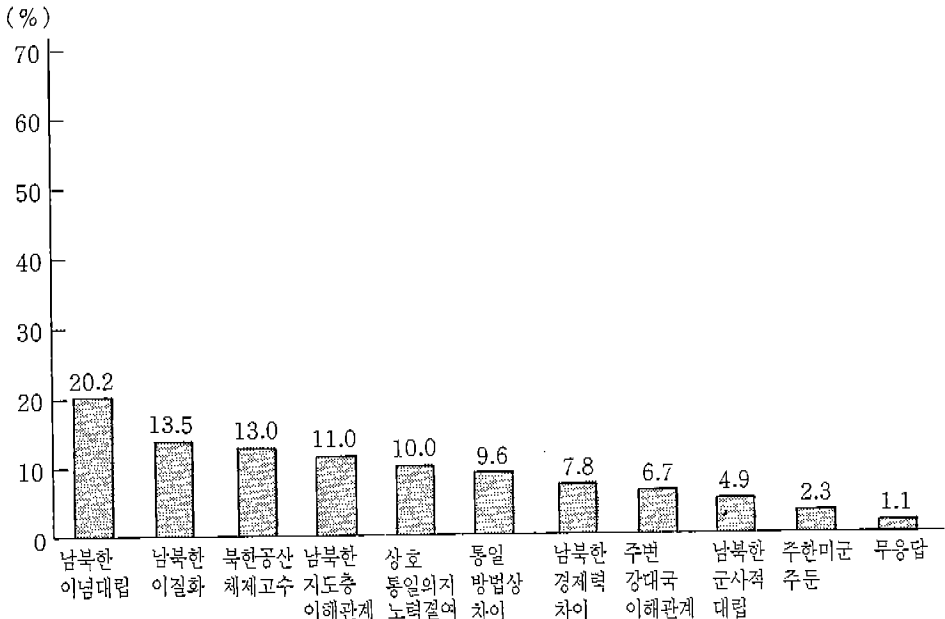
어떤 한 요인에 대한 두드러진 의견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몇 가지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통일을 민족 전체의 책임으로 보고 통일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서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민족의 내부적인 요인(89.9%)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이나 ‘주한미군 주둔’ 등 군사적인 문제(7.2%)보다는 ‘사상적인 이념대립’, ‘이질화문제’, ‘남북한 경제력 차이’등

〈그림 Ⅱ-2-10〉

통일의 장애요인(중복응답)



반 세기동안 지속되어 온 민족분단의 결과(41.5%)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세째, 통일이 안 되는 책임을 남한이나 북한 어느 한 쪽(15.3%)보다도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관계’, ‘상호 통일의지 결여 및 실질적인 노력 부족’등 남북한 모두 (21.0%)에 돌리고 있다.

네째, 북한측이 지닌 통일의 장애요인인 ‘북한 공산주의체제 고수(13.0%)’가 남한측의 장애요인으로 볼 수 있는 ‘주한미군 주둔(2.3%)’보다 월등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반공교육의 결과로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 청소년들의 의식 저변에 강하게 깔려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불신감은 중학생(17.4%)들에게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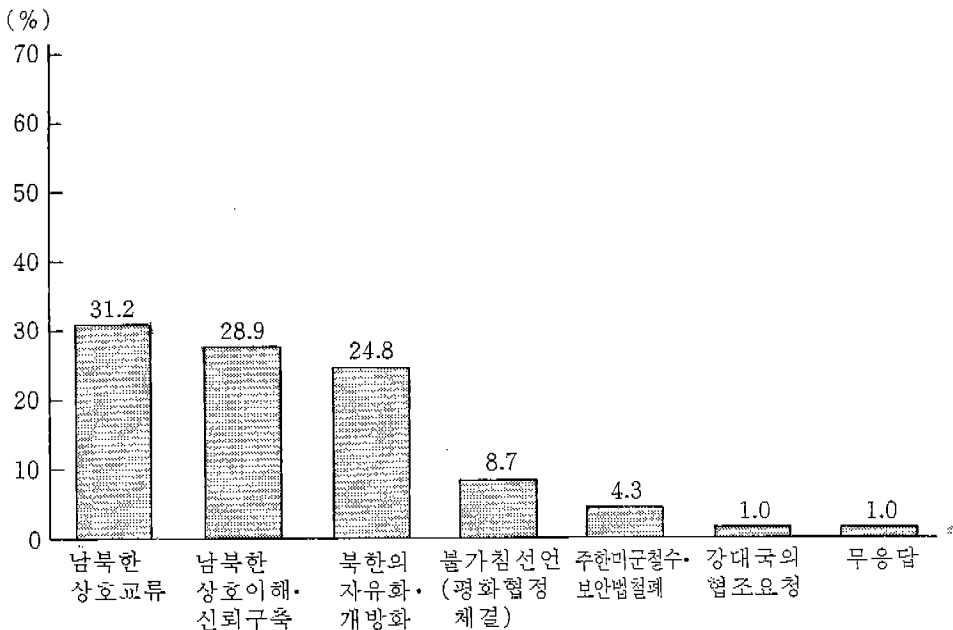
다섯째, 학력이 높아질수록 통일의 장애요인을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관계’, ‘주변강대국의 이해관계’와 같은 구조적인 원인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대학생의 경우, 17.4%, 12.1%).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남북한의 이념적 대립’이 주된 요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의견이 특별히 집중되어 있는 다른 요인은 거의 없

는 편이다. ‘북한 공산주의체제 고수’는 중학생(17.4%)과 충청도지역 학생(16.6%)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대학생(5.6%)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 지도층 이해관계’와 ‘주변강대국의 이해관계’는 대학생(17.4%, 12.1%)이, ‘남북한간의 이질화’는 인문계 고등학생(17.4%)이,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은 상층에 속하는 학생(9.7%)이, ‘통일방법상의 차이’와 ‘남북한 경제력 차이’는 중학생(12.6%, 11.0%)이, ‘상호 통일외지 결여 및 실질적인 노력부족’은 상층에 속하는 학생(16.1%)이, ‘주한미군 주둔’은 호남지역 학생(4.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의 선결과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선결과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남북한 상호교류’가 31.2%, ‘남북한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이 28.9%, ‘북한의 자유화·개방화’가 24.8%로 많이 지적되었고, 다음으로 ‘불가침선언 (평화협정 체결)’이 8.7%, ‘주한미군 철수 및 보안법 철폐’가 4.3%, ‘강대국의 협조요청’이 1.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2-11 참조).

〈그림 II-2-11〉 통일의 선결과제 (중복응답)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남북한간에 ‘상호교류’와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을 실현시키는 것(60.1%)이 조국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즉,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교류와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과 이를 통한 ‘북한의 자유화·개방화’를 실현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며,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비로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폭넓게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 및 보안법 철폐’와 같은 북한측의 주장에 대한 지지는 불과 4.3%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북한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부터 안전과 평화를 크게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통일은 남북한 어느 한 측이나 외국의 도움 또는 협조없이 남북한의 공동협조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이러한 결과는 <표 II-2-6>의 통일의 주체세력에 대한 문항에서 87.8%의 청소년들이 통일의 주체로 ‘남북한 모두’를 지정한 것과 일맥 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남북한 상호교류’와 ‘남북한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은 중학생(51.8%), 실업계 고등학생(55.5%), 인문계 고등학생(65.6%), 대학생(70.7%)의 순으로 나타나고 학력이 높을수록 그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자유화·개방화’는 대학생(13.2%), 인문계 고등학생(23.6%), 실업계 고등학생(29.2%), 중학생(30.8%)의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 선호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북한 상호교류와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은 대학생(70.7%)이 가장 높고, 중학생(51.8%)이 가장 낮으며, ‘북한의 자유화·개방화’는 중학생(30.8%)이 가장 높고 대학생(13.2%)이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중학생과 대학생 간에는 커다란 인식의 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학생은 다른 집단에 비해 ‘주한미군 철수 및 보안법 철폐(8.6%)’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이면서 통일문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는 강한 반외세적인 민족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거주지별로는 ‘남북한간의 상호교류’와 ‘남북한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은 영남지

역 학생(62.1%)이, ‘북한의 자유화·개방화’는 제주도지역 학생(31.8%)이, ‘불가침선언(평화협정)체결’은 경기도지역 학생(11.1%)이, ‘주한미군 철수 및 보안법 철폐’는 호남지역 학생(9.1%)이, ‘강대국의 협조요청’은 강원도지역 학생(2.2%)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남북한 상호교류와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 ‘불가침선언(평화협정)체결’은 하층에 속하는 학생(61.0%, 10.0%)이, ‘북한의 자유화·개방화’는 잘산다는 학생(25.9%)이, ‘주한미군 철수 및 보안법 철폐’는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7.9%)이, ‘강대국의 협조요청’은 상층에 속하는 학생(8.6%)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결과를 살펴보면, ‘남북한 상호교류와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은 대학생(70.7%)이, ‘북한의 자유화·개방화’는 제주지역 학생(31.8%)과 중학생(30.8%)이, ‘주한미군 철수 및 보안법 철폐’는 호남지역 학생(9.1%)과 대학생(8.6%)이, ‘불가침선언(평화협정체결)’은 경기도지역 학생(11.1%)과 중학생(10.9%)이, ‘강대국의 협조요청’은 상층에 속하는 학생(8.6%)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89.9%의 절대 다수 청소년들은 통일이 되지 않는 책임은 우리 민족 자체, 즉 남북한 당사자에 있음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60.1%의 청소년들이 남북한 모두가 통일의 주체가 되어 극단적인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남북한간의 ‘상호교류와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을 통하여 통일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것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의 의식에는 통일문제를 민족 전체의 자각으로 민족 전체의 단합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역량에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잠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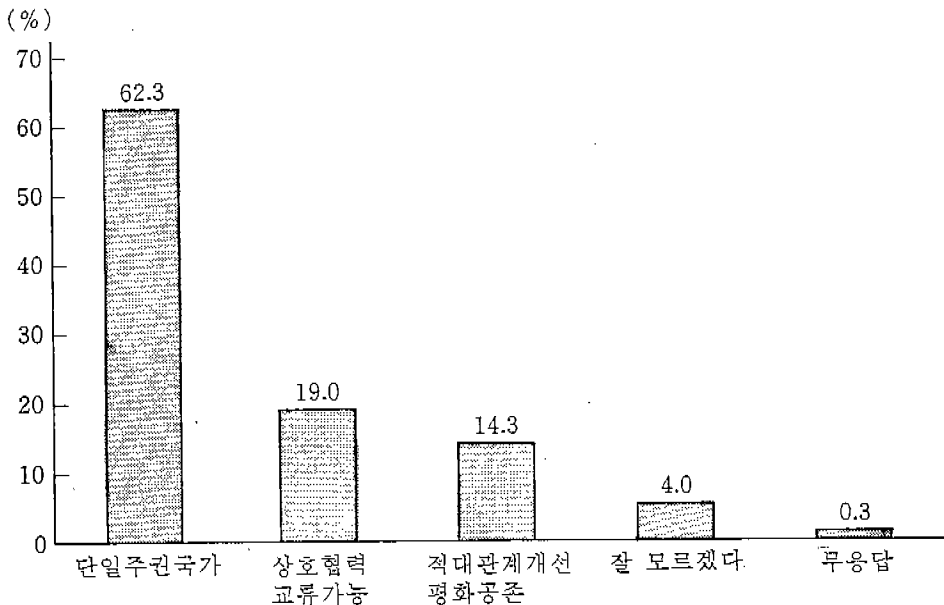
5)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국가의 미래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귀하는 현재의 분단된 조국이 어떤 상태가 되었을때 통일이라고 보십니까?”, “귀하는 통일후 국가는 어떤 체제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통일이 되고 난 후의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과 비교하여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3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는 다음 〈표 II-2-10〉, 〈표 II-2-11〉, 〈표 II-2-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통일국가의 모습 어떤 상태를 통일로 보느냐는 통일의 모습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남북한이 하나의 단일한 주권국가로서 민족·사회·문화적 공동체를 이룰 때’가 과반수 이상인 62.3%, ‘남북한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협력관계를 맺어 인적·물적 교류가 가능할 때’가 19.0%, ‘군사적 적대관계를 개선하고 평화공존을 할 때’가 14.3%, ‘잘 모르겠다’가 4.0%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2-12 참조).

〈그림 II-2-12〉

통일국가의 모습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단일주권국가’ 형태를 통일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간의 대립, 경쟁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 만으로도 통일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을 의미하는 ‘상호교류’나 ‘평화공존’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체험하지 못하고 분단체제에서 성장한 새로운 세대인 청소년들이 분단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고착화를 목인하는 경향이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의식은 남북 통일이라는 민족적 당위성에 위기를 초래하고 통일이라는 과업을 성취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학교급별로는, 통일국가의 형태로 ‘단일주권국가’는 인문계 고등학생(69.2%)이, ‘상호교류’는 대학생(22.6%)이, ‘평화공존’은 중학생(15.6%)이, ‘잘 모르겠다’는 실업계 고등학생(3.2%)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잘 모르겠다’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중학생이 7.4%, 실업계 고등학생이 3.2%, 인문계 고등학생이 2.7%, 대학생이 1.4%의 순), 이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어떤 상태를 통일로 보는지에 대한 의견이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지별로는, 통일국가의 형태로 ‘단일주권국가’는 제주도지역 학생(65.9%)이, ‘상호교류’는 호남지역 학생(22.2%)이, ‘평화공존’은 강원도지역 학생(17.8%)이, ‘잘 모르겠다’는 충청도지역 학생(5.2%)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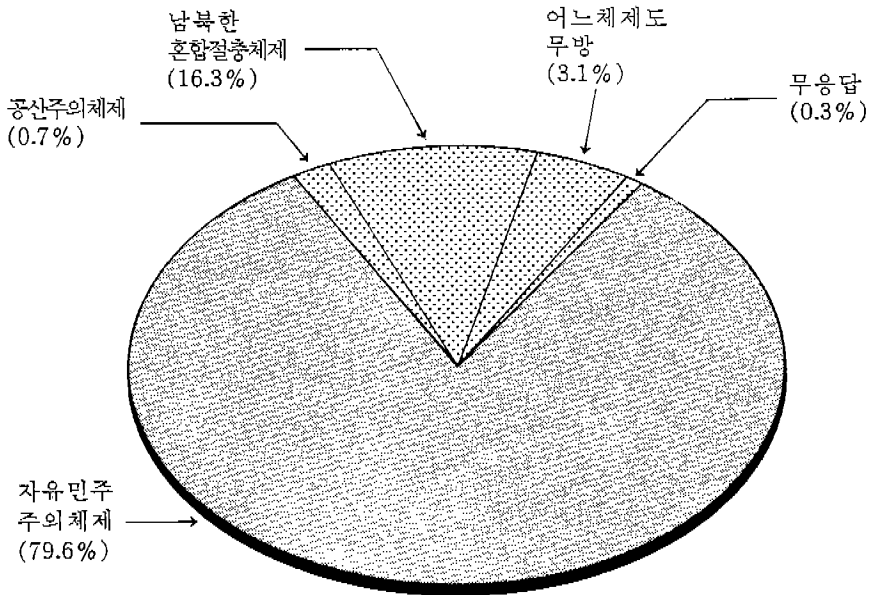
생활수준별로는, 통일국가의 형태로 ‘단일주권국가’는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66.0%)이, ‘상호교류’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21.6%)이, ‘평화공존’은 상층에 속하는 학생(18.4%)이, ‘잘 모르겠다’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12.2%)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13.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결과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통일국가의 형태로 ‘단일주권국가’는 인문계 고등학생(69.2%)이, ‘상호교류’는 대학생(22.6%)과 호남지역 학생(22.2%)이, ‘평화공존’은 상층에 속하는 학생(18.4%)과 강원도지역 학생(17.8%)이, ‘잘 모르겠다’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12.2%)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13.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국가의 체제 통일국가 체제에 관한 청소년의 의견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79.6%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 ‘남북한 혼합절충체제’가 16.3%, ‘어느 체제도 무방’하다는 3.1%, ‘공산주의체제’가 0.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2-13 참조).

〈그림 II-2-13〉

통일국가의 체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통일을 지향하고 구체화할 이념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원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청소년들의 강한 애착과 관심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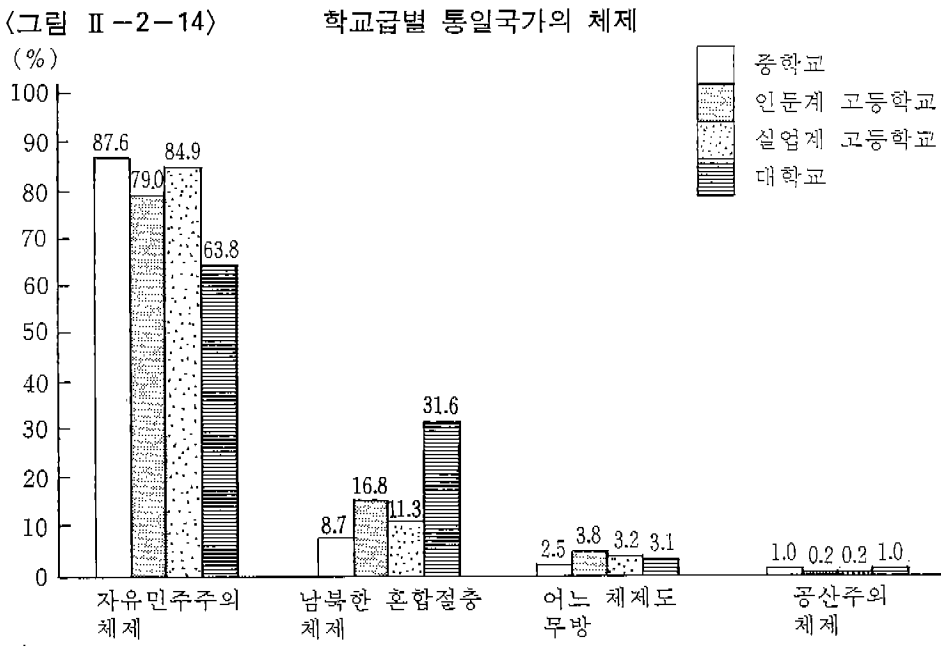
반면에, ‘공산주의체제’를 원하는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1.0% (몇몇 집단에서는 ‘공산주의체제’를 원하는 청소년이 하나도 없었다.)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산주의’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반공의식이 청소년들의 의식 속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느 체제도 무방하다’는 3.1%에 불과하므로써 급진적인 통일논의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통일지향과 이념지향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의식속에는 민주주의는 어떤 댓가라도 바꿀수 없다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가 이념을 초월하는 통일이라는 절대적인 목표가치보다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의식은 분단이후 중점적으로 실시되어 온 민주주의 교육과 반공교육이 가져다 준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혼합절충체제’, 즉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혼합체제를 원하는 청소년(16.3%)도 많다는 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념보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국제정세속에서 통일문제를 민주주의라는 서구의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라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적 차원에서 민족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우리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민족적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민족주의적 경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성별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여학생(84.0%)이 남학생(74.2%)보다 더 높고, ‘남북한 혼합절충체제’는 남학생(20.3%)은 여학생(13.2%)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중학생(87.6%), 실업계 고등학생(84.9%), 인문계 고등학생(79.0%), 대학생(63.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남북한 혼합절충체제’는 대학생(31.6%), 인문계 고등학생(16.8%), 실업계 고등학생(11.3%), 중학생(8.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2-14 참조).



즉, 학력이 높을수록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더 낮게 나타나고, ‘남북한 혼합절충체제’는 더 높게 나타나는 서로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생(63.8%, 31.6%)은 다른 집단보다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낮게 나타나고, ‘남북한 혼합절충체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의 사상적인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때 주목할 만하다.

생활수준별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중간층에 속하는 학생(81.1%)이 가장 높고, 상층에 속하는 학생(61.2%)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66.7%)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 혼합절충체제’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13.6%)이, ‘공산주의체제’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2.0%)이, ‘어느 체제도 무방하다’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16.3%)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9.8%)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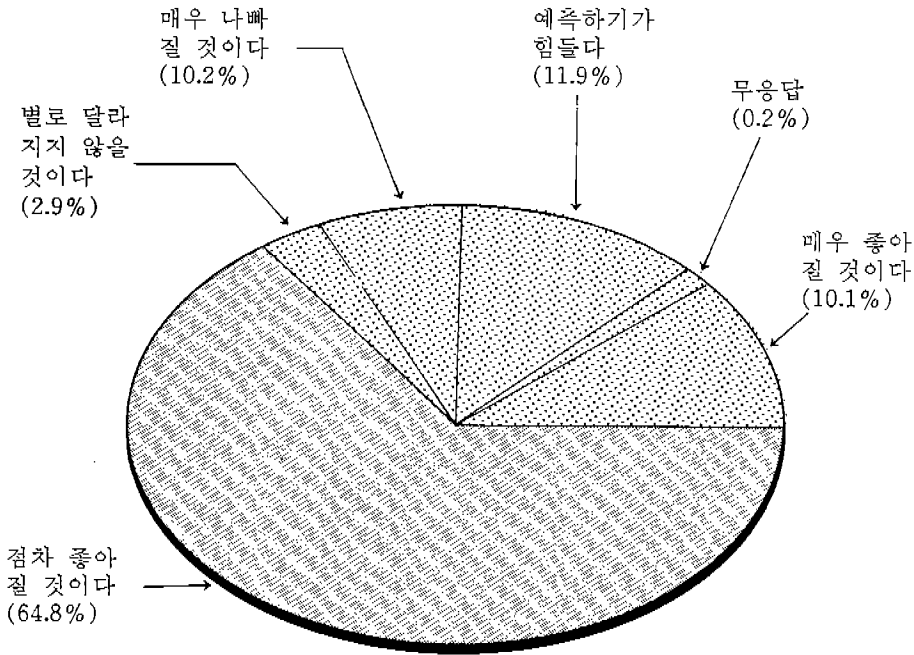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결과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통일국가의 이념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중학생(87.6%)이 가장 높고, 상층에 속하는 학생(61.2%)과 대학생(63.8%)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 혼합절충체제’는 대학생(31.6%)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13.6%)이, ‘어느 체제도 무방하다’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14.3%)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9.8%)이 ‘공산주의체제’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2.0%)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국가의 전망 통일국가의 미래에 대한 청소년들의 기대감은, 전체적으로 ‘매우 좋아질 것이다’가 10.1%, ‘점차 좋아질 것이다’가 64.8%,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가 2.9%, ‘매우 나빠질 것이다’가 10.2%, ‘예측하기가 힘들다’가 11.9%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2-15 참조).

전체 응답자의 74.9%가 통일국가의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의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통일독일과 낙후된 북한의 실상에 대한 각종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통일국가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이례적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의지를 비추어 볼 때 참으로 이례적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역시 통일이후 단기적이거나 장기적으로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거나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통일국가의 미래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2-15〉

통일국가의 전망



성별로 보면, 남학생(12.2%)이 여학생(8.4%)보다 통일국가의 미래가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조금 높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반면에, 여학생(11.2%)은 남학생(9.0%)보다 약간 더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학교급별로 보면, ‘매우’ 또는 ‘점차 좋아질 것이다’는 낙관적인 전망은 대학생(81.1%)이, ‘매우 나빠질 것이다’는 비관적인 전망과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불투명한 전망은 실업계 고등학생(13.5%, 15.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별로 보면, ‘매우’ 또는 ‘점차 좋아질 것이다’는 낙관적인 전망은 호남지역 학생(80.7%)이, ‘매우 나빠질 것이다’는 비관적인 전망은 강원도지역 학생(14.6%)과 서울지역 학생(12.4%)이,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불투명한 전망은 영남지역 학생(14.4%)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 보면, ‘매우’ 또는 ‘점차 좋아질 것이다’는 낙관적인 전망은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76.0%)이, ‘매우 나빠질 것이다’는 비관적인 전망과 ‘예측하기가 힘들다’

는 불투명한 전망은 하층에 속하는 학생(17.6%, 17.6%)과 상층에 속하는 학생(16.3%, 16.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층에 속하는 학생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은 다른 문항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 내지 회피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실향민 여부별로 보면, 실향민이 있는 학생(82.0%)은 없는 학생(74.3%)보다 ‘매우 또는 점차 좋아질 것이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반면에, 실향민이 없는 학생(12.3%)은 있는 학생(5.4%)보다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불투명한 전망을 하므로써, 통일국의 미래에 대해 훨씬 더 불안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결과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통일국가의 장래가 ‘매우 또는 점차 좋아질 것이다’는 낙관적인 전망은 실향민이 있는 학생(82.0%), 호남지역 학생(80.7%), 대학생(81.1%)이, ‘매우 나빠질 것이다’는 비관적인 전망은 하층에 속하는 학생(17.6%), 상층에 속하는 학생(16.3%), 그리고 강원도지역 학생(14.6%)이,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불투명한 전망은 하층에 속하는 학생(17.6%), 상층에 속하는 학생(16.3%)과 실업계 고등학생(15.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요약해 보면, 62.3%의 청소년들이 ‘남북한이 하나의 단일주권국가로서 민족·사회·문화적 공동체를 이룰 때’ 비로서 통일이 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79.6%가 통일된 국가의 이념체제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가장 선포하고, 74.9%가 통일이 된 후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단일주권국가를 통일국가의 이상형으로 가장 선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남한정부의 통일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효과를 성공적으로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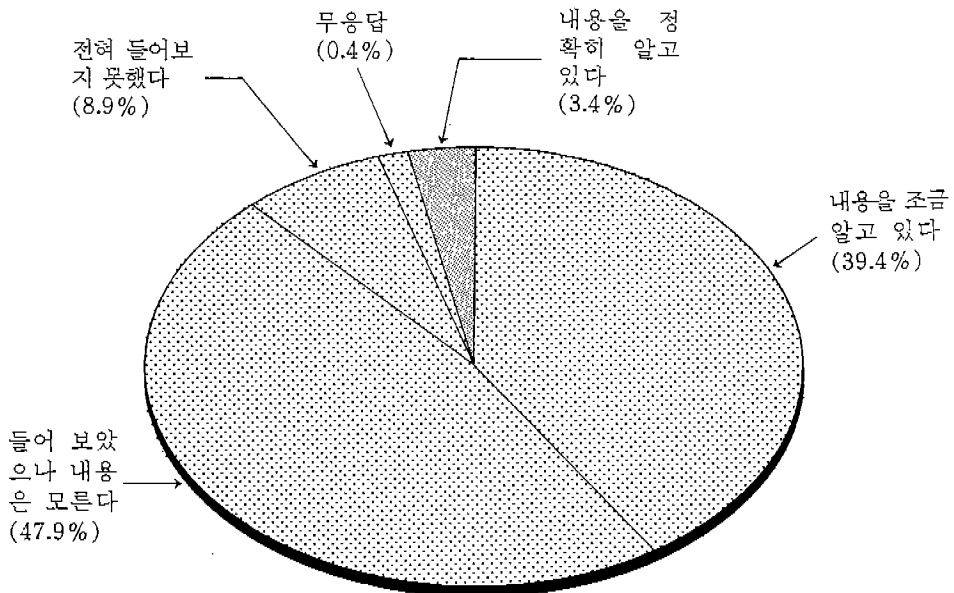
6)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귀하는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십니까?”, “귀하는 북한이 내놓은 통일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십니까?”, “귀하는 남북한의 통일방안중 어느 안이 더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최근 「남북한 UN 동시가입」, 「남북합의서」, 「비핵화선언」 등 일련의 사태들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4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는 다음 <표 II-2-13>, <표 II-2-14>, <표 II-2-15>, <표 II-2-1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 남한의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가 3.4%, ‘내용을 조금 알고 있다’가 39.4%, ‘들어보았으나 내용은 모른다’가 47.9%,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가 8.9%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2-16 참조).

<그림 II-2-16>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



전체 응답자의 90.7%가 남한의 통일방안 명칭을 알거나 그 내용을 약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42.8%만이 그 내용을 ‘정확히’ 내지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편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정확히 또는 조금’ 안다는 대학생(6.1%, 52.4%)이, ‘들어보았으나 내용은 모른다’는 실업계 고등학생(63.0%)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중학생(19.1%)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인지도는 실업계 고등학생(29.6%), 중학생(34.4%), 인문계 고등학생(51.2%), 대학생(58.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간의 인지도에는 큰 차이를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거주지별로 보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정확히’ 또는 ‘조금’ 안다는 강원도지역 학생(8.3%, 59.9%)이, ‘들어보았으나 내용은 모른다’는 충청도지역 학생(54.5%)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제주도지역 학생(17.9%), 경기도지역 학생(15.3%), 충청도지역 학생(13.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인지도는 강원도지역 학생(59.9%)이 가장 높고, 충청도지역 학생(31.7%)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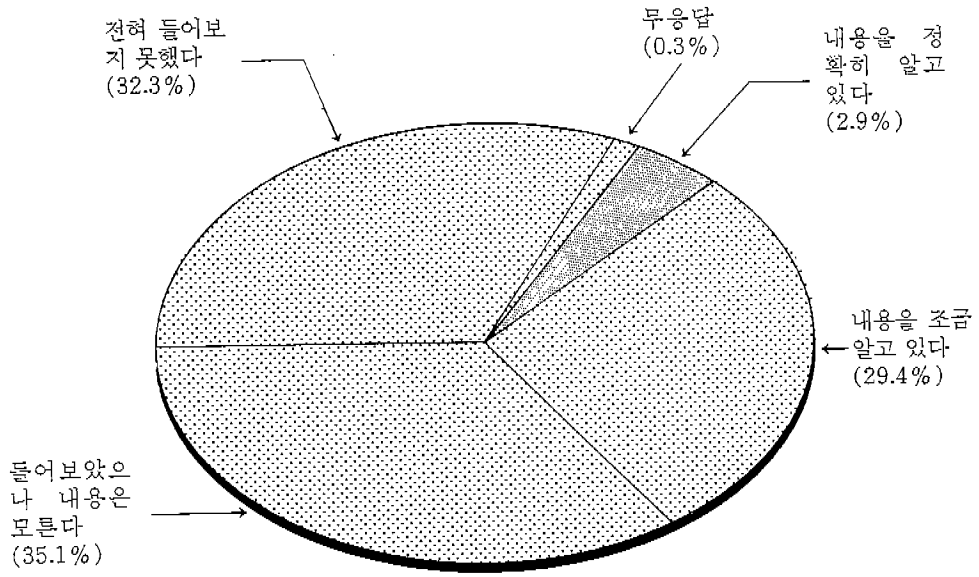
생활수준별로 보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정확히 안다’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8.2%)이, ‘조금 안다’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49.0%)이, ‘들어보았으나 내용은 모른다’는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50.0%)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20.4%)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13.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인지도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52.9%)이 가장 높고,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39.5%)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결과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정확히 안다’는 강원도지역 학생(8.3%)과 상층에 속하는 학생(8.2%)이, ‘조금 안다’는 강원도지역 학생(51.6%)과 대학생(52.4%)이, ‘들어보았으나 내용은 모른다’는 실업계 고등학생(63.0%)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20.4%)과 중학생(19.1%)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한민족공동

동체 통일방안」의 인지도는 강원도지역 학생(59.9%)이 가장 높고, 실업계 고등학생(26.6%)과 충청도지역 학생(31.7%)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인지도는 각 집단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인지도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가 2.9%, ‘내용을 조금 알고 있다’가 29.4%, ‘들어보았으나 내용은 모른다’가 35.1%,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가 32.3%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Ⅱ-2-17 참조).

〈그림 Ⅱ-2-17〉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인지도



전체 응답자의 67.4%가 북한의 통일방안 명칭을 알거나 그 내용을 약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32.3%만이 그 내용을 ‘정확히’ 내지 ‘조금’ 알고 있고, 또 32.3%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인지도는 무척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37.9%)이 여학생(27.7%)보다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정확히’ 또는 ‘조금’ 안다는 대학생(6.5%, 55.4%)이, ‘들어보았으나 내용은 모른다’는 인문계 고등학생(40.8%)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중학생(49.0%)과 실업계 고등학생(46.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인지도는 실업계 고등학생(13.4%), 중학생(21.3%), 인문계 고등학생(36.2%), 대학생(61.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인지도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거주지별로 보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정확히’ 또는 ‘조금’ 안다는 강원도지역 학생(6.4%, 35.7%)이, ‘들어보았으나 내용은 모른다’는 충청도지역 학생(33.3%)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제주도지역 학생(45.5%), 경기도지역 학생(42.5%), 충청도지역 학생(41.8%)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인지도는 강원도지역 학생(42.1%)이 가장 높고, 충청도지역 학생(24.9%)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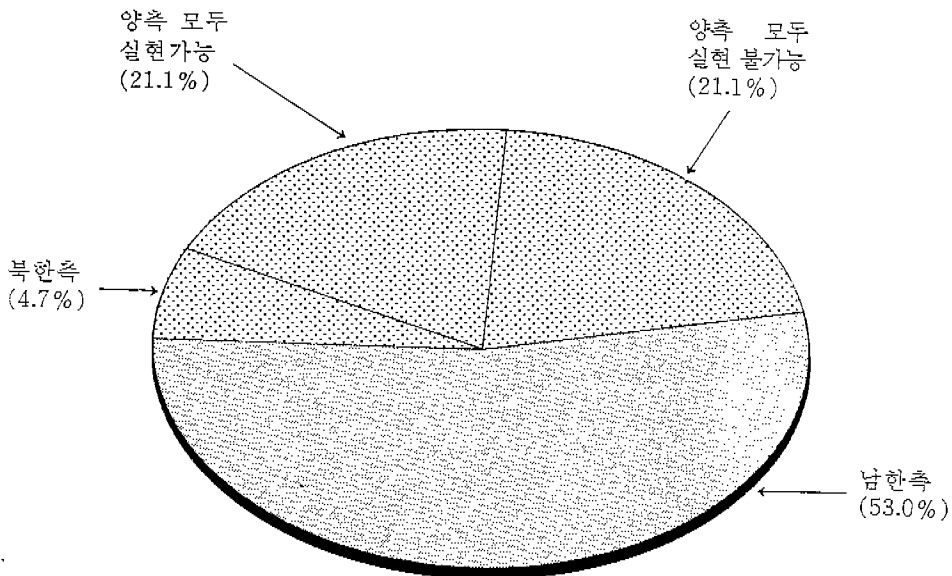
생활수준별로 보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정확히’ 또는 ‘조금’ 안다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9.8%, 33.3%)이, ‘들어보았으나 내용은 모른다’는 중간층에 속하는 학생(35.8%)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42.9%)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인지도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43.1%)이 가장 높고, 상층에 속하는 학생(22.5%)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결과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정확히 안다’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9.8%), 실항민이 있는 학생(6.9%), 대학생(6.5%), 강원도지역 학생(6.4%)이, ‘조금 안다’는 대학생(55.4%)이, ‘들어보았으나 내용은 모른다’는 강원도지역 학생(47.1%)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중학생(49.0%), 실업계 고등학생(46.7%), 제주도지역 학생(45.5%)

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인지도는 대학생(61.9%)이 가장 높고, 실업계 고등학생(13.4%)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인지도는 각 집단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한 통일방안의 실현가능성 남북한 통일방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는 전체적으로 ‘남한의 통일방안이 실현가능하다’는 53.0%, ‘북한의 통일방안이 실현가능하다’는 4.7%, ‘양측 모두 실현가능하다’는 21.1%, ‘양측 모두 불가능하다’는 21.1%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2-18 참조).

〈그림 II-2-18〉 남북한 통일방안의 실현가능성



대체로 남한의 통일방안이 북한의 통일 방안보다 훨씬 더 실현가능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의 통일방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해석될 수 있는 ‘북한의 통일방안이 실현가능하다’(4.7

%)’와 ‘남북한 방안 모두 실현불가능 하다(21.1%)’는 청소년(25.8%)들도 상당히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양측 모두 실현가능 또는 불가능’하다는 중립적인 태도(42.2%)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이는 남북한 통일방안을 약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전체의 약 30%)중에서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립적인 태도는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해 다른 집단보다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대학생(58.5%, 61.9%)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52.1%)는 점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학교급별로는 ‘남한의 통일방안이 실현가능하다’는 대학생(38.5%), 중학생(55.6%), 실업계 고등학생(62.3%), 인문계 고등학생(64.2%)의 순으로, ‘북한의 통일방안이 실현가능하다’는 인문계 고등학생(1.1%), 실업계 고등학생(2.4%), 중학생(3.5%), 대학생(9.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측 모두 실현가능하다’는 중학생(28.8%)이, ‘양측 모두 불가능하다’는 대학생(31.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 통일방안의 평가에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거주지별로는 ‘남한의 통일방안이 실현가능하다’는 강원도지역 학생(59.5%)이 가장 높고, 충청도지역 학생(48.9%)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이 가능하다’는 호남지역 학생(9.3%)이, ‘남북한 통일방안 모두 실현가능하다’는 충청도지역 학생(26.1%)이, ‘남북한 통일방안 모두 불가능하다’는 제주도지역 학생(28.9%)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남한의 통일방안이 실현가능하다’는 중상층에 속하는 학생(57.8%)이 가장 높고, 하층에 속하는 학생(25.8%)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이 실현가능하다’는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10.3%)이, ‘남북한 통일방안 모두 실현불가능하다’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38.7%)과 상층에 속하는 학생(33.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향민 여부별로 볼 때, 실향민이 있는 학생(48.8%, 24.8%)은 없는 학생(53.3

%, 20.8%)보다 다소 남한의 통일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남북한 두 방안 모두 실현불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 결과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남한의 통일방안이 실현가능하다’는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64.2%, 62.3%)이 가장 높고, 하층에 속하는 학생(25.8%), 대학생(38.5%), 그리고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40.2%)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이 실현가능하다’는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10.3%), 하층에 속하는 학생(9.7%), 대학생(9.5%), 호남지역 학생(9.3%)이, ‘남북한 방안 모두 실현가능하다’는 중학생(28.8%), 충청도지역 학생(26.1%), 하층에 속하는 학생(25.8%)이, ‘남북한 방안 모두 실현불가능하다’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38.7%), 상층에 속하는 학생(33.3%), 그리고 대학생(31.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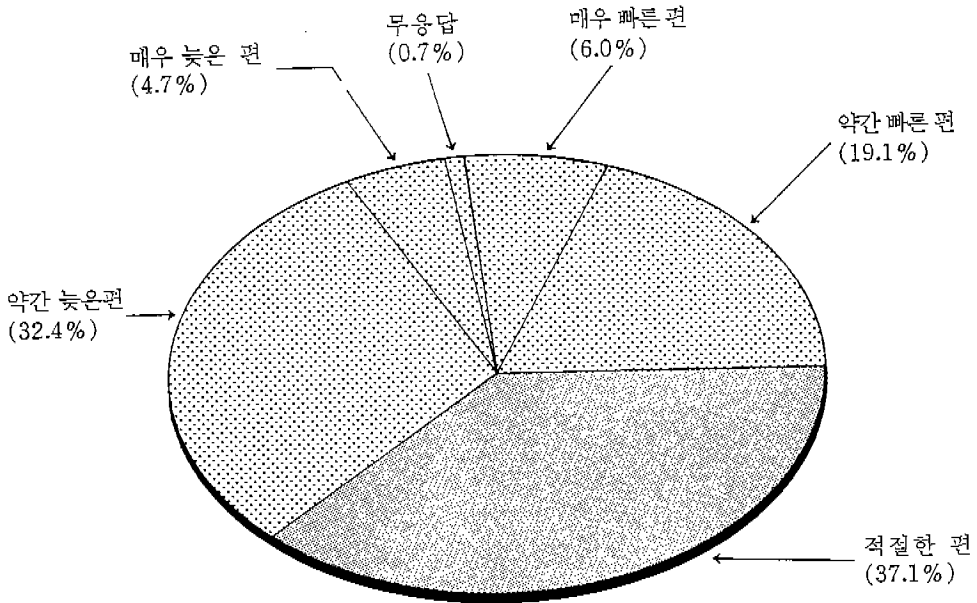
요약하여 보면, 남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북한의 통일방안이 실현가능하다’ 또는 ‘남북한 모두 실현불가능하다’)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48.4%), 상층에 속하는 학생(42.8%), 대학생(40.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양측 모두 실현가능 또는 불가능하다’는 중립적인 태도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64.5%)과 대학생(52.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 남북한 관계에 대한 평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고 있는 남북한 관계에 관한 청소년의 의견은 ‘매우 빠른 편이다’가 6.0%, ‘약간 빠른 편이다’가 19.1%, ‘적절한 편이다’가 37.1%, ‘약간 늦은 편이다’가 32.4%, ‘매우 늦은 편이다’가 4.7%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2-19 참조).

현 남북한의 관계 진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은 어느 한 부분에 일률적으로 기울어지는 것보다 ‘빠른 편(25.1%)’, ‘적절한 편(37.1%)’, 그리고 ‘늦은 편(37.1%)’의 3개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한 관계가 ‘늦은 편’이라는 의견이 ‘빠른 편’이라는 의견보다 다소 높은 것은 남북한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진전을 좀 더 일찍 볼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남북한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II -2-19〉

현 남북한 관계에 대한 평가



거주지별로 보면, 남북한 관계가 ‘매우’ 또는 ‘약간’ 빠른 편이라는 강원도지역 학생(31.9%)과 제주지역 학생(30.1%)이, ‘적절한 편이다’는 충청도지역 학생(39.1%)이, ‘늦은 편이다’는 서울지역 학생(40.4%)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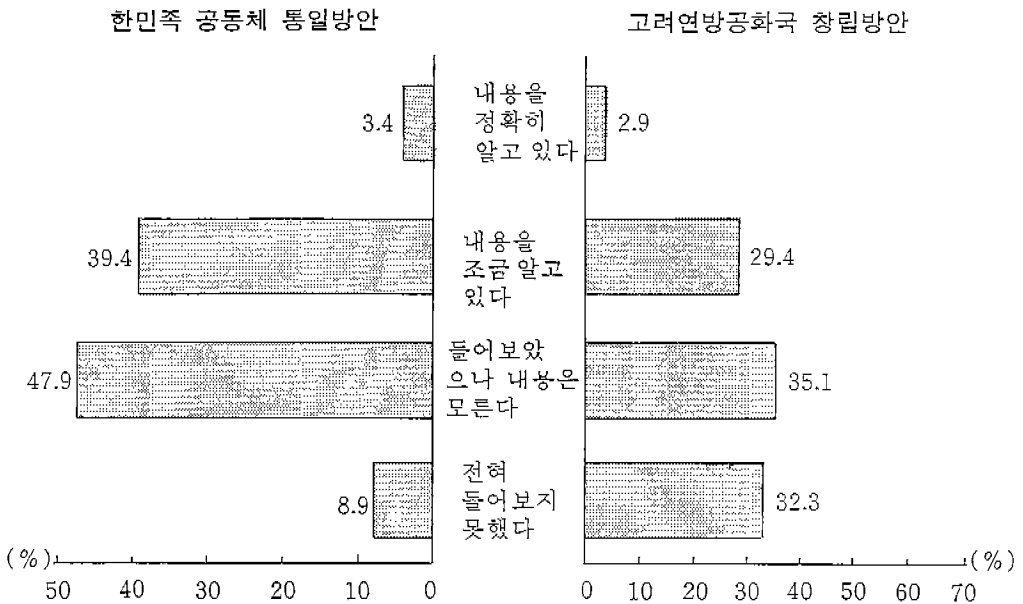
생활수준별로 보면, 남북한 관계가 ‘매우’ 또는 ‘약간’ 빠른 편이라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34.7%)이, ‘적절한 편이다’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41.2%)이, ‘늦은 편이다’는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50.0%)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결과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남북한 관계가 ‘매우’ 또는 ‘약간’ 빠른 편이라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34.7%), 강원도지역 학생(31.9%)이, ‘적절한 편이다’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41.2%), 대학생(39.5%)이, ‘늦은 편이다’는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50.0%)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43.1%)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체 응답자의 42.8%, 32.3%가 남북한이 각각

제안하는 통일방안을 ‘정확히’ 또는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가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는 기대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Ⅱ-2-20 참조).

〈그림 Ⅱ-2-20〉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 비교



또한,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정확히’ 또는 ‘조금’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청소년(전체의 약 30.0% 정도)들 중에도 42.2% 정도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는 훨씬 낮은 20% 내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은 남북한 통일방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21.1%가 남북한 통일방안을, 37.1%가 현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통일문제에 대해 낮은 관심도를 나타냈던 청소년

(전체의 31.1%)들은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통일승계세대인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틀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학력이 높아질수록 인지도 수준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대학생들의 급진적인 경향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생은 남한의 통일방안(58.5%)보다 북한의 통일방안(61.9%)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남북한의 두 통일방안 모두에 대해 회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동시에 남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무척 부정적이고, 북한측의 통일방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학생의 경향은 그들의 사회현상과 현실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에 의해 정책에 대한 부정보다도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대학생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절실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결국, 통일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가 기대 이하로 무척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통일승계세대로서의 그들의 역할과 사명을 고려할 때 무척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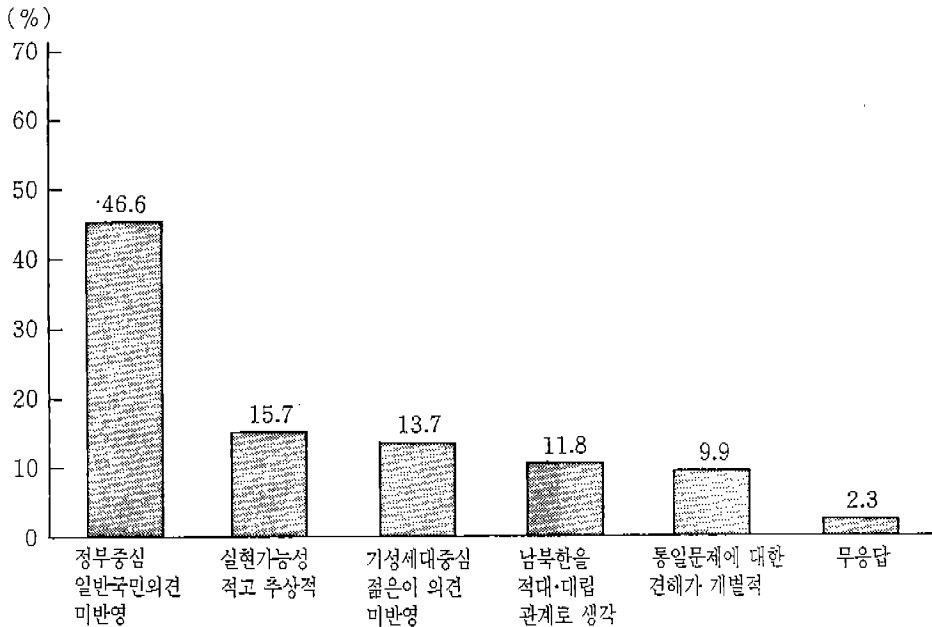
7) 통일문제의 논의방식

통일문제의 논의방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귀하는 현재 사회전반에서 일고 있는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불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통일문제 논의의 개방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2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는 다음 <표 II-2-17>, <표 II-2-1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통일문제 논의의 문제점 현재 전개되고 있는 통일문제 논의에 있어서 가장 불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전체적으로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46.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실현가능성이 적고 너무

추상적이다'가 15.7%, '기성세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젊은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13.7%, '남북한을 적대·대립관계로만 생각한다'가 11.8%, '통일문제에 대한 견해가 너무 개별적이다'가 9.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2-21 참조).

〈그림 II-2-21〉 통일문제 논의의 문제점



과반수(46.6%)에 해당하는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정부의 창구 단일화를 통한 통일논의독점에 불만을 나타내므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통일문제 논의에 한계를 그어 온 많은 제한요인들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통일이란 한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사활이 달린 초정권적인 민족적 과제이기 때문에 통일문제는 정권과 상관없이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전 국민의 합의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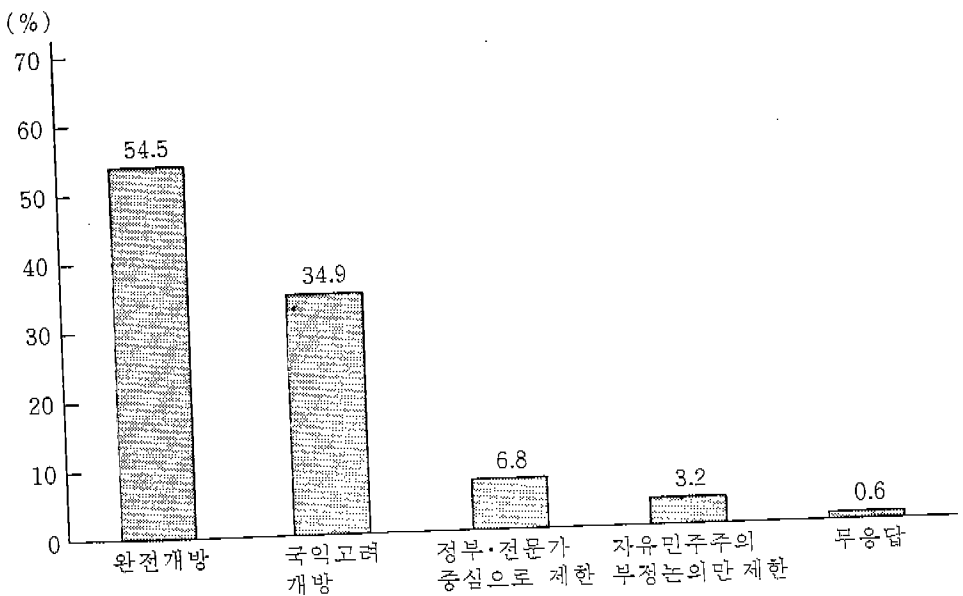
배경변인별 반응결과를 보면, 각 집단간에 특히 두드러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중 가장 불만족한 점으로 '정부 중심으로 일반 국

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강원도지역(50.3%)과 호남지역 학생(49.7%)이,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젊은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22.4%)이, '실행가능성이 적고 너무 추상적이다'는 대학생(20.0%)이, '남북한을 적대·대립관계로만 생각한다'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23.5%)이, '견해가 너무 개별적이다'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13.7%)과 제주지역 학생(13.0%)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문제 논의의 개방성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의 개방수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언제·어디서나·누구나가 논의할 수 있도록 완전개방해야 한다'가 54.5%로 가장 많고, '국익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방해야 한다'가 34.9%,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므로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가 6.8%,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논의만 제한해야 한다'가 3.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2-22 참조).

〈그림 II-2-22〉

통일문제 논의의 개방성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논의를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92.6%)이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6.8%)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통일논의가 전 국민에게 개방되어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화, 자율화 의식 등 일련의 변화와 함께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한 정책을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가 사회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청소년들은 정부나 전문가와 같은 중간매개집단의 역할을 거의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이는 통일은 전 국민의 운명이 관련된 민족적 과제로서 개개의 모든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통일논의는 전 국민의 합의속에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이는 그동안 정부나 전문가와 같은 중간집단의 논의가 일반 국민과 너무 동떨어진 폐쇄적이었다는 이들에 대한 강한 불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통일논의가 ‘국익(34.9%)’이나 ‘자유민주주의(3.2%)’의 범위내에서 조건부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무시될 수 없다. 또한, 통일국가의 체제이념으로서 절대 다수의 청소년(79.6%)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한 데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보다 ‘국익’을 더 앞세우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표 II-2-11〉의 통일국가의 체제 참조). 이러한 점은 팽팽한 이념적 대립속에서 세력경쟁을 벌려 왔던 세계강대국들이 제각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념을 버리거나 서로간의 벽을 주저없이 허물어 버리는 국제정세속에서 우리 민족도 공연한 이념적 경쟁속에서 벗어나 국익을 최대한 추구해야 한다는 국민정신이 청소년들의 의식속에 강하게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통일문제의 ‘완전개방’은 실업계 고등학생이 50.4%, 중학생(53.5%), 인문계 고등학생(55.5%), 대학생(59.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의 ‘완전개방’에 대한 높은 선호는 자신들의 통일에 대한 열의와 현실타과지향성에 따른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성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국익을 고

려한 개방'은 인문계 고등학생(38.6%)이,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제한'은 중학생(10.5%)이, '자유민주주의 부정논의만 제한'은 실업계 고등학생(4.1%)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력이 올라갈수록 통일논의의 제한보다 개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별로 보면, '완전개방'은 호남지역 학생(65.5%)이, '국익을 고려한 개방'은 영남지역 학생(39.4%)이,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제한'은 경기도지역 학생(10.0%)이, '자유민주주의 부정논의만 제한'은 제주도지역 학생(4.9%)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 보면, '완전개방'은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59.2%)이, '국익을 고려한 개방'은 중상층에 속하는 학생(36.4%)이,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제한'은 하층에 속하는 학생(15.7%)이, '자유민주주의 부정 논의만 제한'은 상층에 속하는 학생(10.2%)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9.8%)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 개방'은 호남지역 학생(65.5%)이, '국익을 고려한 개방'은 영남지역 학생(39.4%)과 인문계 고등학생(38.6%)이, '정부와 전문가 중심의 제한'은 아주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15.7%)과 상층에 속하는 학생(14.3%)이, '자유민주주의 범위내에서의 개방'은 상층에 속하는 학생(10.2%)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9.8%)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46.6%의 청소년들은 현재 통일문제의 논의가 정부의 독점에 의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92.6%라는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 통일논의의 제한된 범위에서 벗어나서 통일논의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자유로운 통일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정부나 전문가 등 기존의 통일논의의 주도 집단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면서 통일문제는 민족적 과제로서 전 국민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속에서 우리의 국익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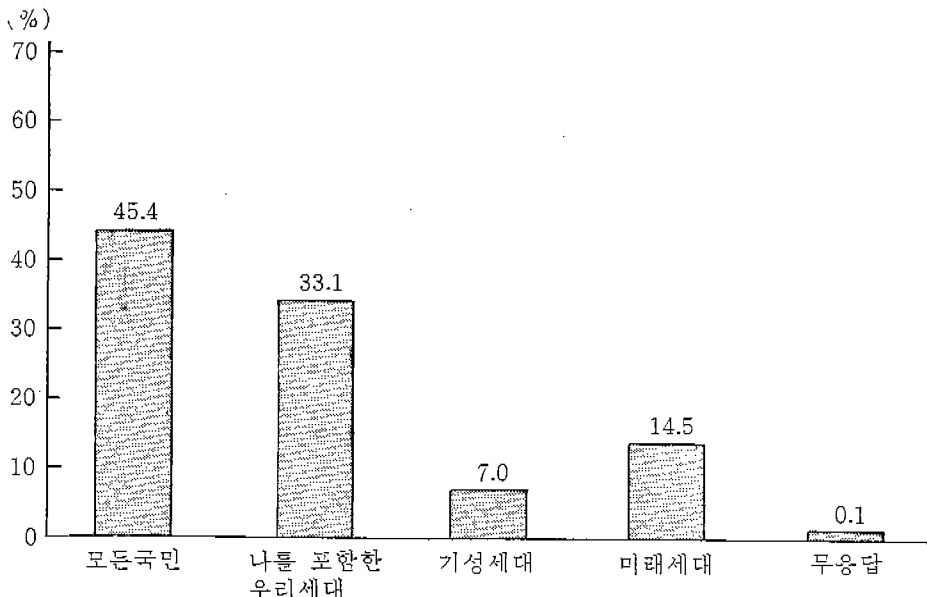
8)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인식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귀하는 통일을 이루는데 주체가 되는 세대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청소년들이 남북통일에 기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최근 일부 대학생들이 직접 북한 청소년들과 만나 통일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3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는 다음 〈표 II-2-19〉, 〈표 II-2-20〉, 〈표 II-2-2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통일의 주체세대 통일문제 해결의 주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은 ‘모든 국민’이 45.4%, ‘나를 포함한 우리 세대(청소년)’가 33.1%, ‘미래 세대’가 14.5%, ‘기성세대’가 7.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2-23 참조).

〈그림 II-2-23〉

통일의 주체세대



과반수(45.4%)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모든 국민’이 통일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일문제는 어느 세대의 전유물이 아닌 전체 국민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이러한 성향은 <표 II-2-17>의 통일문제 논의의 문제점과 <표 II-2-18>의 통일문제논의의 개방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청소년(47.6%)들이 그동안 통일문제를 주도해 온 분단전 세대인 기성세대를 제치고 분단 후의 세대(청소년 또는 미래 세대)를 통일문제 해결의 새로운 주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들 분단후 세대들은 8.15해방이나 민족분단의 비극을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로서 분단전 세대와 달리 민족적 동질감과 민족문화의 공통성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통일문제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달성하는데 새로운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한편 78.5%에 해당하는 많은 청소년(‘모든 국민(45.4%)’이란 ‘청소년세대’로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들이 자신들을 통일의 주도세대로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미래세대를 통일의 주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14.5%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무척 우려된다. 이는 통일을 가까운 장래의 자신의 문제가 아닌 자신과는 관계없는 먼 장래의 초현실적인 문제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이다(<표 II-2-5>의 통일의 가능성에서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58.5%)들이 통일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실현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집단에 비해 통일의 가능성을 적게 본 강원도지역(21.0%)과 상층에 속하는 학생(22.4%)들은 다른 집단보다도 미래세대를 통일의 주역으로 더 간주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간접적으로 잘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38.5%)은 여학생(28.7%)보다 ‘청소년’을, 여학생(50.5%)은 남학생(39.1%)보다 ‘모든 국민’을 통일의 주역으로 더 높게 간주하고 있다. 이로써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일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역할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별로 보면, 통일의 주역으로 ‘모든 국민’은 호남지역 학생(47.9%)과 충청도지역 학생(47.0%)이, ‘청소년세대’는 제주도지역 학생(40.7%)이, ‘미래세대’는 강원도지역 학생(21.0%)이, ‘기성세대’는 서울지역 학생(9.6%)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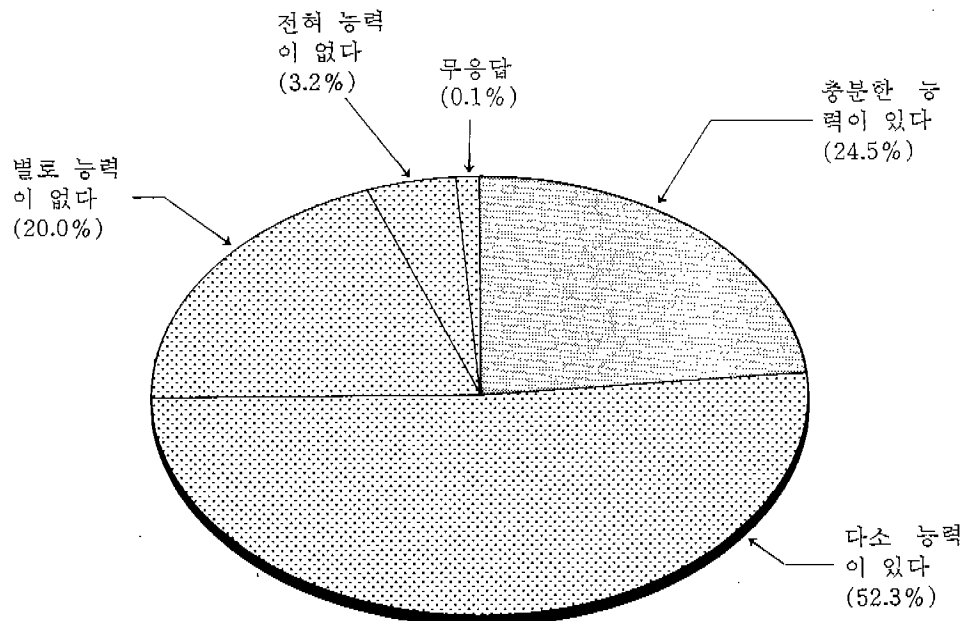
생활수준별로 보면, 통일의 주역으로 ‘모든 국민’은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49.2%)이, ‘청소년세대’와 ‘미래세대’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38.8%, 22.4%)이, ‘기성세대’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11.8%)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향민 여부별로 보면, 통일의 주역으로 ‘모든 국민’은 실향민이 없는 학생(45.8%)이 있는 학생(39.5%)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청소년세대’는 실향민이 있는 학생(39.8%)이 없는 학생(32.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의 주역으로 ‘모든 국민’은 여학생(50.5%)이, ‘청소년세대’는 제주도지역 학생(40.7%)과 실향민이 있는 학생(39.8%)이, ‘미래세대’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22.4%)이, ‘기성세대’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11.8%)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에 대한 기여도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기여도에 대한 의견은 ‘충분한 능력이 있다’가 24.5%, ‘다소 능력이 있다’가 52.3%, ‘별로 능력이 없다’가 20.0%, ‘전혀 능력이 없다’가 3.2%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2-24 참조).

〈그림 II-2-24〉 통일에 대한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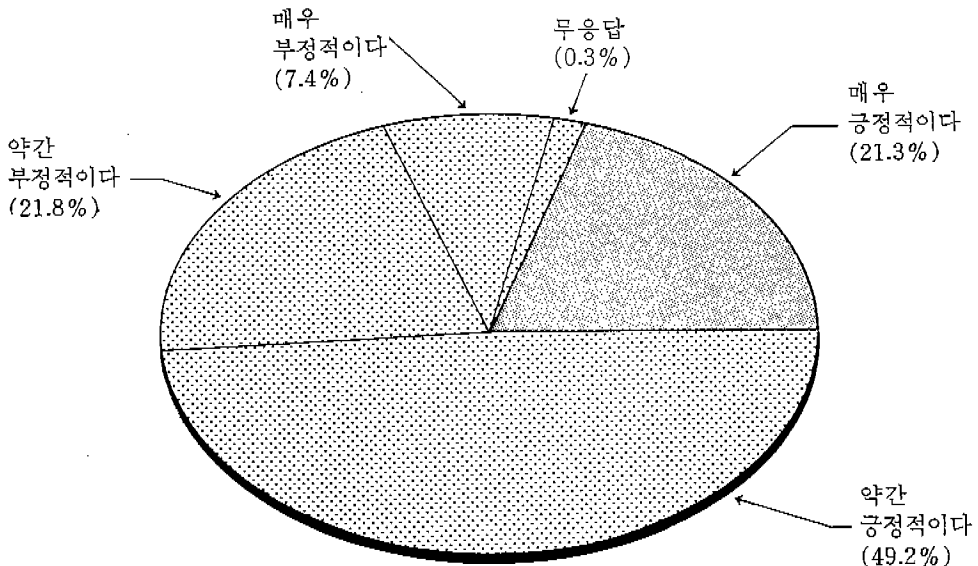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76.8%가 청소년도 통일에 기여할 능력이 ‘충분히’ 또는 ‘다소’ 있다고 봄으로써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능력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통일문제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의지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통일에 기여할 능력이 ‘충분히’ 또는 ‘다소’ 있다는 실업계 고등학생(73.4%), 중학생(74.5%), 인문계 고등학생(78.8%), 대학생(81.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인식은 호남지역 학생(83.6%)과 대학생(81.1%)이 가장 높고, 하층에 속하는 학생(62.7%)이 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 학생회담 추진에 대한 평가 최근 일부 대학생들이 직접 북한 청소년들과 만나 통일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은 ‘매우 긍정적이다’가 21.3%, ‘약간 긍정적이다’가 49.2%, ‘약간 부정적이다’가 21.8%, ‘매우 부정적이다’가 7.4%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2-25 참조).

〈그림 II-2-25〉 남북한 학생회담 추진에 대한 평가



전체 응답자의 70.5%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또는 ‘약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던 ‘남북한 학생회담 추진운동’을 많은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인 전환기와 더불어, 기존의식의 틀로부터 벗어난 진보적인 성향의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통일문제를 진단하는 의식속에서의 세대교체를 의미한다. 또한, 이는 청소년들이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인식하여 직접 통일문제 논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74.6%)이 남학생이(65.5%)보다 이 문제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수적인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여학생이 이 문제에 있어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이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중학생(75.4%)이, 부정적인 태도는 인문계 고등학생(38.2%)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거주지별로 보면, 긍정적인 태도는 호남지역 학생(85.1%)이, 부정적인 태도는 영남지역 학생(34.5%)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생활수준별로 보면, 긍정적인 태도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77.6%)이, 부정적인 태도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33.2%)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한 학생회담 추진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호남지역 학생(85.1%)이, 부정적인 태도는 인문계 고등학생(38.3%)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33.2%)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78.5%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통일의 주도세대로 보고 있고, 76.8%의 청소년들은 자신들도 통일에 기여할 능력이 있다고 보며, 또한 70.5%의 청소년들은 남북한 대학생들이 직접 만나 통일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일상적인 관심은 부족하나, 통일의 주역으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인정하며 통일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공헌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점차 희박해져가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북한관

청소년들의 북한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된 관련요소는 북한에 대한 관심도와 인지도,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4개 요소로 집약된다. 이를 세분하여 보면, 북한에 대한 관심에서는 북한 영화의 관람의사, 북한 방문의사, 북한방문 희망처, 북한에 대한 인지에서는 북한관련 지식 정도, 북한관련 지식의 획득원, 북한관련 지식의 신뢰도,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에서는 북한 사회에 대한 첫인상,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남북한 생활수준의 비교,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에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 주민에 대한 대면태도,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경기로 나누어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북한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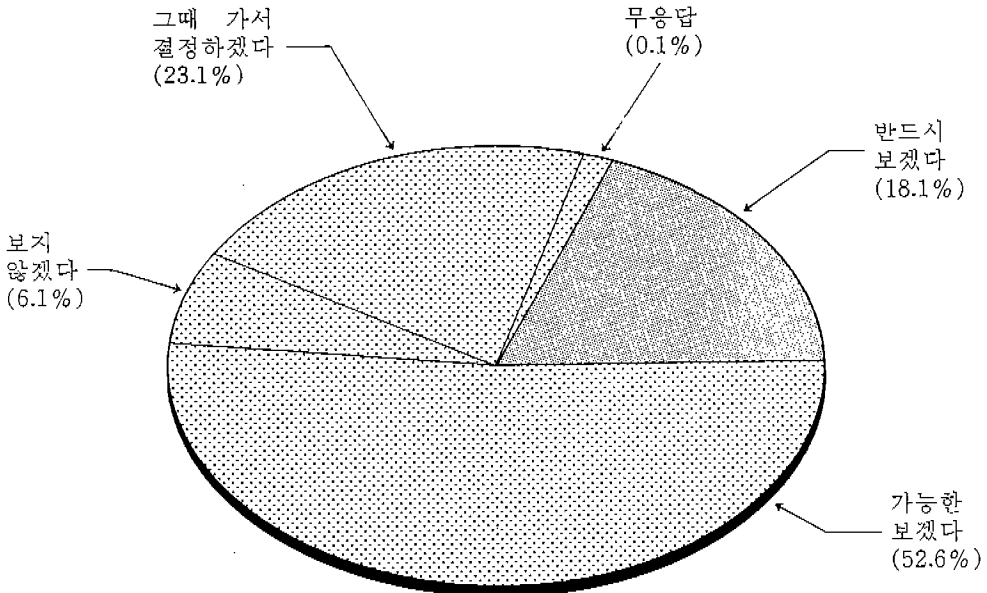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북한 영화가 상영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하는 남북한간의 상호왕래가 허용되면 북한을 방문하고 싶으십니까?”, “귀하가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경우 제일 가고 싶은 곳은 어느 곳입니까?” 라는 3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는 다음 <표 II-3-1>, <표 II-3-2>, <표 II-3-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북한 영화 관람의사 북한 영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는 전체적으로 ‘반드시 보겠다’가 18.1%, ‘가능한 보겠다’가 52.6%,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가 23.1%, ‘보지 않겠다’가 6.1%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3-1 참조).

전체 응답자의 70.7%가 북한 영화가 상영된다면 ‘반드시’ 또는 ‘가능한’ 보겠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6.1%만이 ‘보지 않겠다’는 의견을 나타냄으로써 북한영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는 무척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3.1%는 주변의 상황변화에 따라 관람여부를 전가시킴으로써 북한 영화에 대한 관심 자체를 외면하는 듯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림 II-3-1〉

북한 영화 관람의사



성별로 보면, 여학생(74.1%)이 남학생(66.5%)보다 ‘반드시’ 내지 ‘가능한’ 영화를 보겠다는 의견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북한 영화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가능한 보겠다’는 중학생(48.0%), 인문계 고등학생(50.7%), 실업계 고등학생(55.8%), 대학생(58.0%)의 순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북한 영화에 대한 관심이 다소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보겠다’는 대학생(14.9%), 인문계 고등학생(16.7%), 실업계 고등학생(19.8%), 중학생(20.2%)로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 영화 관람에 대한 강한 의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표면적으로 떠들썩하게 제기되고 있는 북한 영화의 상영을 둘러싼 대학가의 소용돌이는 소수의 급진주의적 성향을 가진 대학생의 제기로서 아직 대다수 대학생들의 관심과 지지기반을 갖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생활수준별로 보면, 북한 영화를 ‘보겠다’는 중상층에 속하는 학생(72.4%)이, ‘보지 않겠다’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12.2%)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상층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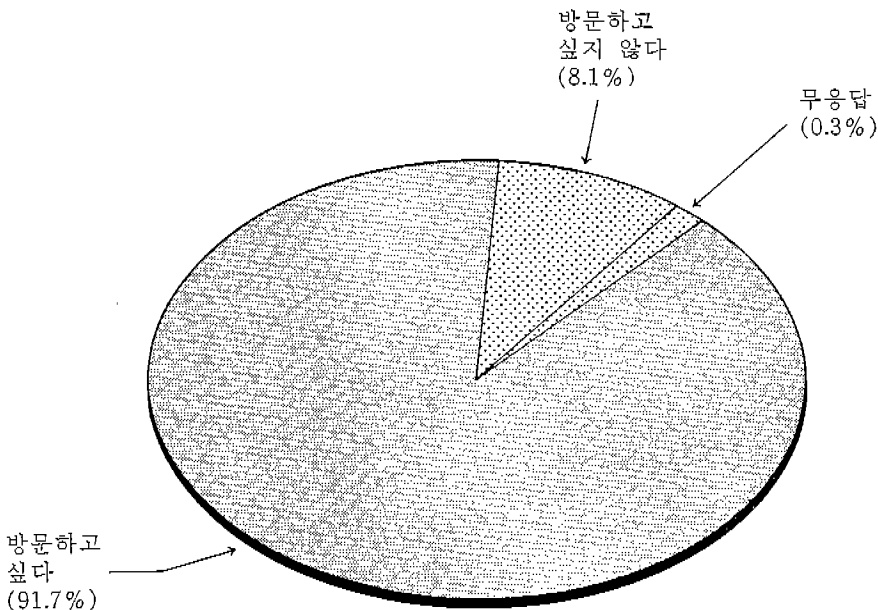
속하는 학생(32.7%)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33.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결과를 비교해 보면, ‘반드시 보겠다’는 강한 확신은 실험집단이 있는 학생(22.6%), 상층에 속하는 학생(22.4%), 강원도지역 학생(21.7%)이, ‘가능한 보겠다’는 대학생(58.0%)이, ‘보지 않겠다’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12.2%)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33.3%)과 상층에 속하는 학생(32.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 방문의사 북한 방문에 관한 청소년들의 관심은 전체적으로 ‘방문하고 싶다’가 91.7%로 대부분을 차지하지 하고 있는 반면에, ‘방문하고 싶지 않다’는 8.1%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3-2 참조). 이는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희망을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기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3-2〉

북한 방문의사



학교급별로는, ‘북한에 가고 싶다’는 의견은 중학생(89.5%), 실업계 고등학생(90.9%), 인문계 고등학생(91.6%), 대학생(95.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별로는, ‘북한방문을 하고 싶다’는 희망은 호남지역 학생(95.3%)이 가장 높고, 경기도지역 학생(89.2%)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생활수준별로는 중간층에 속하는 학생(92.2%)이 가장 높고, 하층에 속하는 학생(80.4%)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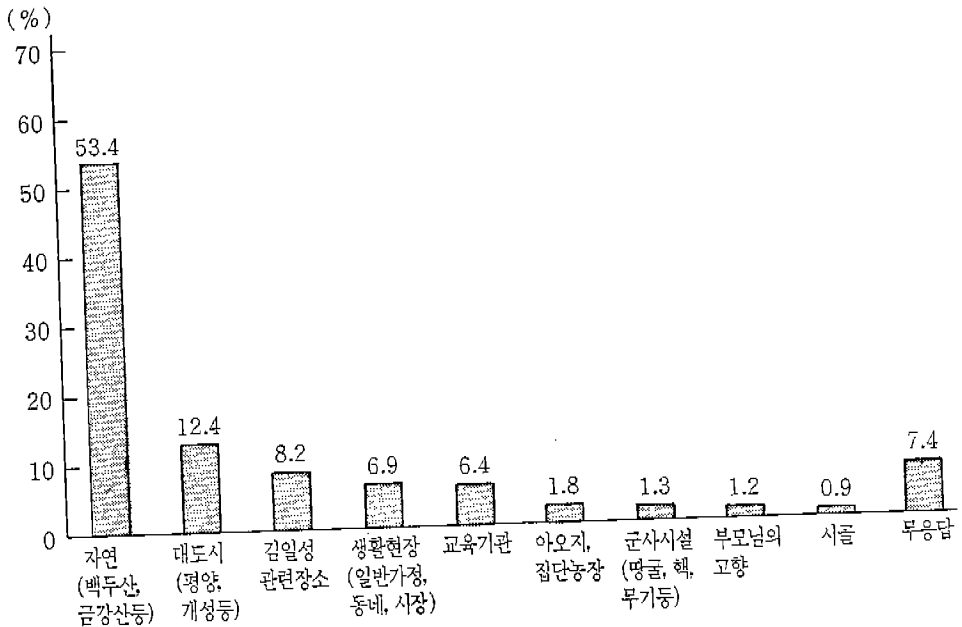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 결과를 비교해 보면,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은 대학생(95.6%)과 호남지역 학생(95.3%)이 가장 높고, 하층에 속하는 학생(80.4%)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 방문 희망처 제일 가고 싶어하는 방문처에 대한 청소년들의 선호도는 전체적으로 백두산(33.3%)과 금강산(18.3%) 등 북한의 명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자연이 53.4%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다음으로 평양(11.8%)을 비롯한 여러 도시가 12.4%, 김일성의 집(7.5%), 별장, 생가 등 김일성에 관련된 장소가 8.2%, 일반 가정집(5.3%)을 비롯하여 동네, 시장 등 일반 주민들이 살아가는 장소가 6.9%, 중·고·대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이 6.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소수의 의견으로 아오지 탄광, 집단농장 등 강제노동과 관련된 장소가 1.8%, 땅굴, 핵시설이나 군사기지 등 군사관련 시설이 1.3%,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의 고향이 1.2%, 시골과 같이 변두리지역이 0.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Ⅱ-3-3 참조).

일반적으로 북한의 상징으로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장소들, 즉 한민족의 근원지로 민족의 정기가 서려 있다는 ‘백두산’, 세계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고 있는 ‘금강산’, 그리고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 청소년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장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수려한 자연경관에 대한 관심을 제외하고, ‘군사시설’이나 ‘강제노동’ 등 북한의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 장소(3.1%)보다는 평범한 일반 주민들이 교육받고 생활하는 ‘삶의 터전(14.2%)’을 더 많이 파악하고자하는 경향이 엿보인다. 또한, 북한의 지도자로 우상화되어 각종 대중매체와 교육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김일성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도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대

〈그림 II-3-3〉

북한 방문 희망처



체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듣고 배워 온 북한의 실상을 직접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주로 강조해 오고 있는 각종의 북한관련 교육내용에 대해 ‘설마 그렇게 까지는...’ 하는 어느 정도의 의혹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61.8%, 14.2%)이 여학생(46.6%, 11.0%)보다 자연과 도시를 방문처로 더 선호하고 있으며, 여학생(20.1%, 9.6%)이 남학생(7.3%, 6.4%)보다 일반 주민의 교육과 생활현장이나 김일성이 관련된 장소를 더 선호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백두산’, ‘금강산’, ‘평양’ 등 북한의 상징장소는 실업계 고등학생(59.9%), 중학생(62.2%), 인문계 고등학생(64.1%), 대학생(78.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 주민의 교육과 생활현장’은 대학생(7.2%), 인문계 고등학생(14.6%), 중학생(16.7%), 실업계 고등학생(17.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일반 주민의 교육과 생활현장보다는 북한의 상징장소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북한의 방문장소로서 ‘백두산’ 및 ‘금강산’ 등 자연은 호남지역 학생(62.6%)이, ‘평양’을 비롯한 도시는 강원도지역 학생(15.3%)이, 일반 가정 및 학교와 같은 생활현장과 김일성과 관련된 장소는 제주지역 학생(16.2%, 9.8%)이, 부모님의 고향은 강원도지역 학생(3.8%)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백두산’ 및 ‘금강산’, ‘평양’ 등 북한의 상징장소는 중간층에 속하는 학생(66.6%)과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66.0%)이, 김일성과 관련된 장소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21.6%)이, 생활현장과 부모님의 고향은 상층에 속하는 학생(20.4%, 4.1%)이 그리고 군사관련 시설 및 ‘아오지 탄광’ 등은 하층에 속하는 학생(5.5%)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향민 여부별로는 실향민이 있는 학생(11.5%)이 없는 학생보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부모님의 고향(0.4%)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결과를 비교해 보면, ‘백두산’ 및 ‘금강산’을 비롯한 자연환경은 호남지역 학생(62.6%), 남학생(61.8%), 대학생(59.8%)이, ‘평양’을 비롯한 여러 도시는 대학생(19.0%)이, 김일성 관련 장소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21.6%)과 상층에 속하는 학생(12.2%)이, 일반 주민의 생활현장은 제주지역 학생(10.5%)이, 교육기관은 상층에 속하는 학생(12.2%)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부모님의 고향은 실향민이 있는 학생(11.5%)이, 군사관련 시설은 군지역 학생(2.9%)이, ‘아오지 탄광’ 등 강제노동에 관련된 장소는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4.2%)과 제주지역 학생(4.1%)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70.7%가 북한영화가 상영된다면 ‘반드시’ 또는 ‘가능한’ 보겠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91.7%가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해 높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높은 관심도는 통일문제에 대해 극히 낮은 관심도(〈표 II-2-1〉에서 31.1%만이 통일문제에 ‘매우’ 또는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를 고려할 때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통일이라는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라도, 즉 현 분단체제가 지속되더라도 우리 민족의 또 다

른 사회를 알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하에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백두산(33.3%)’, ‘금강산(18.3%)’, ‘평양(11.8%)’ 등 북한의 상징장소나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현장(14.2%)을 제일 방문하고 싶은 장소로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북한에 대한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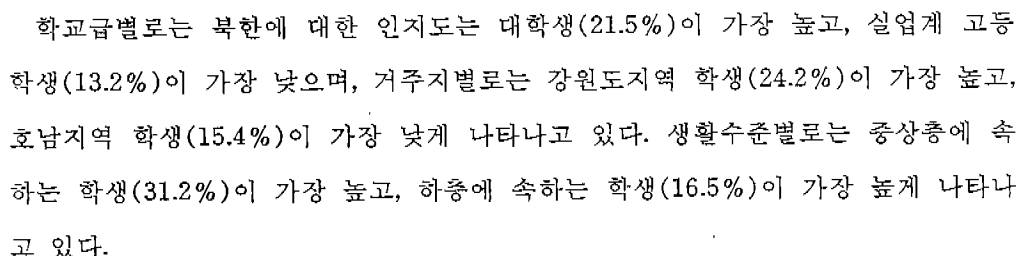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북한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주로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귀하는 자신이 접하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나 자료가 실제의 북한과 어느 정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3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는 다음 〈표 II-3-4〉, 〈표 II-3-5〉, 〈표 II-3-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북한에 관한 지식정도 북한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식정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많이 알고 있다’가 2.5%, ‘약간 많이 알고 있다’가 14.7%, ‘보통이다’가 63.5%, ‘약간 적게 알고 있다’가 12.0%, ‘매우 적게 알고 있다’가 7.2%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3-4 참조).

전체 응답자의 17.2%가 북한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63.5%가 ‘보통이다’, 19.2%가 ‘적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에 대해 확신이 없는 애매한 태도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북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청소년이 무척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한 높은 관심도에 비해 북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북한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20.9%)이 여학생(14.3%)보다 북한에 대해 ‘매우’ 또는 ‘약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북한에 대해 더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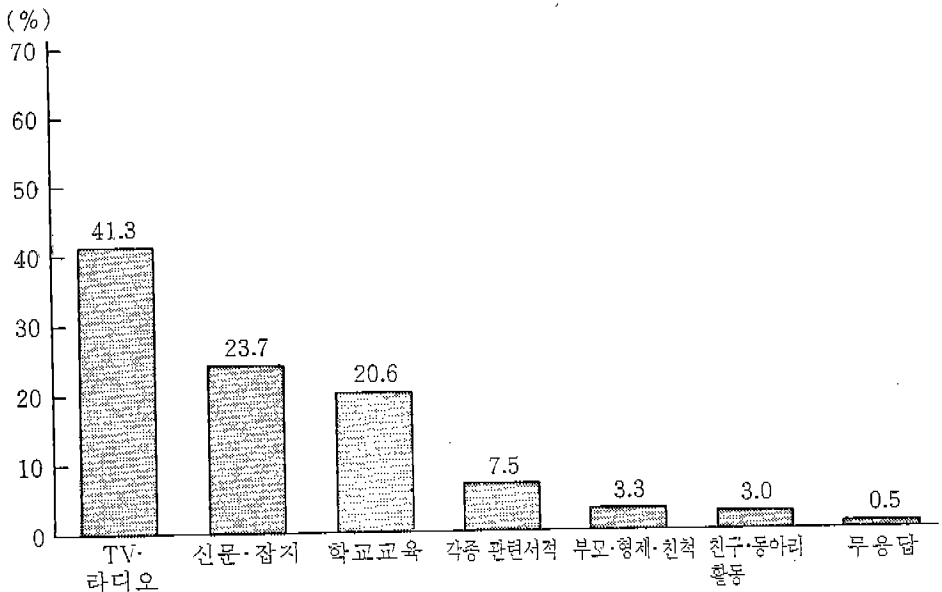
〈그림 Ⅱ-3-4〉 북한에 관한 지식정도



북하과려 지식의 획득원 북하에 대한 지식획득의 원천은 전체적으로 'TV·라

디오'가 41.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문·잡지'가 23.7%, '학교교육'이 20.6%, '각종 관련서적'이 7.5%, '부모·형제 및 친척'이 3.3%, '친구·동아리 활동'이 3.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3-5 참조).

〈그림 II-3-5〉 북한관련 지식의 획득원 (중복응답)



대부분의 청소년(65.0%)들은 북한에 대한 지식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중매체의 의존도가 다른 원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청소년들이 신문이나 방송 등 대중매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중매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접촉은 대중성을 띄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청소년들의 통일외식 형성에 있어 대중매체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지식획득 원천으로 국민학교부터 실시되고 있는 ‘학교교육(20.6%)’보다 ‘대중매체(65.0%)’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학교교육’이 많은 분

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물론 ‘학교교육’이 대중매체에 비해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는 교육내용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일방적인 홍보자료에 지나지 않다는 일종의 불신감에서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에 가장 비판적인 세력으로 볼 수 있는 대학생들의 9.0%만이 북한에 대한 지식을 ‘학교교육’을 통해 얻고 있다는 응답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비교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각종 관련서적’에 의해 지식을 얻고 있는 청소년(7.5%)들이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북한관 형성에 있어서 또 하나의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북한사회의 폐쇄성에 의해 북한에 관한 자료들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한 국내에 입수된 자료들조차 안보적 차원에서 연구자료에의 접근에 많은 제약이 있어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공식적이고 대중적인 자료와 정보만을 접함으로써 북한관에 있어서 뚜렷한 주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부모·형제 및 친척’ 등 가정에서 북한에 관련된 지식을 얻는다는 학생이 극소수(3.3%)에 지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에서는 북한에 대한 논의나 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대화부재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무관심을 암시하는 것으로 올바른 북한관, 나아가 통일관의 형성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될 수가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도는 실업계 고등학생(64.0%), 중학생(64.1%), 인문계 고등학생(64.6%), 대학생(67.6%)의 순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대학생(9.0%), 중학생(21.4%), 인문계 고등학생(24.9%), 실업계 고등학생(26.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형제·친척’ 등 가정에 대한 의존도는 중학생(5.4%),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2.8%), 대학생(1.3%)로 나타남으로써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 대학생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도는 다소 높으나, ‘학교교육’과 ‘가정’에 대한 의존도는 무척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은 ‘각종 관련서적’(4.6%~6.9%에 비해 13.4%)과 ‘친구와 동아리 활동’(1.4%~1.7%에 비해 8.1%)에 대한 의존도가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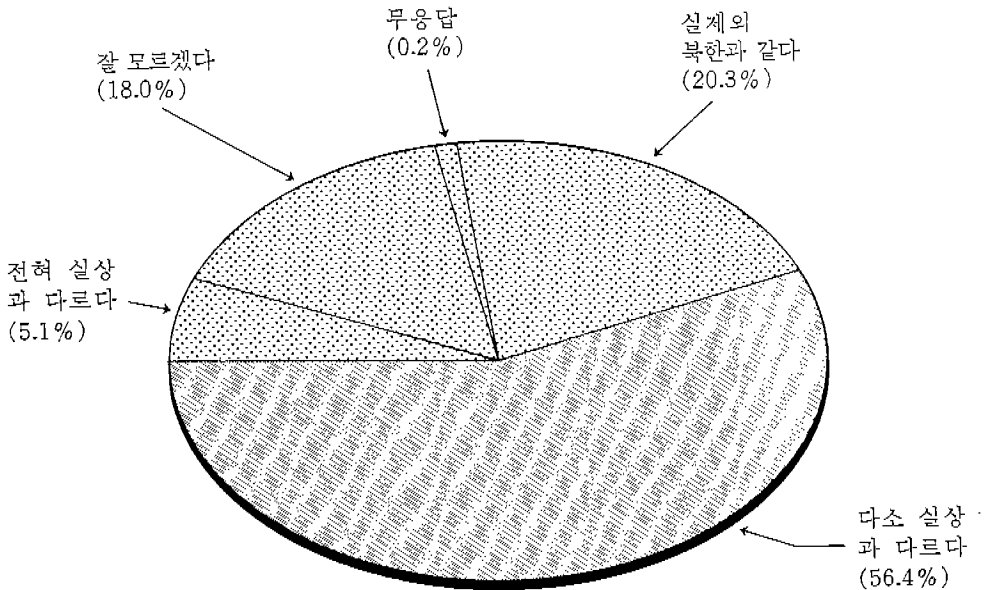
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물론 대학생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북한지식에 대한 접촉범위가 다르고 광범위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학생은 이제까지 접해왔던 통일·안보 성향의 공식적이고 일률적인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신문 또는 잡지’나 ‘각종 관련서적’, 또는 ‘친구나 동아리 활동’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자신이 직접 얻고자 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도는 제주지역 학생(69.2%)과 대학생(67.6%)이, ‘학교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실업계 고등학생(26.7%)이, ‘각종 관련서적’에 대한 의존도는 대학생(13.4%)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11.5%)이, ‘부모·형제 및 친척’에 대한 의존도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7.3%)이, ‘친구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의존도는 대학생(8.1%)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관련 지식의 신뢰도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는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적으로 ‘실제의 북한과 같다’가 20.3%, ‘다소 실상과 다르다’가 56.4%, ‘전혀 실상과 다르다’가 5.1%, ‘잘 모르겠다’가 18.0%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3-6 참조).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61.5%)들이 자신들이 획득하고 있는 자료나 정보가 실제 북한의 현실과 ‘전혀’ 또는 ‘다소’ 다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낮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청소년들은 자신이 접하고 있는 북한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 내용 그 자체를 상당히 불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적으로 믿지 않는 청소년(5.1%)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통일관 및 북한관을 정립시키기 위한 통일교육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등장할 것이다.

또한, 자신이 접하고 있는 자료나 정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청소년(18.0%)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 역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자신이 접하고 있는 자료나 정보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거나, 실제로 북한의 실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으므로 북한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접하는 북



한관련 자료와 정보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남북한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왕래와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대중매체를 통해 새롭게 전해지는 많은 내용들이 그동안 자신이 접해 온 내용과 차이를 느끼게 되었다는 데 기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관이 뚜렷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북한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북한의 실상과 다소 다르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중학생(54.6%), 실업계 고등학생(60.0%), 인문계 고등학생(64.4%), 대학생(69.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학력이 높아질수록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를 신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는 중학생(24.3%), 실업계 고등학생(15.4%), 인문계 고등학생(15.2%), 대학생(14.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력이 높아질수록 내용에 대한 뚜렷한 판단기준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결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실업계 고등학생(24.3%)과 영남지역 학생(23.3%)이 가장 높고, 대학생(69.7%)과 상층에 속하는 학생(67.3%)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잘 모르겠다’는 판단 불능은 하층에 속하는 학생(33.3%)이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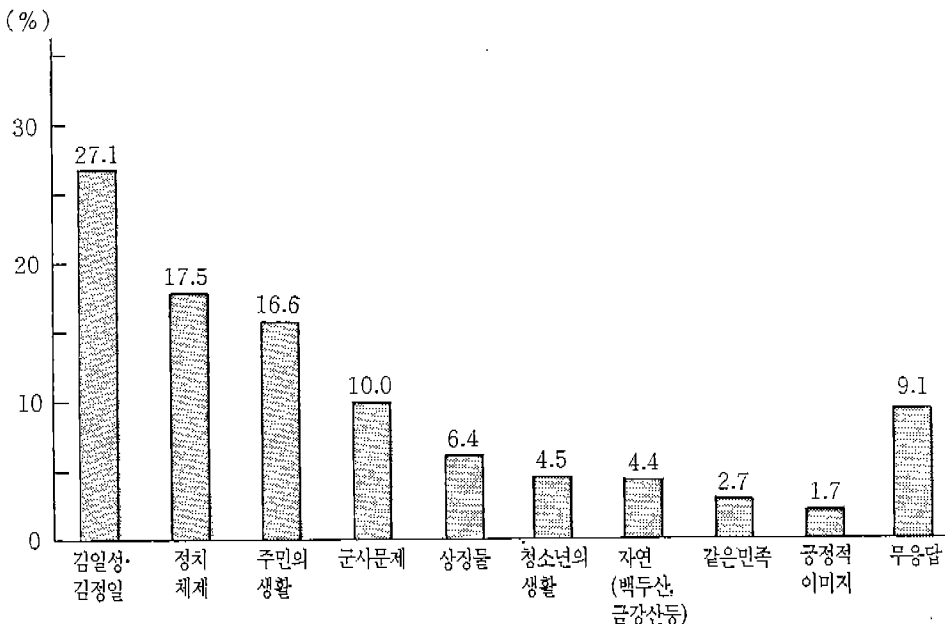
위의 분석을 요약해 보면, 17.2%의 청소년만이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고, 65.0%가 북한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대중매체를 통하여 주로 얻고 있으며, 61.5%가 자신이 획득한 자료와 정보가 북한 실상과 다소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관련 교육을 국민학교때부터 받아 왔고 대중매체를 비롯한 각종 통로를 통하여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가 낮고 북한관련 지식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은 북한에 대한 교육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명확한 판단력 없이는 올바른 통일의식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3)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북한 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북한에 대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하가 생각하기에 북한 사회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귀하는 남북한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3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는 다음 <표 II-3-7>, <표 II-3-8>, <표 II-3-9>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북한에 대한 첫 인상 북한에 대해 청소년들이 제일 먼저 연상하는 것으로는 ‘김일성(24.5%) 및 김정일’에 관련된 사항이 2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13.1%)’, ‘독재주의(4.1%)’ 등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사항이 17.5%, ‘북한주민의 생활모습’이 16.6%, 6·25, 군사훈련, 핵, 무기 등 군사적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10.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3-7 참조).

<그림 II-3-7> 북한에 대한 첫인상



그 밖에 ‘특이한 억양과 말투(1.7%)’, ‘붉은 색(1.5%)’, ‘붉은 인공기(1.2%)’, ‘붉은 꽃’ 등 북한의 상징물에 관련된 사항이 6.4%, ‘머리에 붉은 꽃을 단 어린이(1.3%)’, ‘군사훈련을 받는 학생(0.9%)’, ‘김일성에 충성을 하는 청소년’ 등 청소년의 생활상과 관련된 사항이 4.5%, ‘백두산(3.2%)’과 ‘금강산(1.0%)’ 등 자연에 관련된 사항이 4.4%, ‘한 민족, 우리 국토, 통일’ 등 한민족 공동체의식에 관한 사항이 2.7%, 그리고 ‘아름답고 깨끗한 강산’, ‘풍부한 지하자원’, ‘단결력’, ‘규칙과 질서’, ‘주체사상이 강한 민족자주국가’, ‘순수한 우리말’ 등 북한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관한 사항이 1.7%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을 ‘민족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거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청소년(2.7%, 1.7%)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은 북한을 감정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김일성의 우상화, 세습체제, 일당독재체제 등 김일성과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과 북한의 군사관련 문제에 따른 적대감, 호전성, 잔인성, 공포의식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주로 공산당의 통제와 감시속에서 부자유스럽고 억압된 생활 또는 노동과 배급속에서 항상 헐벗고 굶주리는 생활, 비인간적이고 폐쇄적인 생활 등으로 간주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의 생활을 로봇트와 같이 감정이 없는 기계적인 생활, 군사훈련과 세뇌교육속에서 시달리는 생활, 사상교육과 단체생활로 일관된 탁아소와 학교생활, 김일성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만 요구하는 생활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민족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이질화현상과 민족의 분열 및 상극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에 커다란 위기를 초래하고 나아가 통일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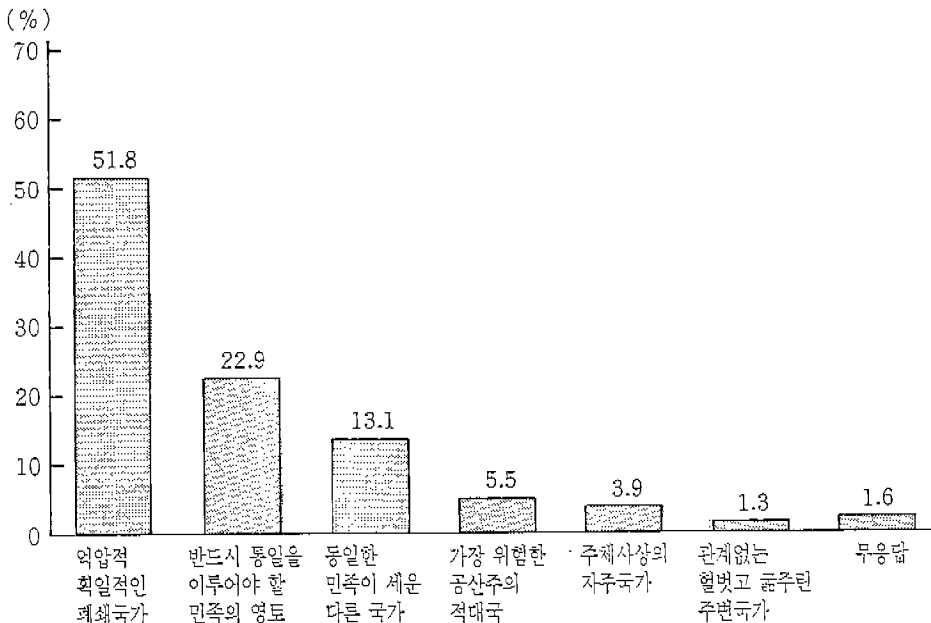
학교급별로는 대학생(15.8%)이 중·고등학생(5.2%~8.0%)에 비하여 북한을 민족의 일부로 봄으로써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대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감정적으로 보다는 가능한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이해하려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민족 공동체의식’은 대학생

(5.9%)과 충청도지역 학생(4.9%)이,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대학생(2.4%)과 호남지역 학생(2.2%)이, ‘김일성 체제’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43.1%)이, 북한의 정치체제는 중학생(24.3%)이, 북한 주민의 생활상과 북한의 군사문제는 강원도지역 학생(22.3%, 14.0%)이, 북한의 상징물은 하층에 속하는 학생(11.8%)과 상층에 속하는 학생(10.2%)이, 청소년들의 생활상은 강원도지역 학생(6.4%)과 여학생(6.0%)이 각각 북한에 대한 첫인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북한 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자유가 없는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폐쇄국가’가 51.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할 우리 민족의 영토’가 22.9%, ‘동일한 민족이 세운 다른 국가’가 13.1%,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공산주의 적대국’이 5.5%, ‘주체사상의 자주국가’가 3.9%,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험벗고 굶주린 주변국가’가 1.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3-8 참조).

〈그림 II-3-8〉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전체 응답자의 36.0%만이 ‘한 민족’이라는 단일민족 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을 우리 민족의 일부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은 22.9%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남북한이 두개의 국가라는 현실적인 면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북한 사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청소년들은 3.9%에 지나지 않고, 과반수가 넘는 청소년(58.6%)들이 북한 사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산당의 통제와 감시’, ‘강제노동과 경제적 빈곤’, ‘부자유와 비인간성’ 등 북한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여전히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북한관련 교육내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41.6%)이 여학생(31.5%)보다 단일민족 의식을 더 높게 나타내고, 여학생(63.9%)이 남학생(51.8%)보다 북한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더 높게 나타내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할 우리 민족의 영토’는 실업계 고등학생(17.0%), 중학생(19.1%), 인문계 고등학생(25.2%), 대학생(31.7%)의 순으로, ‘동일한 민족이 세운 다른 국가’는 중학생(9.9%), 실업계 고등학생(10.4%), 인문계 고등학생(13.6%), 대학생(19.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력이 높아질수록 민족의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가 없는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폐쇄국가’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공산주의 적대국’은 실업계 고등학생(60.9%, 7.2%)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험벗고 굶주린 주변국가’는 중학생(2.1%)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주체사상의 자주국가’는 대학생(8.3%)이 가장 높고, 실업계 고등학생(1.6%)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이 북한을 민족의 일부로서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할 우리 민족의 영토’는 호남지역 학생(31.8%)이 가장 높고, 제주지역 학생(17.9%)이 가장 낮으며, ‘동일한 민족이 세운 다른 국가’는 호남지역 학생(16.8%)이 가장 높고, 충청도지역 학생(10.3%)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자유가 없는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폐쇄국가’는 영남지역

학생(54.0%)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공산주의 적대국’은 강원도지역 학생(12.1%)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험벗고 굶주린 주변국가’는 제주지역 학생(17.1%)이, 그리고 ‘주체사상의 자주국가’는 호남지역 학생(5.4%)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호남지역 학생이 북한을 민족의 일부로서 보다 긍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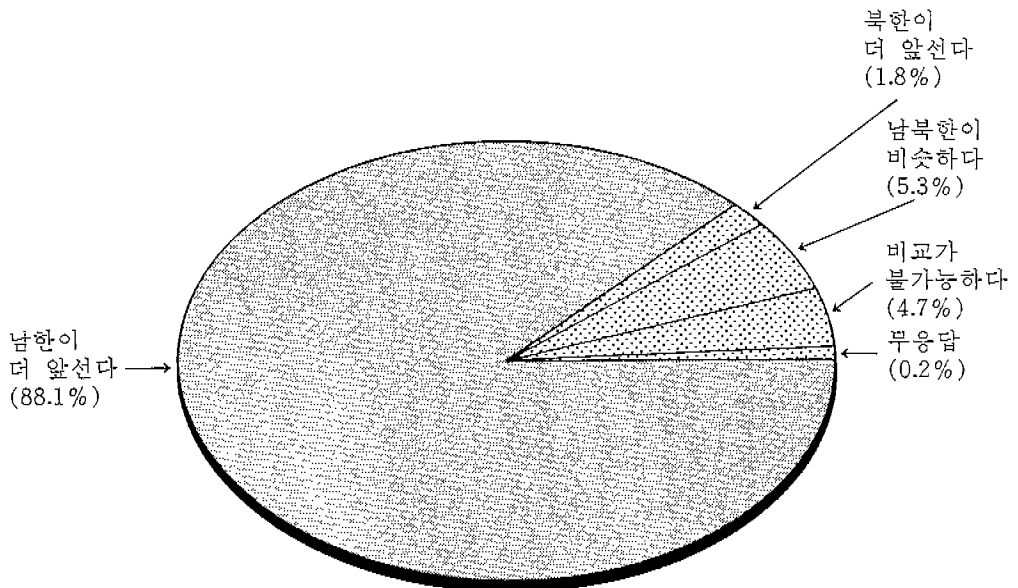
생활수준별로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할 우리 민족의 영토’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27.5%)이 가장 높고, 상층에 속하는 학생(14.3%)이 가장 낮으며, ‘동일한 민족이 세운 다른 국가’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24.5%)이 가장 높고, 하층에 속하는 학생(7.8%)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자유가 없는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폐쇄국가’는 중간층에 속하는 학생(53.1%)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공산주의 적대국’과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험벗고 굶주린 주변국가’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10.2%, 8.2%)이, 그리고 ‘주체사상의 자주국가’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11.8%)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학생이 북한을 민족의 일부로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상층에 속하는 학생은 북한을 민족의 일부로서 뿐만 아니라 적대국 또는 관계없는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남으로써 복잡한 사고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일보다는 현 분단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려는 경향을 아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결과를 비교해 보면,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할 우리 민족의 영토’는 호남지역 학생(31.8%)과 대학생(31.7%)이, ‘동일한 민족이 세운 다른 국가’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24.5%)이, ‘자유가 없는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폐쇄국가’는 실업계 고등학생(60.9%)과 중학생(57.7%)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공산주의 적대국’은 강원도지역 학생(12.1%)과 상층에 속하는 학생(10.2%)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험벗고 굶주린 주변국가’는 제주지역 학생(17.1%)이, 그리고 ‘주체사상의 자주국가’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11.8%)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 생활수준 비교 남북한 사회의 생활수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남한이 더 앞선다’가 88.1%로 가장 많고, ‘북한이 더 앞선다’가 1.8%, ‘남북한이 비슷하다’가 5.3%, ‘비교가 불가능하다’가 4.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3-9 참조).

〈그림 II-3-9〉

남북한 생활수준 비교



절대 다수의 청소년(88.1%)들이 남한의 생활수준이 북한보다 월등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더 앞선다(1.8%)’, ‘남북한이 비슷하다(5.3%)’, ‘비교가 불가능하다(4.7%)’고 오관 내지 판단력을 잃고 있는 청소년(11.8%)들이 비록 적은 수이지만 어느 정도 있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교육과 소문 등이 너무나도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반발적인 경향을 의미한다. 즉, 자료의 폐쇄성이나 부족으로 북한의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없

으나, 북한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북한에 대한 호의 또는 긍정적인 평가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보다 더 공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서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가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학교급별로는, ‘남한이 더 앞선다’는 인문계 고등학생(92.2%)이, ‘북한이 더 앞선다’와 ‘남북한이 비슷하다’는 중학생(2.9%, 8.0%)이,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대학생(7.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남한이 더 앞선다’는 중간층에 속하는 학생(89.1%)이, ‘북한이 더 앞선다’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10.2%)이, ‘남북한이 비슷하다’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11.8%)과 중간층에 속하는 학생(10.9%)이,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14.3%)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11.8%)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결과를 비교해 보면, ‘남한이 더 앞선다’는 남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제주지역 학생(93.5%)이, ‘북한이 더 앞선다’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유보적인 평가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10.2%, 14.3%)이, ‘남북한이 비슷하다’는 남북한 모두에 대한 대등한 평가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11.8%)과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10.9%)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이 중하층이나 하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남북한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높게 내리는 것은 자신들에게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자신들의 현재의 생활환경에 대한 비판내지 반발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유보적인 평가를 높게 하고 있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의 경우는 그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즉, 항상 궁핍을 모르고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들의 평가는 어떤 확고한 기준에 의한 판단이라기 보다는 잘살고 못산다는 생활기준 그 자체에 대한 무관심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을 통일해야 할 우리 민족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

는 청소년(북한의 첫인상에서는 2.7%,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에서는 22.9%)들은 소수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현재의 분단체제를 인정하려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청소년(북한의 첫인상에서는 1.7%,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에서는 3.9%)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은 북한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만 평가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절대 다수의 청소년(88.1%)들이 북한에 대한 남한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따라 정부의 대북한 인식이 현저히 달라지고 이에 따라 대북한 정책도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때에, 청소년들이 우월의식 아래에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 북한 및 통일관련 교육의 문제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북한의 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없는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청소년들의 시각은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불리한 요인으로서, 나아가 통일달성에 또 하나의 커다란 걸림돌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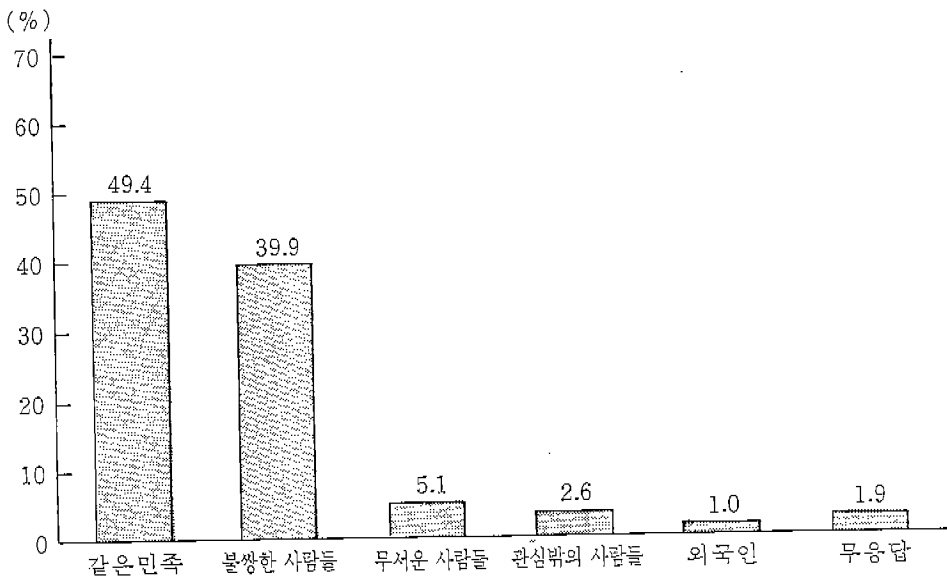
4)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청소년들의 민족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들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귀하는 지금 당장 외국에서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귀하는 북한과 다른 나라가 경기를 하고 있다면 어느 팀을 응원하시겠습니까?” 라는 4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는 다음 <표 II-3-10>, <표 II-3-11>, <표 II-3-12>, <표 II-3-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같은 민족’이 49.4%, ‘불쌍한 사람들’이 39.9%, ‘무서운 사람들’이 5.1%, ‘관심밖의 사람들’이 2.6%,

‘외국인’이 1.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Ⅱ-3-10 참조).

〈그림 Ⅱ-3-10〉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약 과반수 정도의 청소년(49.4%)들이 북한 주민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는 단일 민족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사회체제에 대한 높은 부정적인 인식(58.6%)과 낮은 일체감(22.9%)에 비해(〈표 Ⅱ-3-8〉의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참조), 청소년들은 북한 주민에게 대해서는 높은 단일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북한의 사회체제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북한 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단일민족 의식은 반드시 민족적 당위성에 입각한 통일에의 의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표Ⅱ-2-4〉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소년(전체의 39.4%)들의 33.5%(전체의 약 12%~13%)만이 ‘같은 민족’이므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물론, 이는 반 세기에 걸친 민족분단으로 인한 이질화의 결과로서 민족일체감, 공동운명체라는 민족감정이 점차 소멸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과 강한 민족공동체 의식이 통일을 추구하는 가장 강한 원심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또한, 많은 청소년(39.9%)들이 북한 주민을 ‘불쌍한 사람들’로 간주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 대한 동정심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동정심의 발로는 국민학교때부터 실시되어 왔던 통일교육이 강제노동, 감시와 통제, 부자유, 가난, 식량배급제 등 북한 주민 생활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므로써 많은 청소년들은 북한 주민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 때문이기도 한다. 이러한 높은 동정심으로 인해 극소수(6.3%)이지만 청소년들은 불쌍한 북한 주민을 공산당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일에의 의지를 키우기도 한다(<표 II-2-4>의 통일의 필요성 참조). 그러나, 이는 곧 민족적 당위성에 입각한 통일의를 배양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통일안보의식에 입각하여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서 보다는 ‘원수’, ‘침략자’ 등 적으로 간주하여 적대적인 이미지를 주로 심어오던 ‘학교교육’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을 무섭고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경계심을 가지는 청소년들이 극소수(5.1%)에 불과한 것은 특이한 사실이다. 이는 최근 남북한간에 음악, 체육, 경제 등 각종 교류와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많은 북한 주민을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의 이미지는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실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없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경계성을 육성하는 안보의식 중심의 교육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55.2%)은 여학생(44.8%)보다 북한 주민을 ‘같은 민족’으로 더 많이 생각하고, 여학생(42.9%, 6.4%)은 남학생(36.2%, 3.5%)보다 ‘불쌍한 사람’ 그리고 ‘무서운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같은 민족’은 실업계 고등학생(40.7%), 중학생(42.0%), 인문계 고등학생(45.2%), 대학생(72.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력이 높아질수록 ‘같은 민족’이라는 단일민족 의식이 다소 높아지고 있으며, 대학생은 중·고등 학생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학생의 ‘불쌍한 사람(43.0%~46.8%에 비해 21.1%)’이나 ‘무서운 사람(5.5%~6.6%에 비해 2.3%)’이라는 인식은 반대로 무척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간의 커다란 의식의 차를 엿볼 수 있다.

거주지별로는 ‘같은 민족’이라는 단일민족 의식은 호남지역 학생(61.3%)이, ‘불쌍한 사람’은 영남지역 학생(44.8%)이, ‘무서운 사람들’은 강원도지역 학생(8.9%)이, ‘관심밖의 사람’은 제주도지역 학생(4.9%)이, ‘외국인’은 충청도지역 학생(1.5%)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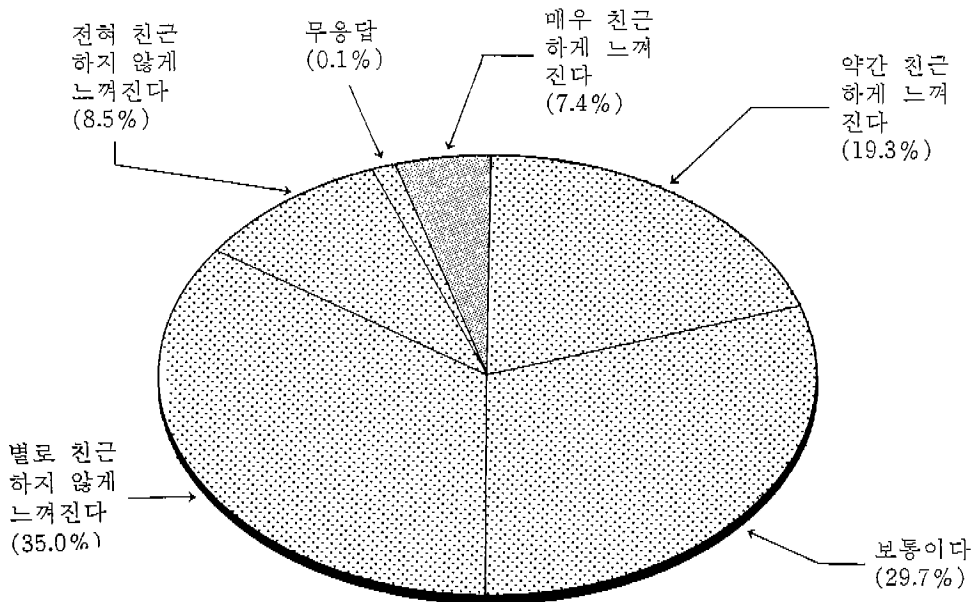
생활수준별로는 ‘같은 민족’이라는 단일민족 의식은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55.0%)이 가장 높고, 상층에 속하는 학생(42.9%)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불쌍한 사람’은 중상층에 속하는 학생(41.2%)이, ‘무서운 사람’은 하층에 속하는 학생(11.8%)과 상층에 속하는 학생(10.2%)이, ‘외국인’은 상층에 속하는 학생(6.1%)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을 비교해 보면, ‘같은 민족’이라는 단일민족 의식은 대학생(72.8%)과 호남지역 학생(61.3%)이 가장 높고, 실업계 고등학생(40.7%), 상층에 속하는 학생(42.9%), 군지역 학생(43.7%)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불쌍한 사람’은 실업계 고등학생(45.9%)과 영남지역 학생(44.8%)이, ‘무서운 사람’은 하층에 속하는 학생(11.8%)과 상층에 속하는 학생(10.2%)이, ‘관심밖의 사람’은 하층에 속하는 학생(5.9%)이, ‘외국인’은 상층에 속하는 학생(6.1%)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 주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친근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가 7.4%, ‘약간 친근하게 느껴진다’가 19.3%, ‘보통이다’가 29.7%, ‘별로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가 35.0%, ‘전혀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가 9.3%이다.

다'가 8.5%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Ⅱ-3-11 참조).

〈그림 Ⅱ-3-11〉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



전체 응답자의 26.7%만이 북한 주민에게 ‘매우’ 또는 ‘약간’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청소년들은 대체로 북한 주민에 대해 감정적인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청소년들이 민족적 동질성과 일체감을 체험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관념적인 차원에서만 민족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성별로는 남학생(29.0%)이 여학생(24.8%)보다 높게 나타나고, 학교급별로는 실업계 고등학생(23.9%), 중학생이(24.6%), 인문계 고등학생(24.9%), 대학생(34.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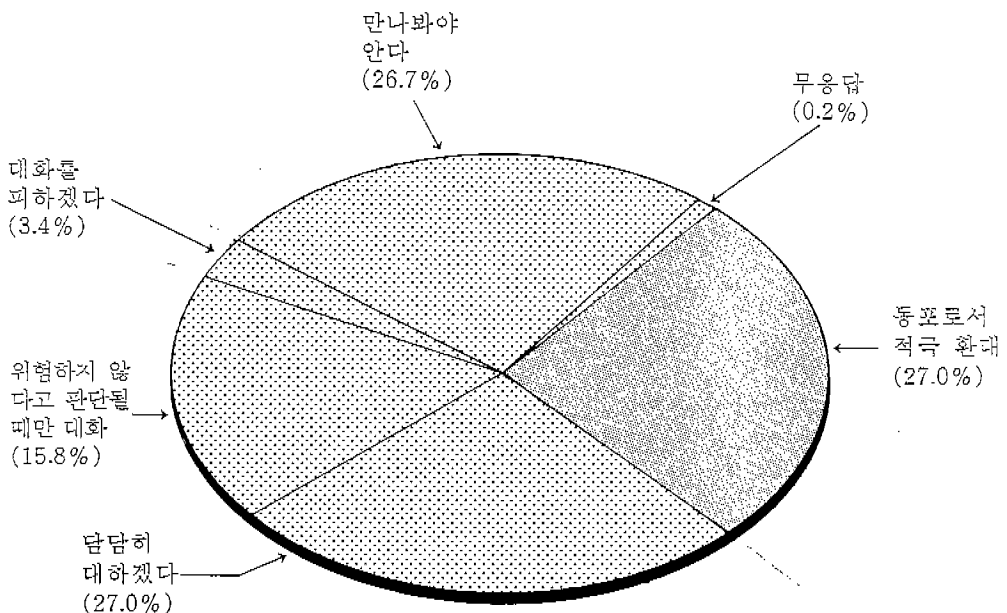
거주지별로는 호남지역 학생(32.6%)이 가장 높고, 제주지역 학생(23.6%)과 영남지역 학생(24.5%)이 가장 낮게 나타나며, 생활수준별로는 중상층에 속하는 학

생(32.6%)이 가장 높고, 하층에 속하는 학생(15.6%)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향민 여부별로는, 실향민이 있는 학생(35.6%)이 없는 학생(26.1%)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결과를 비교해 보면,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실향민이 있는 학생(35.6%)과 대학생(34.2%)이 가장 높고, 하층에 속하는 학생(15.6%)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한 대면태도 외국에서 북한 주민을 만날 경우 북한 주민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는 전체적으로 '동포로서 적극 환대하겠다'가 27.0%, '담담히 대하겠다'가 27.0%, '만나 봐야 안다'가 26.7%,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만 만나서 대화하겠다'가 15.8%, '대화를 피하겠다'가 3.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Ⅱ-3-12 참조).

〈그림 Ⅱ-3-12〉 북한 주민에 대한 대면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대면태도는 두드러지게 집중된 어떤 의견이 없이 다양한 의견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북한 주민에 대해 심리적인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포로서 적극 환대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와 ‘담담히 대하겠다’는 무감정의 중립적인 태도가 같은 비율(27.0%)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이상(같은 민족으로서의 동포의식)과 냉정한 현실(분단에 따른 이질화)의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만나봐야 알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북한 주민을 만나는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만 만나서 대화하겠다’는 북한 주민에 대한 경계심이 아직까지 상당히 청소년들의 의식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화를 피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경계심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결국, 상당수의 청소년(45.9%)들이 북한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며, 또한 북한 주민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는 태도 불구하고 (<표Ⅱ-3-9>의 남북한 생활수준비교에서 88.1%가 남한이 북한보다 앞선다고 보고 있다),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들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심리적인 어떤 압박을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된다.

성별로 보면, ‘동포로서 적극 환대하겠다’는 남학생(29.8%)이 여학생(24.6%)이 보다 더 많고, ‘만나봐야 안다’는 여학생(28.0%)이 남학생(25.3%)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여학생이 남자보다 유보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동포로서 적극 환대하겠다’는 대학생(34.1%)이 가장 높고, 실업계 고등학생(21.6%)이 가장 낮으며, ‘담담히 대하겠다’는 대학생(33.0%)이 가장 높고, 중학생(22.3%)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만나봐야 안다’는 실업계 고등학생(33.5%)이 가장 높고, 대학생(18.5%)이 가장 낮으며,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만 만나서 대화하겠다’는 인문계 고등학생(17.9%)이 가장 높고, 대학생(12.8

%)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화를 피하겠다’는 중학생(5.4%)이 가장 높고, 대학생(1.4%)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학생이 가장 유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대학생은 북한 주민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명확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어떤 뚜렷한 자신의 주관에 의해 북한 주민에 대한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별로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는 호남지역 학생(37.6%)이, 가장 중립적인 태도는 제주도지역 학생(35.8%)이, 가장 유보적인 태도는 경기도지역 학생(31.0%)이, 가장 신중한 태도와 소극적인 태도는 충청도지역 학생(18.9%, 5.6%)이 각각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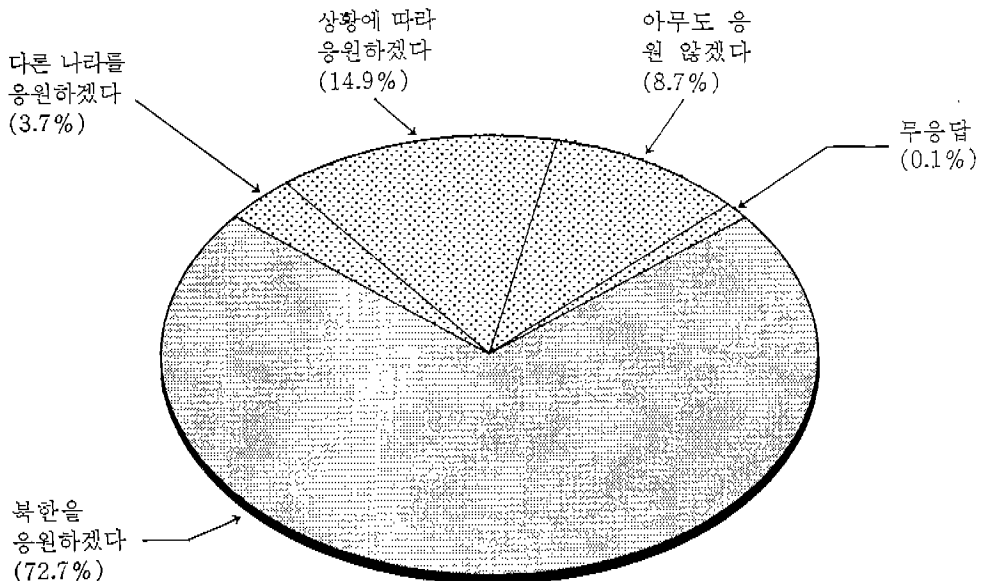
생활수준별로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는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30.7%)이, 가장 중립적인 태도와 신중한 태도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30.6%, 22.4%)이, 가장 유보적인 태도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35.3%)이, 가장 소극적인 태도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10.2%)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9.8%)이 각각 취하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결과를 비교해 보면, ‘동포로서 적극 환대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는 호남지역 학생(37.6%)과 대학생(34.1%)이, ‘담담히 대하겠다’는 중립적인 태도는 제주도지역 학생(35.8%)이, ‘만나 봐야 안다’는 유보적인 태도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35.3%)과 실업계 고등학생(33.5%)이, ‘위험이 없으면 대화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22.4%)이, ‘대화를 피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10.2%)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9.8%)이 각각 취하고 있다.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경기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경기에서의 청소년들의 태도는 전체적으로 ‘북한을 응원하겠다’가 72.7%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다음으로 ‘상황에 따라 응원하겠다’가 14.9%, ‘아무도 응원하지 않겠다’가 8.7%, ‘다른 나라를 응원하겠다’가 3.7%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Ⅱ-3-13 참조).

〈그림 Ⅱ-3-13〉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경기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같은 민족인 북한이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할 때 북한을 응원하겠다고는 것은 북한에 강한 동족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단일민족 의식하에 같은 민족을 생각하는 아량과 북한에 대한 자신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국의 이익추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외국세력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은 점차 사라지고, 반외세적인 자주 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반외세의 감정으로 민족주의 이념이 청소년들 의식 속에 자리잡게 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어떠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응원하겠다’는 유보적인 태도(14.9%)와 ‘아무도 응원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8.7%)를 취하는 청소년(23.6%)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은 앞으로의 통일교육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대북한 의식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북한을 경계해야 하며 어느 정도 민족의식을 배양하느냐는 현실과 이상간의 적절한 조화는 무시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성별로는,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남학생(80.8%)이 여학생(66.1%)보다 더 많고,

‘상황에 따라 응원하겠다’ 혹은 ‘아무도 응원하지 않겠다’는 여학생(18.9%, 10.3%)이 남학생(10.0%, 6.7%)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강한 동족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여학생은 더 유보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태도를 더 많이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대학생(85.7%)이 가장 높고, 실업계 고등학생(65.7%)이 가장 낮으며, ‘다른 나라를 응원하겠다’는 중학생(5.3%)이 가장 높고, 대학생(1.2%)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응원하겠다’는 중학생(20.0%)이 가장 높고, 대학생(8.3%)이 가장 낮으며, ‘아무도 응원하지 않겠다’는 실업계 고등학생(11.3%)이 가장 높고, 대학생(4.9%)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학생이 북한에 대해 가장 경계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에 대학생이 가장 강한 동족의식을 가지고 가장 적극적이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민족의식은 호남지역 학생(82.1%)이 가장 높고 제주지역 학생(68.3%)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나라를 응원하겠다’는 경기지역 학생(5.9%)이, ‘상황에 따라 응원하겠다’는 제주지역 학생(19.5%)이, ‘아무도 응원하지 않겠다’는 서울지역 학생(10.1%)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민족의식은 중간층에 속하는 학생(73.2%)이 가장 높고, 상층에 속하는 학생(55.1%)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나라를 응원하겠다’, ‘상황에 따라 응원하겠다’ 그리고 ‘아무도 응원하지 않겠다’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12.2%, 18.4%, 14.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층에 속하는 학생은 가장 낮은 동족의식과 함께 북한에 대한 가장 경계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함께 취하고 있는 복잡한 양상의 의식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 계층학생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결과를 비교해 보면, 가장 강한 동족의식은 대학생(85.7%)과 호남지역 학생(82.1%)이, 북한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태도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12.2%)이, 가장 유보적인 태도는 중학생(20.0%)이, 가장 소극적인 태도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14.3%)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13.7%)이 각각 나타나고 있다.

위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49.4%의 청소년들이 북한 주민을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고, 26.7%가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으며, 27.0%가 외국에서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 ‘동포로서 적극적으로 환대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72.7%가 북한이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할 때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강한 동족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약 반 세기에 걸친 분단에 의해 민족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회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분단상태가 길어질수록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에 위기를 초래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한편, 대다수의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의식과 행동화된 감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주민을 ‘같은 민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들조차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적고 심리적 거리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식이 행동화될 경우에는 많은 애로점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한가지 이유는 청소년들의 의식이 하나의 관념적인 차원에서의 의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남한과 북한이라는 양립되는 상황이 아니라 민족적인 차원에서는 강한 동족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슴에 깊이 간직한 단일민족 의식이라기 보다는 반외세감정에서 비롯된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만 볼 수 없다. 또한, 이상(민족적 당위성)과 현실(분단속의 대립관계)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유보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 역시 유의해야 한다.

4. 남북한 청소년 교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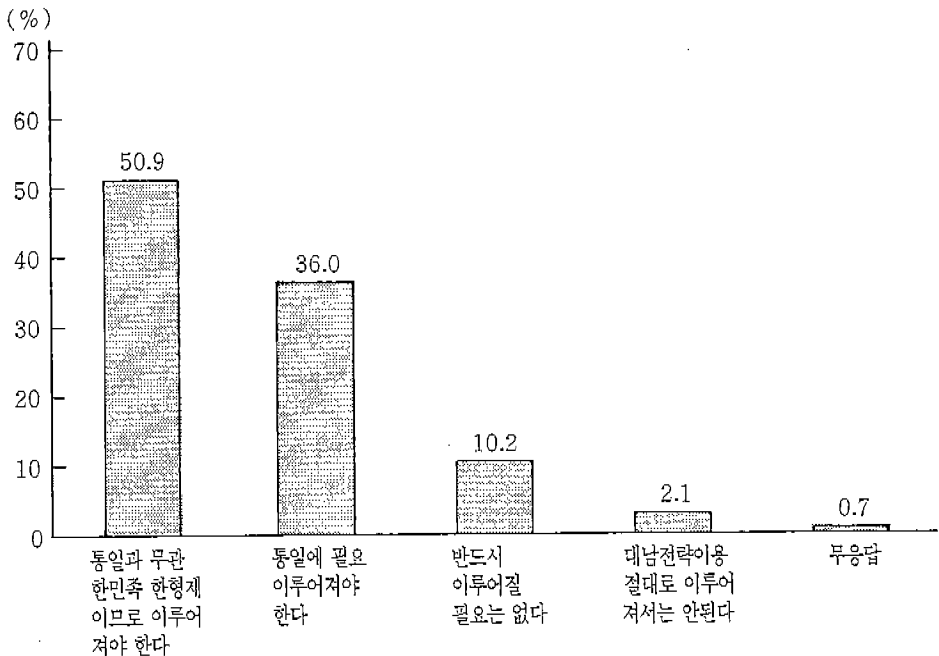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관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된 관련요소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과 영향력, 가능성,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에의 참가의사, 가장 참여하고 싶은 교류활동등 5개 요소로 집약된다. 이를 세부적인 설문형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귀하는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남북한 관계개선 및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앞으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이 전개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하가 만약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에 참여한다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어느 것입니까? 라는 5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는 다음 <표 II-4-1>, <표 II-4-2>, <표 II-4-3>, <표 II-4-4>, <표 II-4-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통일과 상관없이 한 민족 한 형제이므로 이루어져야 한다’가 50.9%, ‘통일에 필요하니 이루어져야 한다’가 36.0%,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가 10.2%, ‘북한 대남전략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가 2.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4-1 참조).

전체 응답자의 86.9%가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청소년 교류 전개의 근거로서 통일보다는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의식 그 자체에 두고 있는 청소년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일이라는 절대적인 목표 그 자체에 무리하게 집착하는 것보다, 한 민족간의 만남 그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 즉,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대립

〈그림 II-4-1〉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과 경쟁 그리고 갈등속에서 불신과 적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모순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상호교류와 접촉을 통해 위화감과 긴장을 완화시켜서 신뢰와 우호증진 속에서 민족공동체 의식과 동질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이는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가장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단일민족이므로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이 청소년들에게는 희박해져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하고 있다.

또한, '북한 대남전략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념이 청소년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를 깨끗이 씻어주고 있다. 이는 곧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남한 청소년들의 우월감 내지 자신감을 의미하며, 견고한 국민 의식이 청소년들에게 정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학교급별로는,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업계 고등학생(84.5%), 중학생(84.9%), 인문계 고등학생(88.2%), 대학생이(91.0%)의 순으로 나타나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청소년 교류에 대한 의지가 다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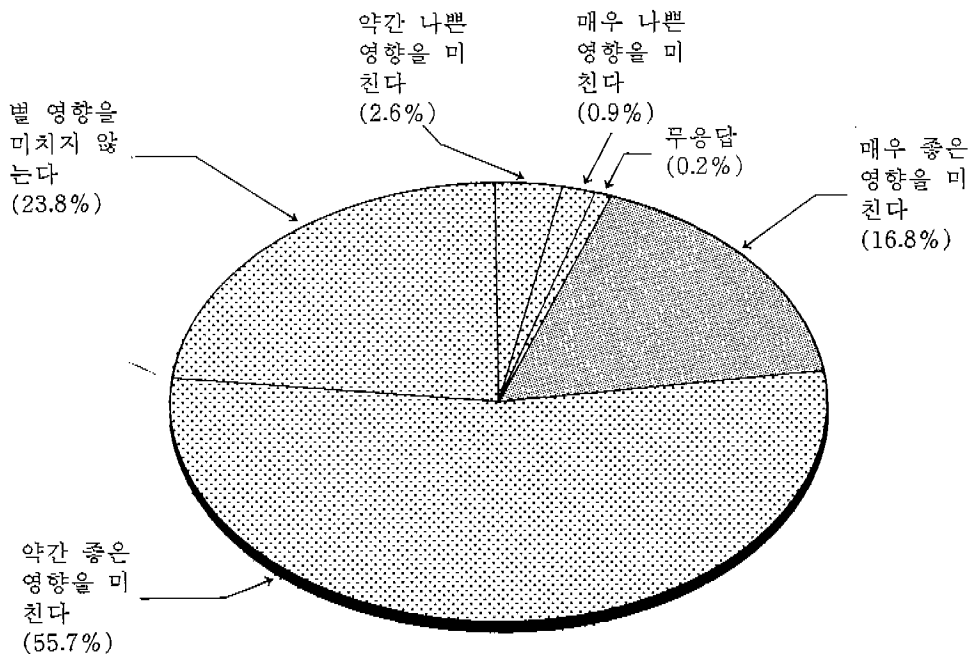
거주지별로는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통일에 필요하니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원도 학생(37.6%)이, ‘통일과 상관없이 한 민족 한 형제이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호남지역 학생(57.7%)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서울지역 학생(12.8%)이, ‘북한 대남전략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영남지역 학생(3.5%)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도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편이나, ‘통일에 필요하니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38.0%)이, ‘통일과 상관없이 한 민족 한 형제이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상층에 속하는 학생(51.3%)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13.7%)이, ‘북한 대남전략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17.6%)과 상층에 속하는 학생(10.2%)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결과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통일에 필요하니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학생(40.9%)과 실향민이 있는 학생(38.3%)이, ‘통일과 상관없이 한 민족 한 형제이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호남지역 학생(57.7%)과 대학생(56.2%)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13.7%)과 서울지역 학생(12.8%)이, ‘북한 대남전략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17.6%)과 상층에 속하는 학생(10.2%)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은 호남지역 학생(93.1%), 실향민인 학생(91.1%), 대학생(91.0%)이 가장 높고, 하층에 속하는 학생(68.6%)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영향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친다’가 16.8%, ‘약간 좋은 영향을 미친다’가 55.7%,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23.8%, ‘약간 나쁜 영향을 미친다’가 2.6%,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가 0.9%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Ⅱ-4-2 참조).

〈그림 Ⅱ-4-2〉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영향



전체 응답자의 72.5%가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매우’ 또는 ‘약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단지 3.5%만이 ‘약간’ 또는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남북한 청소년들간에 교류와

접촉이 빈번해지면 상호 이해와 신뢰가 증진되는 동시에 북한 체제가 개방되어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나아가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청소년(31.2%)들이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이 시급히 서둘러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남북한간의 상호교류’를 우선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표 Ⅱ-2-4>의 통일의 선결과제 참조).

또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결과에 별로 기대하지 않는 청소년도 상당수(23.8%)에 이르고 있다. 이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관심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교류, 즉 남북한 청소년들의 만남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학교급별로는, 청소년 교류가 ‘매우’ 또는 ‘약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대학생(76.4%)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와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실업계 고등학생(27.1%, 4.2%)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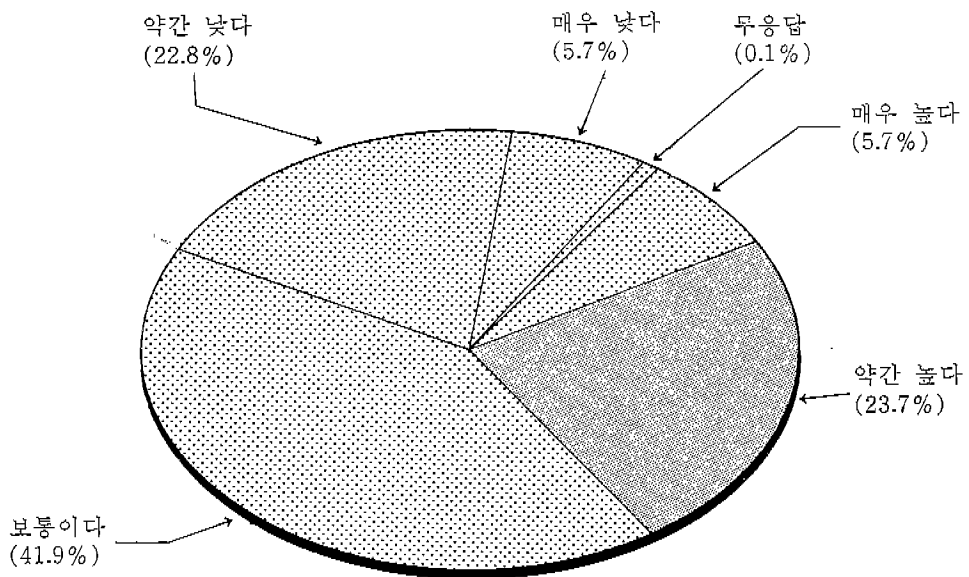
거주지별로는, 청소년 교류가 ‘매우’ 또는 ‘약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호남지역 학생(78.2%)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서울지역 학생(26.8%)이, ‘약간’ 또는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강원도지역 학생(5.8%)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청소년 교류가 ‘매우’ 또는 ‘약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75.6%)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33.3%)이, ‘약간’ 또는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22.5%)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결과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청소년 교류가 ‘매우’ 또는 ‘약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호남지역 학생(80.2%), 중소도시 지역 학생(76.9%), 대학생(76.4%)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하층에 속하는 학생(33.3%)이, ‘약간’ 또는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상층에 속하는 학생(22.5%)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11.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가능성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매우 높다’가 5.7%, ‘약간 높다’가 23.7%, ‘보통이다’가 41.9%, ‘약간 낮다’가 22.8%, ‘매우 낮다’가 5.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4-3 참조).

〈그림 II-4-3〉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가능성



전체 응답자의 29.4%가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또는 ‘약간’ 높다고 보고, 또 이와 비슷한 비율인 28.5%가 가능성이 ‘매우’ 또는 ‘약간’ 낮다고 보고 있으며, 41.9%가 실현가능성에 대한 어떤 강한 확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86.9%)과 그 결과에 대한 높은 평가(72.5%)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남북한 동시가입」, 「남북한 합의서」, 「비핵화선언」, 「남북한 고위층 상호 방문과 접촉」 등의 일련의 사태속에 남북한 교류와 접촉의 가능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 높은 오늘날, 이러한 청소년의 전망은 무척 이해적이다. 특히, 이들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낮은 관심(31.1%)과 낮은 의지(39.4%)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극히 낙관적인 전망(72.1%)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이는 더욱 이해적인 일로 볼 수 있다. 이는 상호대립적인 이념과 단절된 생활속에서 성장해 온 남북한 청소년간의 상호교류는 남북한 모두에 상당한 위협이 따르기 때문에 국가의 장래와 직결되는 청소년들의 교류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사정으로는 청소년들의 변화는 체제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분야에 비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쉽게 초래할 청소년 교류의 접촉이나 교류를 가능한 회피하려는 북한의 태도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나 우려가 청소년들 사이에 깊이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33.3%)이 여학생(26.3%)보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가능성을 더 높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가능성은 인문계 고등학생(25.2%), 실업계 고등학생(26.9%), 중학생(29.7%), 대학생(35.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대학생이 교류의 가능성을 가장 높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중·고등학생, 특히 인문계 고등학생이 교류의 가능성을 가장 낮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 자신들이 처한 입시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보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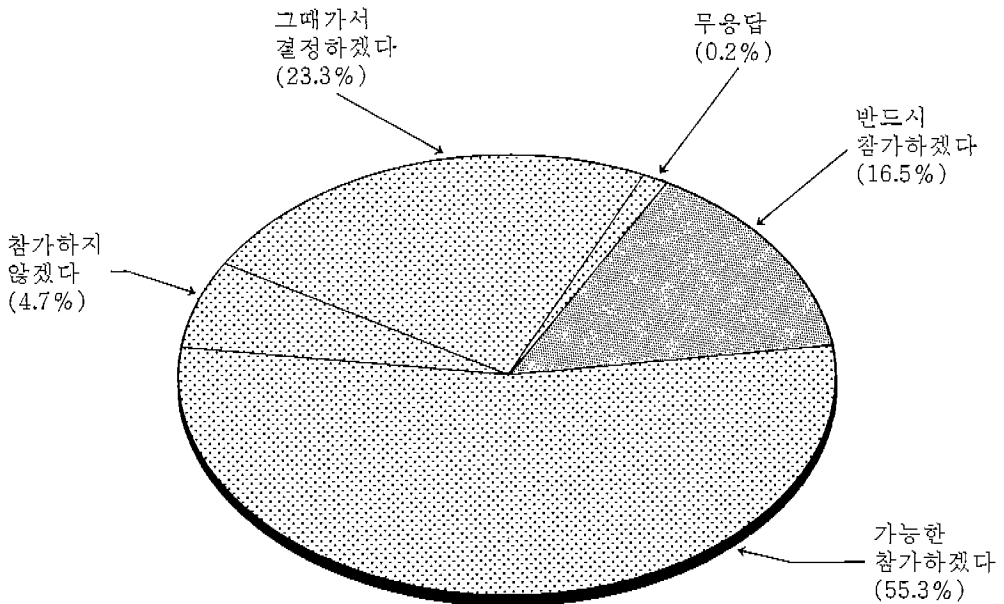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가능성은 호남지역 학생(34.9%)이 가장 높고, 서울지역 학생(27.4%)과 영남지역 학생(27.6%)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 보면,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가능성은 상층에 속하는 학생(48.9%)이 가장 높고, 하층에 속하는 학생(19.6%)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결과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가능성은 상층에 속하는 학생(48.9%), 대학생(35.9%), 호남지역 학생(34.9%)이 가장 높고, 하층에 속하는 학생(19.6%)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의 참가 의사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의 참가여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반드시 참가하겠다’가 16.5%, ‘가능한 참가하겠다’가 55.3%,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가 23.3%, ‘참가하지 않겠다’가 4.7%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Ⅱ-4-4 참조).

〈그림 Ⅱ-4-4〉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의 참가 의사



전체적으로 볼 때, 대다수의 청소년(71.8%)들이 ‘반드시’ 또는 ‘가능한’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 교류의 낮은 가능성에 비해 청소년 교류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참가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는 16.5%에 불과하고,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태도가 23.3%에 이르기 때문에 교류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호응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86.9%)과 그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72.5%)를 고려할 때,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지는 무척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낮은 친근감과 심리적 거리감(〈표 Ⅱ-3-11〉의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표 Ⅱ-3-12〉의 북한 주민에 대한 대면태도 참조)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국가나 민족적 차원에서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의 필요성과 기여도는 인식하지만, 교류활동을 국가가 아닌 자신의 문제와 연관하여 볼 때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급별로는 ‘반드시’ 또는 ‘가능한’ 참가하겠다는 의사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중학생(18.2%)이 가장 많고, 인문계 고등학생(17.9%), 실업계 고등학생(15.4%), 대학생(13.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이 올라갈수록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의사가 낮아지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반드시 참가하겠다’는 호남지역 학생(21.0%)이, ‘가능한 참가하겠다’는 제주도지역 학생(60.2%)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에 대한 참가의사는 제주도지역 학생(79.7%)과 호남지역 학생(75.1%)이 가장 높고, 영남지역 학생(68.0%)과 서울지역 학생(68.5%)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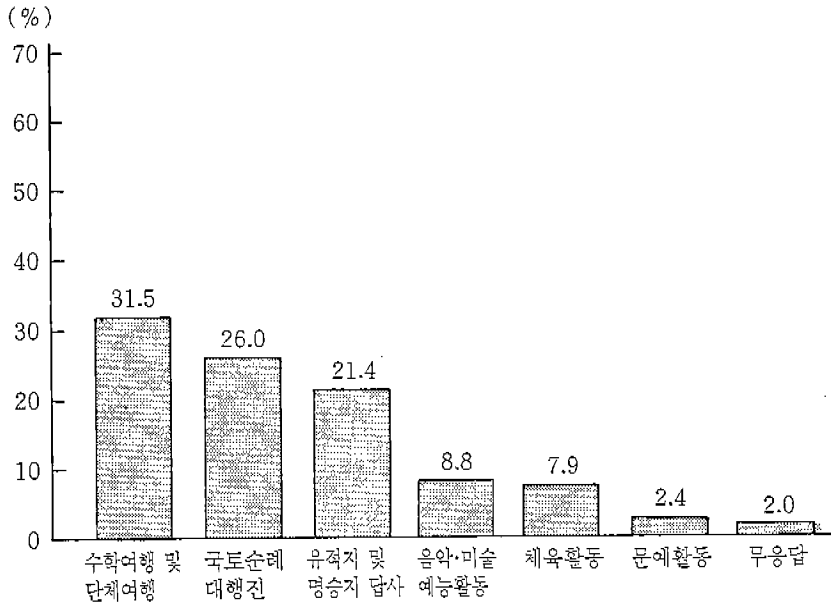
생활수준별로는 ‘반드시 참가하겠다’는 중상층에 속하는 학생(21.1%)이, ‘가능한 참가하겠다’는 중간층에 속하는 학생(56.4%)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에 대한 참가의사는 중상층에 속하는 학생(72.4%)이 가장 높고, 하층에 속하는 학생(52.9%)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결과를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반드시 참가하겠다’는 실험집단이 있는 학생(23.8%)과 중상층에 속하는 학생(21.1%)이, ‘가능한 참가하겠다’는 중간층에 속하는 학생(56.4%)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하면, 청소년 교류활동에 대한 참가의사는 중상층에 속하는 학생(72.4%)이 가장 높고, 하층에 속하는 학생(52.9%)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참여하고 싶은 교류활동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참여할 경우 가장 선호하는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은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이 31.5%, ‘국토순례대행진’이 26.0%, ‘유적지 및 명승지 답사’가 21.4%, ‘음악·미술 등 예능활동’이 8.8%,

‘체육활동’이 7.9%, ‘문예활동’이 2.4%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Ⅱ-4-5 참조).

〈그림 Ⅱ-4-5〉 가장 참여하고 싶은 교류활동



대다수의 청소년(78.9%)들이 북한에 실제로 가서 직접 체험하는 활동, 특히 단체활동을 통하여 북한을 파악하거나, 단일민족으로서의 일체감과 동질성을 몸소 느끼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수의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전문적인 문화활동(19.1%) 보다도 누구나 원하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인 활동(78.9%)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청소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식 전환과 나아가 체제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교류를 최대한 회피하려는 북한의 태도에 반해,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교류의 파급효과가 제한된 문화교류보다 교류의 파급효과가 크고 광범위한 인적 교류를 보다 더 선호하고 있고 있다는 점이 무척 특이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선호도는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86.9%)과 그 결과에 대한 높은 평가(72.5%)에도 불구하고, 교류의 실현에

대한 낮은 전망(29.4%)을 하는 이유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국토순례대행진’(30.5%)을 가장 선호하고, 여학생은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35.1%)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또한 남학생(11.7%)은 여학생(4.8%)보다 ‘체육활동’을, 여학생(11.7%)은 남학생(5.3%)보다 ‘음악·미술 등 예능활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은 그 비율에는 차이가 있으나 중·고등학생(31.3%~41.6%)이, ‘국토순례대행진’은 대학생(42.5%)이 가장 선호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적 교류활동은 대학생(80.7%)이 가장 선호하는 반면에, 문화교류활동은 실업계 고등학생(23.4%)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국토순례대행진’은 충청도지역 학생이 가장 선호하고 있으나, 다른 모든 지역 학생들이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체육활동’은 강원도지역 학생(9.6%)이, ‘음악·미술 등 예능활동’은 충청도지역 학생(12.7%)이, ‘문예활동’은 호남지역 학생(3.7%)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적 교류활동은 영남지역 학생(82.5%)이, 문화교류활동은 충청도지역 학생(24.9%)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결과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은 상층에 속하는 학생(38.8%)과 중학생(41.6%)이, ‘국토순례대행진’은 대학생(42.5%)이, ‘유적지 및 명승지 답사’는 강원도지역 학생(26.9%)이 가장 선호하고 있다. 반면에, ‘음악·미술 등 예능활동’은 충청도지역 학생(12.7%)과 실향민인 학생(12.3%)이, ‘체육활동’은 남학생(11.7%)이, ‘문예활동’은 상층에 속하는 학생(6.1%)과 하층에 속하는 학생(5.9%)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적 교류활동은 영남지역 학생(82.5%)과 대학생(80.7%), 문화교류활동은 실업계 고등학생(23.4%)과 호남지역 학생(22.3%)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86.9%의 청소년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72.5%가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 전개의 근거로서 통일(36.0%)보다는 단일민족 의식(50.9%)을 지적함으로써, 청소년들은 더 어떤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만남 그 자체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86.9%)과 그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72.5%)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교류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강한 확신(29.4%)과 교류활동에 반드시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16.5%)는 무척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 대해 극히 예민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청소년 교류, 특히 대부분의 청소년(78.9%)들이 선호하고 있는 인적 교류 활동이 실현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회의적인 생각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의 중요성을 관념적으로는 인식하나, 실제 몸으로 절실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Ⅲ.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파악하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통일, 북한, 그리고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관한 청소년들의 의식 구조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청소년들의 의식이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별, 지역규모별, 생활수준별, 실향민 여부별등 배경변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반 연구의 한 부분이나 단편으로 또는 한정된 지역의 특정 청소년만을 다루어 온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청소년만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통일의식을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한 분석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간략하게나마 먼저 요약한 후, 이러한 조사결과 분석을 토대로 하여 그 가운데에서 두드러진 특징적인 성향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통일의식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제안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요 약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통일관

①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는 무척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31.1%만이 통일에 어느 정도(‘매우’ 또는 ‘약간’) 관심을 가지고 있고 8.2%만이 친구나 가족 등 주위 사람들과 통일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② 통일의 당위성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이 무척 희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39.4%만이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이들 중 33.5%(전체 응답자의 약 13.2%)만이 통일의 근거를 ‘같은 민족’이라는 당위적인 논리에 두고 있다. 그러나 72.1%가 ‘통일이 언젠가는 될 것이다’는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이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③ 통일의 방법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통일의 방법에 있어서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87.8%가 통일의 주체는 세계강대국이나 남북한 어느 한 정부가 아닌 ‘남북한 민족 전체’임을 자각하고 있다. 또, 91.8%가 전쟁이나 다른 방안에 의한 조급한 통일보다 ‘시간이 걸려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원하고 있다.

④ 통일의 선결과제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통일은 남북한 민족 전체의 책임으로 민족 전체의 자각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민족 주체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90.9%가 통일이 되지 않는 책임을 ‘우리 민족 자체’, 즉 남북한 당사자에 있음을 인식하여 통일의 장애 요인을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민족의 내부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다. 또한 61.1%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선결과제로 남북한 어느 한 쪽이나 외국의 도움 또는 협조가 아닌 남북한의 공동협조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상호교류’와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을 들고 있다.

⑤ 통일국가의 미래상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통일국가의 이상형으로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단일주권국가’를 가장 선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62.3%가 ‘남북한이 하나의 단일주권국가로서 민족·사회·문화적 공동체

를 이룰 때' 비로서 통일이 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79.6%가 통일국가의 체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또한 74.9%가 통일국가의 정치·경제·사회 등의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⑥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남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가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는 기대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42.8%, 32.3%가 남북한이 각각 제안하는 통일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정확히' 또는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방안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청소년 (전체의 약 30.0% 정도)들 중에도 42.2%가 남북한 통일방안의 실현가능성 평가에서 '양측 모두 불가능 또는 가능'이라는 판단미정의 중립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실제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는 훨씬 낮은 약 20.0% 내외로 볼 수 있고, 나아가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남북한 통일방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1.1%가 남북한 통일방안 모두를, 37.1%가 현 남북한 관계의 전전을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⑦ 통일문제의 논의방식

통일문제는 민족적 과제로서 통일문제의 논의는 전 국민의 합의속에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청소년들은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갈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46.6%가 현재 전개되고 있는 통일문제 논의가 정부의 독점에 의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92.6%의 절대 다수가 정부나 전문가 등 기존의 통일논의의 주도집단에 강한 불신감을 보이면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통일논의의 제한 범위에서 벗어나서 국민에게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자유로운 통일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⑧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인식

청소년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부족하나 통일 주역으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인정하고 통일문제 해결에 직접 공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청소년들은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78.5% ('모든 국민', 45.4% ; '청소년세대', 33.1%)가 '청소년 자신'들을 통일 주도세대로 보고 있고, 76.8%가 청소년도 통일에 기여할 능력이 어느 정도 ('충분히' 또는 '다소')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70.5%가 남북한 대학생들이 직접 만나 통일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시도를 어느 정도 ('매우' 또는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 북한관

① 북한에 대한 관심

통일문제에 대한 극히 낮은 관심도에 비해 북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호기심은 무척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70.7%가 북한 영화가 상영된다면 '반드시' 또는 '가능한' 보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91.7%가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일 방문하고 싶은 장소로 '백두산(33.3%)', '금강산(18.3%)', '평양(11.8%)' 등의 북한의 상징장소나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현장(14.2%)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② 북한에 대한 인지

북한에 대한 인지도와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17.2%가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많이 ('매우' 또는 '약간') 알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고, 65.0%가 북한에 관련된 지식을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주로 얻고 있다. 그리고 61.5%가 자신이 접하고 있는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가 북한 실상과 다소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③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은 북한을 '민족의 일부'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소수의 청소년(북한에 대한 첫인상, 2.7% ;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22.9%)들만이 북한을 통일을 해야 할 ‘우리 민족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극소수의 청소년(북한에 대한 첫인상, 2.7% ;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3.8%)만이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절대 다수의 청소년(88.1%)들이 북한에 대한 남한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다.

④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북한 주민에 대한 청소년의 민족공동체 의식은 상당히 희박해져 있으며, 청소년의 일반적인 의식과 행동화된 감정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주민을 같은 민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들조차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적고 거리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민족의식이 행동화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이라는 양립되는 상황이 아니라 민족적인 차원에서 강한 동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49.9%가 북한 주민을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고, 26.7%가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으며, 27.0%가 외국에서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 ‘동포로서 적극적으로 환대하겠다’는 적극적인 대면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72.2%가 북한이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할 때,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강한 동족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3) 남북한 청소년 교류관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무척 높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은 무척 낮고, 교류활동에 반드시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도 무척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86.9%가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72.5%가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남북한 관계 개선 및 통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29.4%가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16.5%만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이 전개되면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참여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 청소년 통일의식의 일반적인 경향

본 연구의 조사결과 분석을 토대로 그 가운데에서 두드러지게 특기할 만한 전체적인 성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통일의지의 약화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태도보다는 통일과 분단 현실에 대한 무관심 또는 소극적인 태도로 분단체제의 고착화를 현실적으로 묵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절대 다수의 청소년(68.9%, 91.8%)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고, 일상생활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절대 다수의 청소년(약 80.0%)들이 남북한 통일방안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인 틀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62.3%)들이 '단일주권국가'의 형태를 통일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으나, 현재 남북한간의 극단적인 대립·경쟁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통일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을 의미하는 '상호교류나 평화공존(33.3%)'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과반수 미만(39.4%)의 청소년들만이 '통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일에 대한 강한 신념을 보여주고, 대다수는 통일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방관적인 태도, 또는 분단지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통일보다는 분단체제를 현실로서 인정하고 그대로 안착하고자 하는 경향이 청소년들의 의식속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북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반 세기에 걸친 민족분단의 결과로서 청소년들은 북한 사회를 그 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없이 감정적인 차원에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북한을 단일민족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소수(북한의 첫인상, 2.7% ; 북한 사회의 인식, 36.0%)에 불과하다. 또한, 주체사상이 강한 민족자주국가, 순수한 우리말, 단결력, 규칙·질서, 아름다운 강산 등 북한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려는 청소년(1.7%~3.8%)들도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김일성의 우상화, 세습체제, 일당독재체제 등 김일성과 북한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의식(44.6%)과 북한의 군사관련 문제에 따른 적대감(10.0%)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생활을 주로 공산당의 통제와 감시속에서 자유가 없는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생활, 혹은 헐벗고 굶주리는 비인간적인 생활(북한의 첫인상, 16.6% ; 북한 사회의 인식, 53.1%) 등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방안의 평가에 있어서 남한의 통일방안(53.0%)이 북한의 통일방안(4.7%)보다 훨씬 더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통일이 되지 않는 책임을 남한(2.3%)보다 북한(13.0%)에 더 많이 돌림으로써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 청소년들의 의식저변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분단체제에서 태어나 민족적 동질성과 일체감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질적인 체제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의 민족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희박해져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3)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 약화

청소년들은 ‘단일민족이므로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민족통일이라는 절대적인 목표 그 자체에 무리하게 집착하는 것보다는 남북한이 별개의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하는 현 분단체제 속에서의 한 민족간의 만남 그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은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소년(전체의 39.4%) 중에서 통일의 근거를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적 당위적인 논리에 두고 있는 청소년은 소수(33.5%)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불행과 고통의 해소(34.8%)’ 또는 ‘민족번영의 기쁨(30.3%)’ 등 현실적인 욕구(65.1%)에 두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소년(전체의 39.4%) 중의 33.5%, 즉 전체 대상 청소년중 약 13.2%만이 통일의 근거를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사적 정통성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사회를 ‘같은 민족’이라는 단일민족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36.0%)들이 어느 정도 있으나, 이러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은 22.9%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현재의 분단체제를 인정하려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 전개의 근거로써 통일(36.0%)보다 ‘통일과 상관없이 한 민족 한 형제이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같은 민족간의 만남 그 자체(50.9%)에 두고 있다. 그리고 통일문제에 대한 극히 낮은 관심(31.1%)을 보이고 있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70.7% 91.7%)을 보임으로써 통일이라는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더라도 즉, 현 분단체제가 지속되더라도 우리 민족의 또 다른 사회를 알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나 북한 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단일민족 의식은 반드시 민족적 당위성에 입각한 통일의지로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민족 통일이라는 민족적 당위성의 개념이 청소년들에게 무척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관념적인 차원에서의 통일의식

통일은 명분의 세계에서만 민족적 염원이요 과제로 강조될 뿐이지 실제로 청소년들의 가슴에 와 닿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60.6%)들이 통일을 반드시 꼭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통일의 시기(58.5%)를 멀리 장기적으로 본다든지, 미래세

대(14.5%)를 통일의 주역으로 봄으로써 통일을 가까운 장래의 자신의 문제가 아닌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먼 장래의 초현실적인 문제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통일의 문제를 관념적으로만 인식함으로써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인식과 행동의 연계성이 미약하여 통일에 관련된 제 문제들에 대해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31.1%)과 의지(39.4%)는 매우 낮으나, 통일의 가능성(72.1%)은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86.9%)과 그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72.5%)에도 불구하고, 교류활동에 반드시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호응과 태도(16.5%)는 무척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국가가 아닌 자신의 문제와 연관하여 볼 때,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약 과반수 정도(49.4%)의 청소년들이 북한 주민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는 단일민족 의식을 느끼고 있으나, 26.7%만이 북한 주민에 친근감을 가지고 있으며, 27.0%만이 북한 주민을 동포로서 적극적으로 환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에 대해 심리적인 거리감을 가진다는 점은 청소년들이 민족공동체 의식을 감정적인 차원이 아닌 관념적인 차원에서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이 북한을 감정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면서,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경계에서는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민족적 동질성과 일체감을 몸소 체험해 보지 못한 청소년들은 통일문제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만 인식하여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행동화되지 못한 채 공리공론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5) 통일문제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통일관련 문제들에 대해 유보적인 또는 방관적인 태도를 많이 취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해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관이 뚜렷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에 대한 관심 및 북한관련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보통이다’라는 애매한 태도(54.1%, 63.5%)가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관심이나 지식의 정도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북한 통일방안의 실현 가능성에서 ‘남북한 통일방안 모두 실현가능’ 또는 ‘불가능’하다는 중립적인 태도(42.2%)가 높게 나타나고, 소수이지만 ‘통일이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상관없다’는 통일에 대한 방관적인 태도(8.7%)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통일의 가능성과 통일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8.2%, 11.9%)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한 영화 관람 의사를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23.1%)’와 북한 주민과 청소년에 대한 대면 태도를 ‘만나봐야 안다(26.7%)’,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경계시 ‘상황에 따라 응원하겠다(14.9%)’ 등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태도를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관심 자체를 외면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신이 접하고 있는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가 북한의 실상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청소년(18.0%)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관심이나 애매한 유보적인 태도는 통일이나 민족공동체 의식과 같은 ‘이상’과 분단에 따른 이질화가 존재해 있는 냉랭한 ‘현실’사이의 갈등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단체제를 현실적으로 묵인하려는 안일한 경향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6)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높은 비판의식

청소년들은 그동안 안보적인 이유로 통일문제의 접근에 많은 한계를 그어왔던 정부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보이면서 통일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다.

대체로 남한의 통일방안(53.0%)이 북한의 통일방안(4.7%)보다 훨씬 더 실현가능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남한의 통일방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해석될 수 있는 ‘북한의 통일방안이 실현가능하다(4.7%)’와 ‘남북한 방안 모두 실현 불가능하다(21.1%)’는 청소년(25.8%)들도 상당히 있다. 많

은 청소년들이 정부의 창구 단일화를 통한 통일문제의 독점(46.6%)과 정부와 전문가 중심의 통일문제 논의(92.6%)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민학교 때부터 실시되어 온 통일교육에도 불구하고 북한관련 지식의 획득원으로서 학교교육에 대한 의존도(20.6%)가 낮게 나타남으로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는 학교교육 내용에 대한 불신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61.5%)들이 자신들이 획득하고 있는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가 북한의 실상과 어느 정도 다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의 내용 그 자체를 상당히 불신하고 있다. 이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연구자료에의 접근에 많이 제약해 왔던 정부에 대한 불신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정부의 통일정책에 관한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그동안의 정부 주도의 통일문제 논의가 일반 국민과 너무나 동떨어진 폐쇄적이었다는 정부에 대한 강한 반작용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7) 통일문제에 대한 진보적 온건주의 경향

청소년들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극단적인 방법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거부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급진적인 통일논의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절대 다수의 청소년(91.8%)들이 통일의 방법에서 전쟁이나 다른 방안에 의한 ‘무조건적인 또는 조급한’ 통일보다 ‘시간이 걸려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더 선호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통일의 시기를 가까운 시기(13.6%)보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58.5%)로 더 많이 봄으로써 통일의 시기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일국가의 체제이념으로써 ‘공산주의체제(0.7%)’, ‘남북한 혼합절충체제(16.3%)’, ‘어느 체제도 무방하다(3.1%)’ 등 다른 어떤 체제(20.1%)보다, ‘자유민주주의체제(79.6%)’를 더 선호함으로써 이념을 초월하는 통일이라는 절대적인 목표가치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에 더 강한 관심과 애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청소년(92.6%)들이 국민에게 개방된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원하고 있으나, 이 통일논의가 국익(34.9%)이나 자유민주주의체제(3.2%)의 범위내에서 조건부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가진 청소년(37.1%)들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현실에 대단히 불

만족하여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는 급진주의 대신, 기존의 체제내에서 안정된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적 온건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8) 통일문제에 대한 반외세 민족주의경향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겠다’는 민족 주체성에 입각하여 통일은 외세의존성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자주적 통일 성취의 의지가 청소년들 사이에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절대 다수의 청소년(87.8%)들이 통일의 주체를 세계강대국이 아닌 남북한 우리 민족 전체임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통일을 민족 전체의 책임으로 보고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외부가 아닌 민족의 내부적인 요인(90.0%)에서 찾고 있으며, 외국의 도움이나 협조없이 남북한의 공동협조와 노력(60.1%)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또한 비록 소수이지만, 이념보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국제정세속에서 통일문제를 민주주의라는 서구의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적 차원에서 우리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민족적 욕구에서 ‘남북한 혼합절충체제’를 통일국가의 이념체제로 선호하는 청소년(16.3%)들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청소년(72.7%)들이 북한이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할 때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강한 민족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의지에 비해, 통일의 민족주체성에 대한 강한 인식을 이례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는 외세에 의해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어 왔던 민족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반외세적인 경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통일문제를 민족 전체의 자각으로 민족 전체의 단합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역량에 의해 해결해 나가하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경향이 청소년들의 의식 속에 강하게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한 통일 논의

청소년들은 통일문제는 어느 세대의 전유물이나 한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전국민의 운명이 달린 민족적 과제로써 개개의 모든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전체 국민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과반수에 해당하는 청소년(45.4%)들이 ‘모든 국민’이 통일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60.3%)들은 현 통일문제 논의가 정부(46.6%) 그리고 기성세대(13.7%)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절대 다수(92.6%)가 통일논의가 현재의 제한 범위에서 벗어나 전 국민에게 개방되어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결국 통일논의는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전 국민의 합의속에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청소년들의 의식 저변에 강하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10) 통일승계세대로서 청소년의 역할인식

통일문제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의지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점차 희박해져가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통일승계세대로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45.4%)’ 또는 ‘청소년세대(33.1%)’를 통일의 주역으로 보고 있으며, 청소년(76.8%)들도 통일에 기여할 능력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많은 청소년(71.0%)들은 ‘남북한 학생회담 추진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여 통일문제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청소년들은 통일의 주역으로 자신들의 역할과 능력을 스스로 인정하여 통일문제 해결에 직접 공헌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그동안 통일문제를 주도한 분단전 세대인 ‘기성세대(7.0%)’를 제치고 분단 후 세대인 ‘청소년(33.1%)’ 또는 ‘미래세대(14.5%)’를 통일문제 해결의 새로운 주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때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던 ‘남북한 학생회담 추진운동’은 많은 청소년(71.0%)들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식의 틀로부터 벗어나 변화와 진보를 추구하는 진보적인 성향의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시대적인 전환기와 더불어 통일문제를 진단하는 의식속에서의 세대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3. 청소년 통일의식의 배경변인별 경향

본 연구의 조사결과 분석을 토대로 그 가운데에서 두드러지게 특기할 만한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성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별 통일의식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일에 대해 더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통일문제에 대한 대화를 더 많이 하며,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또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일에 대한 의지를 더 강하게 보이고, 통일의 근거로써 남학생은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적 당위성에, 여학생은 민족의 분단으로 인한 불행과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욕구에 상대적으로 더 높게 두고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일국가의 미래가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조금 높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는 반면에,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약간 더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북한을 우리 민족의 일부로서 더 높게 간주하고 북한 주민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는 단일민족 의식을 느끼며,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더 높게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북한을 ‘적’ 또는 ‘관계없는 하나의 국가’로 더 많이 인식하고 북한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과 다른 나라의 경기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는 반면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황에 따라 응원하겠다’ 혹은 ‘아무도 응원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더 많이 보이고 있다.

한편,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급격한 변화보다 현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체제안정 지향적인 성향을 다소 높게 나타내고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더 바라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전쟁에 의한 또는 어

면 방법도 무관한 조금한 통일을 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통일 국가의 이념체제로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유민주주의’를 훨씬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통일문제에 대해 좀 더 안정지향적인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역할을 더 인식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식,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가지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2) 학교급별 통일의식

대체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관심과 대화, 지식이 많아지고 통일의 의지, 특히 ‘같은 민족’이라는 당위적인 논리에 입각한 통일의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여러 문제에 대한 유보적인 또는 판단불능의 태도가 낮아짐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뚜렷한 판단기준이 설정되어 가고 의견이 구체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력이 높아질수록,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청소년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인식과 통일문제 논의 및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은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고 논의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통일방안 및 북한에 대한 지식이 무척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의 의지가 낮으며 통일의 시기 및 가능성, 그리고 통일후의 전망에 대해 비관적이거나 불투명한 전망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북한 공산주의체제’를 더 많이 지적한다든지 북한을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국가’, ‘가장 위험한 공산주의 적대국’ 등으로 감정적인 차원에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 주민을 ‘무서운사람’, ‘관심밖의 사람’으로 봄으로써 북한에 대해 가장 경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생은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통일의 의지가 낮다. 남한의 통일방안과 남한 주도의 통일을 다른 집단보다 높게 지지하고, 통일문제 논의도 국익을 고려한 범위내에서 제한하는 것을 높게 지지하여

체제지향적인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학생은 중·고등학생들보다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대화를 많이 하며 남북한 통일방안이나 북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을 우리의 민족의 일부로서 강하게 인식하여 부정적으로 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강한 동족의식과 친근감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통일, 특히 민족적 당위성에 입각한 통일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나며, 통일의 가능성 및 통일 후의 사회에 대해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은 우리의 체제 및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과 다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반체제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고 정부 주도의 통일문제 논의에서 벗어난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완전히 개방적인 논의를 주장하고, 현재 북한관련 지식, 특히 학교교육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통일의 선결과제로 ‘북한의 자유화와 개방화’는 훨씬 낮고, 반면에 ‘주한미군 철수 및 보안법 철폐’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통일국가의 체제로서 ‘남북한 혼합절충체제’를 더 많이 선호하여 남한 주도와 통일문제의 국제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남북한 공동협력을 통해 자주적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는 강한 반외세적인 민족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대학생은 중·고등학생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통일에 대한 열의와 의지를 갖고 적극적이고 분명한 통일지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지역별 통일의식

지역별에 따른 통일의식은 대체로 전체의 일반적인 경향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호남지역 학생, 강원도지역 학생, 그리고 서울지역 학생이 두드러지게 특기할 만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호남지역 학생들은 통일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 학생은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는 통일에 대한 의지가 높고 통일의 근거를 무엇보다도 ‘단일민족’이라는 역사적 정통성에 두고 있으며, 통일 후의 전망을 가장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북한을 단일민족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일부로서 보고,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른 집단에 비해 북한의 통일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고, 북한 사회를 주체사상의 자주국가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북한을 남한과 함께 통일의 주도세력으로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을 우리 민족의 일부로 가장 높게 간주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같은 민족’이라는 단일민족 의식 및 친근감이 높고, 또 북한 주민을 우리의 동포로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호남지역 학생은 그리고,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학생회담 추진운동’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참가 의사를 보이면서 통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호남지역 학생은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고 통일문제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다소 급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지역 학생은 다른 지역학생들보다도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보다 많이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에 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집단에 비해 북한을 ‘민족의 일부’로 보는 견해는 낮고 반면에 ‘가장 위험한 적대국’으로, 북한 주민을 ‘무서운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 의지가 그렇게 높지 않을 뿐 아니라,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 개념도 무척 낮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의 근거를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적 당위적인 논리보다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불행과 고통 해소, 즉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전쟁 공포로부터의 해방에 더 높게 두고 있다. 또한, 통일의 가능성을 가장 낮게 보고, 통일 후의 전망도 가장 나쁘게 보고 있다.

현 남북한 관계가 ‘매우 빠르다’면서 우려를 표시하고 ‘상호교류와 평화공존이 가능할 때’도 통일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를 높게 나타냄으로써 통일에 대해 소극

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높은 지지와 함께 남한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고 통일문제 해결에 있어서 강대국의 협조를 상대적으로 많이 원함으로써 통일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가능한 배제하려는 체제안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가장 낮게 평가하면서, '미래 세대'를 통일의 주도세대로 많이 간주하면서 통일을 자신과 관계가 먼 초현실적인 문제로 보려는 경향이 다른 지역 학생보다 강하다. 이러한 강원도지역 학생은 6·25를 경험한 이산가족이 많이 있고 북한과 가까이 접근되어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영향으로,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통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서울지역 학생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관련된 지식도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에 대한 단일민족 의식이 무척 낮으며,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경계시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비율 역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는 통일의 의지 및 민족적 당위성에 근거한 통일의지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의 근거를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적 당위적 논리보다 '경제발전'이나 '국제적 지위 향상'과 같은 '민족 번영의 기틀'에 둬으로써 현실지향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통일의 주역으로 청소년세대로 보는 비율이 낮고 기성세대로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에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 참가의사를 가장 낮게 나타내고 있다. 결국 서울지역 학생은 통일 및 북한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분단체제를 그대로 묵인하려는 경향, 즉 현실지향적인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4) 생활수준별 통일인식

상층에 속하는(아주 잘 산다는) 학생은 통일과 분단의 현실을 외면한 채 현상태, 즉 분단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현실지향적인 보수적인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 계층의 학생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대화정도, 그리고 통일

의 의지가 다른 집단에 비해 무척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통일에 관련된 제 문제들에 대해 어떤 뚜렷한 판단이 부족한 유보적이거나 방관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다. 특히, 통일의 방법, 통일의 가능성, 통일국가의 전망, 북한관련 지식의 신뢰도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판단불능의 태도를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내고 있다. 또 이들은 통일의 주체세력과 통일국가의 이념체제에 대해 ‘누구나’ 또는 ‘어느 체제’도 상관없다는 가장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북한 영화의 관람여부,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경기시 북한응원 여부를 상황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겠다는 가장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같은 민족’이라는 단일민족 의식이 가장 낮고, 북한을 ‘적’ 또는 ‘관계없는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 계층의 학생은 통일보다도 현 분단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려는 경향을 아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중상층에 속하는(잘산다는) 학생과 중간층에 속하는(보통이다)는 학생은 현 상태가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에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통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보적 온건주의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통일문제에 대해 중간 정도의 관심, 대화 그리고 통일외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일국가의 이념체제로 가장 많이 생각하고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다른 집단보다 가장 많이 원하고 있다.

중하층에 속하는(못산다는) 학생은 통일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강한 의지와 함께 통일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진보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통일의 의지,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다른 어느 집단보다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한 가장 높은 단일민족 의식과 북한 주민을 ‘동포로서 환대하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대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하층에 속하는(아주 못산다는) 학생은 통일이나 분단현실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무관심주의의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통일에 대한 대화정도와 북한관련 지식의 정도가 가장 낮고, 통일의 의지,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 역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층에 속하는 학생과 거의 마찬가지로, 통일의 가능성, 통일의 방법, 통일국가의 체제, 통일국가의 미래, 북한 영화의 관람 의사, 남북한 청소년교류 참가의사, 북한관련 지식 신뢰도 등 제 문제에 대해 가장 유보적인 또는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에게 대해 가장 낮은 친근감과 가장 큰 심리적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경기시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반응 역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 계층의 학생은 통일문제를 자신의 세계와 전혀 관계없는 초현실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통일문제 자체에 대한 무관심 내지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생활수준별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은 상층에 속하는 학생은 현실지향적인 보수주의 경향, 중상층에 속하는 학생과 중간층에 속하는 학생은 가능한 기존 체내에서의 통일을 바라는 진보적 온건주의 경향,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은 어느 정도의 변화를 수반하는 통일을 바라는 진보주의 경향, 하층에 속하는 학생은 통일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회피하려는 경향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5) 실향민 여부별 통일의식

가족중 실향민이 있는 학생이 실향민이 없는 학생보다 통일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대화를 더 많이 하고 남북한 통일방안에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중 실향민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더 높고,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으며, 북한 주민에 대해 친근감 및 ‘동포로서 환대하겠다’는 적극적인 대면태도를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

가족중 실향민이 있는 학생이 실향민이 없는 학생보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더 높은 통일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민족적 당위성에 입각한 통일의 의지는 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족중 실향민이 있는 학생은 ‘이산가족의 고통해소’를, 실향민이 없는 학생은 ‘민족 번영의 기틀’을 각각 더 높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족중 실향민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통일의 주역으로

‘자신을 포함한 청소년세대’를 더 높게 간주하여 통일승계세대로서 자신의 역할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결국, 가족중 분단의 아픔을 직접 접하고 있는 실태민이 있는 학생은 없는 학생보다 통일문제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로서 보다 가슴에 와 닿는 현실적인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제 언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성향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외식을 정립시키고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1)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복잡하고 일견 막연하게 보이는 통일문제를 모든 국민이 함께 공감하여 보다 큰 관심을 갖고 통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 풍토와 분위기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통일은 내일이나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세대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로서 실제 몸으로 감정적인 차원에서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단의 현실 및 통일관련 문제를 정확히 이해시키고 민족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 적극적인 통일의식을 가질 수 있는 보다 설득력있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2) 통일지향적인 교육

안보의식과 이념교육의 중심의 분단체제 지향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남북한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통일 지향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의지 및 사명감 등 정의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통일에 대한 태도나 의식의 밑바탕이 되는 체계적인 지식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는 현행 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튼튼한 지식의 바탕위에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및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통일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남북한 통일에 관련된 제 문제들을 보다 정확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통일이 단순한 두개의 정부 통합이라는 제도적인 의미 이전에 민족사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의 발전 즉, 당위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일을 강조하여 통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실정을 감춘다든가 축소평가를 하거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흑평을 하여 단지 경계와 적대 의식을 일으키는 감정적인 차원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북한의 실정 그대로 가르치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객관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북한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 중심의 교사 주도적 주입식 강의가 주가 되고 있는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교육내용을 TV, 슬라이드, VTR, 사진 등 다양한 시청각 기재를 통해 현실감각을 높임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인지적 요소를 바탕으로 감정과 의지를 강화하여 인식을 행동화하는데 명확한 주관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일관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입시위주의 교과과정에서 뒤로 밀린 통일교육의 교과목을 보완하고 격상하여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3)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성

통일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 뿐만아니라,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러 사회적 환경을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일관된 작업으로 연속성이 있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은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을 학교교육보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더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형성에 있어서는 대중매체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대중매체에서 전달되는 내용이 서로 일치되고 합리적인 상호연관성과 상호보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

남북한 청소년간의 이질화, 적대화 현상을 극복하고 한 민족으로서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회복하여 민족공동체로서 ‘우리’라는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 국토순례대행진, 유적지 및 명승지 답사, 그리고 음악·미술·체육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북한을 직접 방문하고 북한 주민과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접촉함으로써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형성된 단일민족 의식을 실제 몸으로 절실히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5)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활동의 활성화

보다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설득력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과정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간단히 손쉽게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보다 큰 관삼과 함께 많은 요인들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대책 그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들이 수반되어야만 비로서 마련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시홍 (1986), 제주도 초·중·고 교원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영복 (1982),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사상”, 현대사상, 18-39.

국토통일원 (1969), 국토통일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국토통일원 (1970), 통일의식의 국민적 합의 문제.

국토통일원 (1971), 국토통일에 관한 여론조사.

국토통일원 (1971), 통일 및 반공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

국토통일원 (1972), 국토통일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국토통일원 (1972), 통일 및 안보 가치관에 대한 여론조사.

국토통일원 (1973), 국토통일에 관한 여론조사.

국토통일원 (1973), 대학생의 통일의식의 진단과 개선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1975), 통일안보에 관한 여론조사.

국토통일원 (1977),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형성과정 비교.

국토통일원 (1978),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비교.

국토통일원 (1978), 통일안보에 관한 여론조사.

국토통일원 (1979), 통일 후계세대로서의 한국 청소년 사회화 연구.

국토통일원 (1979), 통일안보에 관한 여론조사.

국토통일원 (1980), 남북한 청소년 문제와 전망.

국토통일원 (1985), 대학생·종교인 통일문제 의견조사.

국토통일원 (1985), 통일문제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구조 연구.

국토통일원 (1986),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의견조사.

국토통일원 (1989), 민족공동체와 통일문제, 제5회 미주지역 통일문제학술회의.

국토통일원 (1989),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의견조사.

국토통일원 (1990),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

- 김동범 (1987), 반공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복희 (1988), 한국 학생의 국가의식에 관한 기초연구 -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태 (1977), “안보통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전주교육대논문집, 17, 1-29.
- 김순규 (1977), “안보의식에 관한 대학생과 근로자의 반응연구”, 경남대학 논문집, 4.
- 김신일 (1991), “통일로 가는 교육의 방향”, 새교육, 한국교육신문사.
- 김용승 (1990), “대학인의 통일의식과 통일문제 인식의 새 방향”, 국토통일원, 대학생통일 논문집.
- 김일복 (1985), 중학교 남녀 학생의 가치관 비교 연구: 가정, 학교, 사회생활관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탁·오대섭 (1986), “한국 청소년층의 대북한관”, 통일한국, 26, 38-41.
- 전제만 (1988), 통일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림 (1989), “민족공동체와 통일문제”, 민족공동체와 통일문제, 국토통일원.
- 김충남 (1984),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비교”,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 김향원 (1983), “한국 대학생의 대북한관 연구”, 민족문화와 국민정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53-421.
- 남태욱 (1986), “고교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통일문제, 국토통일원, 4.
- 노병철 (1990),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 종합분석자료”, 도덕국민윤리과 교육, 한국 도덕국민윤리과 교육학회, 1.
- 도홍렬 (1985), “남북한 후계세대의 의식성향 비교”, 북한, 133-147.
- 박용현 외 (1980), “현대 한국인의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사상과 윤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용현 외 (1985), “한국 초·중·고교 학생들의 정치적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종화 (1991), “통일지향의 대학교육”, 대학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4.
- 박항호 외 (1982), “한국 청소년의 국가관 형성에 관한 연구”, 송공논문집, 1, 통일사상연구원.

- 서울대 교육연구소 (1989), 한국인의 이념성향에 관한 조사연구.
- 서창배 (1990), “사회 문화교류를 통한 한민족공동체 형성방안 모색 : 대학인의 통일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국토통일원, 대학생통일논문집.
- 성선정 (1990), “통일지향의 민족교육 모색”, 사학.
- 신순철 (1990), 통일에 대한 인식태도와 통일교육의 개선방향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상원 외 (1991), 통일교육정책의 방향에 관한 기초연구.
- 어수영·이남영 (1988), “한국 대학생 및 고교생들의 민주의식과 안보의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이념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2(2), 243-264.
- 유기호 (1982), “초등 교사의 반공의식에 관한 연구”, 공주교대논문집, 18, 9-21.
- 유기호 외 (1982), “반공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승공논문집, 1, 통일사상연구원, 341-391.
- 이기택 (1983), “분단극복과 청소년 : '80년대 국내 정치동향과 통일문제”, 한국청소년, 3, 21-30.
- 이명길 (1972), 지방 대학생의 승공생활 태도의 분석, 경상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상수 (1983), 청소년기의 통일안보교육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덕 (1990), “민족동질성 고양을 위한 교육의 과제”, 교육학연구, 28.
- 이우영·한점주 (1977), “통일안보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구조”, 통일정책, 3(3), 평화통일연구소, 19-43.
- 이종명 (1989),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성호 (1991), “통일에 관한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태도조사 연구”, 청년연구, 14, 129-166.

- 임인재 외 (1972),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분석, 국토통일원.
- 장경모 (1985), 청소년의 통일의식 조사연구 : 부산지방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대기 (1984), 통일안보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국민대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세구 (1983), “대학생 대상의 반공교육 개선방안연구”, 민족문화와 국민정신, 한
국정신문화연구원, 423-456.
- 정철희 (1985),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화 현상”, 통일한국, 24, 28-31.
- 조덕열 (1983), 청소년 안보의식 구조에 관한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봉래 (1977), “통일안보문제에 대한 청소년 지도의 문제점”, 통일정책, 3(3), 44-57.
- 조주태 (1977), “통일안보문제와 정신전력”, 통일정책, 3(3), 58-69.
- 조한승 (1977), 한국 고등학생의 국가관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차우규 (1990), 중고등학생들의 윤리관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최송범 (1977), “중·고등학생에 대한 통일안보교육(실습중심) : 통일안보관의 정립
을 위한 제언”, 통일정책, 3(3), 80-9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국민정신 교육 기본 지침서.
- 한상범 (1982), “현대사회와 청소년의 갈등 - 한국 사회에 있어 청년의 사회심리
와 문제점”, 공산권연구, 극동문제연구소.
- 허준혁 (1985), “통일문제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구조 연구”, 통일에 대한 대학생
의 의식변화, 단국대 중국연구소.
- 홍대식 외 (1976), 한국학생의 국가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홍성욱 (1985), 고등학생의 통일 안보의식 구조에 관한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성모 (1981), “한국에서의 사회민주주의 - 사회민주주의의 발전과정과 당면과
제”, 공산권연구, 극동문제연구소.

청소년 통일의식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연구원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1989년에 설립된 체육청소년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관한 기초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지향적인 남북한청소년의 교류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통일문제와 북한 그리고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청소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앞으로 추진될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귀중한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이질성을 극소화시키고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 제시해주신 여러분의 의견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솔직하게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2년 5월

한국청소년연구원

응답해 주실 때 꼭 지켜주십시오.

1. 설문지는 첫장부터 순서대로 차례차례 기입해 주십시오.
2. 이 설문지는 옳고 그른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읽으시고 난 후의 순간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그대로 기입해 주십시오.
3. 설문지에 기록하실 때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각 문항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응답항을 하나만 선택하여 그 번호에 V표를 해 주십시오.
4. 응답항이 ()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응답내용을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중 해당되는 항목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우리나라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____ 1) 매우 관심이 있다 ____ 2) 약간 관심이 있다
____ 3) 보통이다 ____ 4) 별로 관심이 없다
____ 5) 전혀 관심이 없다
2. 귀하는 친구나 가족 등 주위사람들과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나 대화를 하십니까?
____ 1) 자주 한다 ____ 2) 가끔 한다
____ 3) 보통이다 ____ 4) 별로 하지 않는다
____ 5) 전혀 하지 않는다
3. 귀하는 우리나라 통일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 1)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____ 2) 통일은 많은 혼란을 초래하므로 현재 이 상태가 좋다
____ 3) 현 상태에서 평화공존하는 것이 좋다
____ 4)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____ 5) 통일이 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상관없다

4. (3번 문항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신 분만 응답하십시오)

귀하는 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2개만 적어주십시오)

- | | |
|-------------------|---------------------|
| ___ 1)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 ___ 2) 같은 민족 |
| ___ 3) 공산당으로부터 해방 | ___ 4)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 |
| ___ 5) 경제발전 | ___ 6) 국제적 지위향상 |

5. 귀하는 누구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1) 남한의 주도하에 이루어야 한다
- ___ 2) 북한의 주도하에 이루어야 한다
- ___ 3) 남북한이 공동협력하여 이루어야 한다
- ___ 4) 남북한을 포함한 세계강대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___ 5) 세계강대국들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___ 6) 누가 하든 상관없다

6. 귀하는 통일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1) 시간이 걸려도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
- ___ 2) 전쟁을 해서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 ___ 3) 어떤 방법도 무방하다
- ___ 4) 잘 모르겠다

7. 귀하는 현재의 분단된 조국이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통일이라고 보십니까?

- ___ 1) 남북한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협력관계를 맺어 인적·물적 교류가 가능할 때
- ___ 2) 군사적 적대관계를 개선하고 평화공존을 할 때
- ___ 3) 남북한이 하나의 단일한 주권국가로서 민족·사회·문화적 공동체를 이룰 때
- ___ 4) 잘 모르겠다

8. 귀하는 통일을 이룩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만 적어주십시오)

- | | |
|--------------------------------|----------------------|
| ___ 1) 남북한의 이념 대립 | ___ 2)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관계 |
| ___ 3)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 | ___ 4)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
| ___ 5) 남북한간의 이질화 | ___ 6) 통일방법상의 차이 |
| ___ 7) 북한의 공산주의체제 고수 | ___ 8) 주한미군 주둔 |
| ___ 9)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 |
| ___ 10) 상호 통일의지 결여 및 실질적인 노력부족 | |

9. 귀하는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이 시급히 서둘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만 적어주십시오)

- | | |
|-------------------------|--------------------|
| ___ 1) 남북한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 | ___ 2) 남북한 상호교류 |
| ___ 3) 불가침선언(평화협정체결) | ___ 4) 북한의 자유화·개방화 |
| ___ 5) 주한미군 철수 및 보안법 철폐 | ___ 6) 강대국의 협조요청 |

10. 귀하는 통일후 국가는 어떤 체제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___ 1) 자유민주주의체제 | ___ 2) 공산주의체제 |
| ___ 3) 남북한 혼합절충체제 | ___ 4) 어느 체제도 무방 |

11. 귀하는 통일이 되고 난 후의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과 비교하여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___ 1) 매우 좋아질 것이다 | ___ 2) 점차 좋아질 것이다 |
| ___ 3)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 ___ 4) 매우 나빠질 것이다 |
| ___ 5) 예측하기가 힘들다 | |

12. 귀하는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십니까?

- | | |
|------------------------|---------------------|
| ___ 1)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 | ___ 2) 내용을 조금 알고 있다 |
| ___ 3) 들어 보았으나 내용은 모른다 | ___ 4) 전혀 들어 보지 못했다 |

13. 귀하는 북한이 내놓은 통일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십니까?

- _____ 1)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 _____ 2) 내용을 조금 알고 있다
_____ 3) 들어보았으나 내용은 모른다 _____ 4)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14. (12, 13번 두 문항에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신 분만 응답하십시오)

귀하는 남북한의 통일방안중 어느 안이 더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남한측 _____ 2) 북한측
_____ 3) 양측 모두 실현가능 _____ 4) 양측 모두 실현불가능

15. 귀하는 최근 「남북한 UN 동시가입」, 「남북합의서」, 「비핵화선언」 등 일련의 사태들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1) 매우 빠른 편이다 _____ 2) 약간 빠른 편이다
_____ 3) 적절한 편이다 _____ 4) 약간 늦은 편이다
_____ 5) 매우 늦은 편이다

16. 귀하는 현재의 국내외 정세로 보아 대략 언제쯤 통일이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_____ 1) 빠른 시일내에 가능할 것이다
_____ 2) 상당한 기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할 것이다
_____ 3) 가능성이 적다
_____ 4) 영원히 불가능하다
_____ 5) 잘 모르겠다

17. 귀하는 통일을 이루는데 주체가 되는 세대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나를 포함한 우리세대(청소년)
_____ 2) 기성세대
_____ 3) 미래세대
_____ 4) 모든 국민

18. 귀하는 통일문제 논의의 개방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1) 언제·어디서·누구나가 논의할 수 있도록 완전개방해야 한다
- _____ 2) 국익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방해야 한다
- _____ 3)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므로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
- _____ 4)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논의만 제한해야 한다

19. 귀하는 현재 사회 전반에서 일고 있는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불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기성세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젊은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 2)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 3) 실현가능성이 적고 너무 추상적이다
- 4) 남북한을 적대·대립관계로만 생각한다
- 5) 통일문제에 대한 견해가 너무 개별적이다

20. 귀하는 최근 일부 대학생들이 직접 북한 청소년들과 만나 통일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1) 매우 긍정적이다 . ___ 2) 약간 긍정적이다
___ 3) 약간 부정적이다 ___ 4) 매우 부정적이다

21. 귀하는 청소년들이 남북통일에 기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충분한 능력이 있다. ☐ 2) 다소 능력이 있다
☐ 3) 별로 능력이 없다 ☐ 4) 전혀 능력이 없다

22. 귀하는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매우 많이 알고 있다 _____ 2) 약간 많이 알고 있다
_____ 3) 보통이다 _____ 4) 약간 적게 알고 있다
_____ 5) 매우 적게 알고 있다

23. 귀하가 북한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주로 얻는 방법은 다음중 어느 것입니까? (2개만 적어주십시오)

- | | |
|--------------------|------------------|
| ___ 1) 신문·잡지 | ___ 2) TV·라디오 |
| ___ 3) 학교교육 | ___ 4) 각종 관련서적 |
| ___ 5) 부모, 형제 및 친척 | ___ 6) 친구·동아리 활동 |

24. 귀하는 자신이 접하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나 자료가 실제의 북한과 어느 정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___ 1) 실제의 북한과 같다 | ___ 2) 다소 실상과 다르다 |
| ___ 3) 전혀 실상과 다르다 | ___ 4) 잘 모르겠다 |

25. 귀하는 북한 영화가 상영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 |
|----------------|--------------------|
| ___ 1) 반드시 보겠다 | ___ 2) 가능한 보겠다 |
| ___ 3) 보지 않겠다 | ___ 4)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

26. 귀하가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경우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하나만 적어 주십시오.

(_____)

27. 귀하가 생각하기에 북한 사회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
|------------------------------------|
| ___ 1) 동일한 민족이 세운 다른 국가 |
| ___ 2) 자유가 없는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폐쇄국가 |
| ___ 3)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공산주의 적대국 |
| ___ 4) 주체사상의 자주국가 |
| ___ 5)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할 우리 민족의 영토 |
| ___ 6)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험벗고 굶주린 주변국가 |

28. 귀하는 남북한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___ 1) 남한이 더 앞선다 | ___ 2) 북한이 더 앞선다 |
| ___ 3) 남북한이 비슷하다 | ___ 4) 비교가 불가능하다 |

29. 귀하는 북한주민이나 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___ 1) 같은 민족 | ___ 2) 무서운 사람들 |
| ___ 3) 외국인 | ___ 4) 불쌍한 사람들 |
| ___ 5) 관심밖의 사람들 | |

30. 귀하는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들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 | | |
|------------------------|------------------------|
| ___ 1)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 ___ 2) 약간 친근하게 느껴진다 |
| ___ 3) 보통이다 | ___ 4) 별로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 |
| ___ 5) 전혀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 | |

31. 귀하는 지금 당장 외국에서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 | |
|----------------------------------|
| ___ 1) 동포로서 적극 환대하겠다 |
| ___ 2) 담담히 대하겠다 |
| ___ 3)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만 만나서 대화하겠다 |
| ___ 4) 대화를 피하겠다 |
| ___ 5) 만나 봐야 안다 |

32. 귀하는 북한과 다른나라가 경기를 하고 있다면 어느 팀을 응원하시겠습니까?

- | | |
|---------------------|---------------------|
| ___ 1) 북한을 응원하겠다 | ___ 2) 다른 나라를 응원하겠다 |
| ___ 3) 상황에 따라 응원하겠다 | ___ 4) 아무도 응원하지 않겠다 |

33. 귀하는 남북한간의 상호왕래가 허용되면 북한을 방문하고 싶으십니까?

- | | |
|----------------|-------------------|
| ___ 1) 방문하고 싶다 | ___ 2) 방문하고 싶지 않다 |
|----------------|-------------------|

34. 귀하는 북한에 대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_____)

35. 최근 남북한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됨에 따라 남북한간에 다양한 접촉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귀하는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1) 통일에 필요하니 이루어져야 한다
_____ 2) 통일과 상관없이 한 민족 한 형제이므로 이루어져야 한다
_____ 3)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_____ 4) 북한 대남전략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36. 귀하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1) 매우 높다
_____ 2) 약간 높다
_____ 3) 보통이다
_____ 4) 약간 낮다
_____ 5) 매우 낮다

37. 귀하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남북한 관계 개선 및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친다
_____ 2) 약간 좋은 영향을 미친다
_____ 3)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_____ 4) 약간 나쁜 영향을 미친다
_____ 5)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

38. 귀하는 앞으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이 전개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_____ 1) 반드시 참가하겠다
_____ 2) 가능한 참가하겠다
_____ 3) 참가하지 않겠다
_____ 4)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39. 귀하가 만약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에 참여한다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어느 것입니까?

- _____ 1) 유적지 및 명승지 답사
_____ 2) 체육활동
_____ 3) 음악·미술 등 예능활동
_____ 4) 국토순례대행진
_____ 5) 문예활동
_____ 6)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

〈중·고등학생 대상의 기초사항〉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___ 1) 남자

___ 2)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____)세

3. 귀하의 학력은?

___ 1) 중 1

___ 2) 중 2

___ 3) 중 3

___ 4) 인문계 고1

___ 5) 인문계 고2

___ 6) 인문계 고3

___ 7) 실업계 고1

___ 8) 실업계 고2

___ 9) 실업계 고3

4.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___ 1) 서울

___ 2)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___ 3) 중소도시

___ 4) 군 지역

5. 귀하의 생활정도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___ 1) 아주 잘사는 편이다

___ 2) 잘사는 편이다

___ 3) 보통이다

___ 4) 못사는 편이다

___ 5) 아주 못사는 편이다

6. 귀하의 가족중 고향이 북한인 분이 계십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대학생 대상의 기초사항〉

1. 귀하의 성별은?

___ 1) 남자

___ 2)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____)세

3. 귀하의 학력은?

___ 1) 대학교 1학년

___ 2) 대학교 2학년

___ 3) 대학교 3학년

___ 4) 대학교 4학년

___ 5) 대학교 5·6학년(의대)

4. 귀하의 전공은?

___ 1) 인문계

___ 2) 사회계

___ 3) 자연계

___ 4) 사범계

___ 5) 예·체능계

5. 귀하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십니까?

___ 1) 학생회 간부 또는 동아리 간부

___ 2) 동아리

___ 3) 학생회

___ 4) 일반 학생

6. 귀하의 생활정도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___ 1) 아주 잘사는 편이다(상층)

___ 2) 잘사는 편이다(중상층)

___ 3) 보통이다(중간층)

___ 4) 못사는 편이다(중하층)

___ 5) 아주 못사는 편이다(하층)

7. 귀하의 가족중 고향이 북한인 분이 계십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 성의껏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표 II-2-1〉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 귀하는 우리나라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위 : %)

배경요인	문항내용		매우 관심 있다	약간 관심 있다	보통이다	별로 관심 없다	전혀 관심 없다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전체			9.7	21.4	54.1	12.4	2.4	0.0	100.0	3802	
성별											
남자			14.0	26.1	41.7	10.7	7.5	0.0	100.0	1708	$X^2 = 125.09^{***}$
여자			6.3	17.7	53.4	13.8	8.8	0.0	100.0	2096	
학교급별											
중학교			7.1	15.8	60.7	13.8	2.7	0.0	100.0	1238	$X^2 = 160.80^{***}$
인문고			9.6	25.1	52.1	11.1	2.0	0.0	100.0	892	
실업고			6.5	17.8	58.2	14.6	2.8	0.0	100.0	814	
대학교			16.6	29.3	42.5	9.7	1.9	0.1	100.0	858	
거주지별											
서울			8.9	20.1	54.7	14.4	2.0	0.0	100.0	966	$X^2 = 35.78$
경기			9.8	19.3	55.2	12.1	3.4	0.2	100.0	471	
강원			14.0	18.5	52.2	12.7	2.5	0.0	100.0	157	
충청			10.7	21.5	55.6	10.1	2.1	0.0	100.0	466	
영남			9.3	21.7	52.9	13.3	2.8	0.0	100.0	1082	
호남			8.9	26.3	54.9	8.4	1.5	0.0	100.0	537	
제주			13.0	20.3	48.0	16.3	2.4	0.0	100.0	123	
지역규모별											
서울			9.4	20.8	52.9	14.4	2.4	0.1	100.0	1104	$X^2 = 16.35$
직할시			9.7	21.8	55.1	11.3	2.1	0.0	100.0	1164	
중소도시			11.1	22.2	52.3	12.3	2.1	0.0	100.0	1008	
군지역			7.6	20.3	57.6	11.0	3.4	0.0	100.0	526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10.2	16.3	55.1	10.2	8.2	0.0	100.0	49	$X^2 = 40.85^{***}$
잘산다			11.5	21.1	53.7	11.0	2.7	0.0	100.0	374	
보통이다			9.2	21.2	55.2	12.5	1.9	0.0	100.0	3090	
못산다			13.0	26.5	41.6	13.4	5.5	0.0	100.0	238	
아주못산다			11.8	19.6	45.1	17.6	5.9	0.0	100.0	51	
실향민여부별											
있다			14.6	24.5	48.7	9.2	3.1	0.0	100.0	261	$X^2 = 12.47^*$
없다			9.3	21.2	54.4	12.7	2.3	0.0	100.0	3541	

주) 본 연구의 청소년 통일의식조사 설문결과의 유의도 수준은 $P < .05 = *$, $P < .01 = **$, $P < .001 = ***$ 로 표기하기로 한다.

○ 귀하는 친구나 가족 등 주위사람들과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나 대화를 하십니까?

(단위 : %)

문항내용 배경요인	별로 하지 전혀 하지 않는다 않는다					무응답	계	사례수	비 고
	자주한다	가끔한다	보통이다	별로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				
전 체	1.2	7.0	30.3	50.9	10.6	0.1	100.0	3802	
성 별									
남 자	1.9	8.5	31.5	47.1	11.0	0.0	100.0	1706	$X^2 = 35.77^{***}$
여 자	0.6	5.8	29.3	54.1	10.2	0.1	100.0	2096	
학 교 급 별									
중 학 교	1.2	6.1	26.6	52.8	13.2	0.0	100.0	1238	$X^2 = 102.97^{***}$
인 문 고	0.8	7.3	29.4	52.4	10.0	0.2	100.0	892	
실 업 고	0.7	3.3	31.8	51.5	12.7	0.0	100.0	814	
대 학 교	1.9	11.4	35.2	46.2	5.4	0.0	100.0	858	
거 주 지 별									
서 울	0.6	6.9	29.2	51.9	11.4	0.0	100.0	966	$X^2 = 60.89^{***}$
경 기	1.3	6.2	29.5	51.2	11.9	0.0	100.0	471	
강 원	5.7	7.0	21.0	57.3	8.9	0.0	100.0	157	
충 청	1.5	7.5	32.2	48.3	10.5	0.0	100.0	466	
영 남	0.7	7.1	30.2	50.8	11.0	0.1	100.0	1082	
호 남	1.3	8.0	34.1	49.0	7.4	0.2	100.0	537	
제 조	0.8	3.3	30.9	53.7	11.4	0.0	100.0	123	
지 역 규모 별									
서 울	1.3	7.0	29.3	51.4	11.0	0.0	100.0	1104	$X^2 = 8.91$
직 할 시	1.4	7.5	29.3	50.9	10.7	0.2	100.0	1164	
중 소 도시	1.2	6.4	32.0	50.3	10.0	0.0	100.0	1008	
군 지 역	0.4	7.0	31.2	51.0	10.5	0.0	100.0	526	
생 활 수 준 별									
아주 잘 산 다	0.0	8.2	38.8	34.7	18.4	0.0	100.0	49	$X^2 = 44.12^{**}$
잘 산 다	1.1	9.9	29.9	48.7	10.4	0.0	100.0	374	
보 통 이 다	1.1	6.6	30.1	52.1	10.1	0.0	100.0	3090	
못 산 다	1.7	8.0	34.5	42.0	13.4	0.4	100.0	238	
아주 못 산 다	2.0	3.9	19.6	52.9	19.6	2.0	100.0	51	
실 향 민 여 부 별									
있 다	3.1	11.9	35.2	41.4	8.0	0.4	100.0	261	$X^2 = 27.49^{***}$
없 다	1.0	6.6	29.9	51.6	10.8	0.0	100.0	3541	

〈표 II-2-3〉

통일의 의지

○ 귀하는 우리나라 통일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문항내용 배경요인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재상태가 좋다	현상태에서 평화공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없다	상관없다	무응답	계	사례수	비 고	
전 체	39.4	9.4	20.5	21.5	8.7	0.4	100.0	3802		
성 별										
남 자	46.6	7.1	16.4	20.9	8.7	0.4	100.0	1706	$X^2 = 86.23^{***}$	
여 자	33.5	11.4	24.0	21.9	8.6	0.5	100.0	2096		
학 교 급 별										
중 학 교	42.2	10.0	20.5	17.5	9.3	0.5	100.0	1238	$X^2 = 171.82^{***}$	
인 문 고	35.4	8.4	19.2	25.9	10.7	0.4	100.0	892		
실 업 고	31.8	16.0	26.2	19.2	6.4	0.5	100.0	814		
대 학 교	46.7	3.5	16.7	24.7	8.0	0.3	100.0	858		
거 주 지 별										
서 울	36.3	11.1	21.6	22.9	7.3	0.7	100.0	966	$X^2 = 63.22^{***}$	
경 기	37.2	10.8	17.8	23.6	9.8	0.8	100.0	471		
강 원	40.1	12.7	21.7	17.2	8.3	0.0	100.0	157		
충 청	39.5	11.6	18.2	19.5	11.0	0.2	100.0	466		
영 남	39.9	8.5	21.4	21.0	8.8	0.4	100.0	1082		
호 남	45.3	5.6	20.1	20.5	8.4	0.2	100.0	537		
제 주	40.7	4.1	23.6	23.6	8.1	0.0	100.0	123		
지 역 규 모 별										
서 울	36.0	10.3	21.7	23.6	7.7	0.6	100.0	1104	$X^2 = 40.27^{***}$	
직 할 시	42.4	8.4	20.8	21.0	7.3	0.0	100.0	1164		
중 소 도시	38.3	8.9	19.8	21.2	11.1	0.6	100.0	1008		
군 지 역	42.0	10.8	18.8	18.3	9.3	0.8	100.0	526		
생 활 수 준 별										
아주 잘 산 다	36.7	2.0	16.3	30.6	14.3	0.0	100.0	49	$X^2 = 46.18^{***}$	
잘 산 다	38.0	10.2	23.5	20.6	7.5	0.3	100.0	374		
보 통 이 다	39.2	9.4	20.8	21.5	8.6	0.5	100.0	3090		
못 산 다	45.8	9.7	16.0	20.6	8.0	0.0	100.0	238		
아주 못 산 다	35.3	11.8	9.8	29.4	13.7	0.0	100.0	51		
실 향 민 여 부 별										
있 다	47.9	6.9	14.2	21.8	8.4	0.8	100.0	261	$X^2 = 14.82^*$	
없 다	38.8	9.6	21.0	21.4	8.7	0.4	100.0	3541		

○ (3번 문항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신 분만 응답하십시오)

귀하는 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2개만 적어주십시오)

(단위 : %)

문항내용 배경요인	이산가족 고통해소	같은 민족	공산당으로 부터 해방	전쟁중포로 부터 해방	경제발전	국제적 지위향상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전체	20.0	33.5	6.3	8.5	19.6	10.7	1.4	100.0	2831	
성별										
남자	17.0	35.6	3.8	7.7	20.8	13.1	2.0	100.0	1475	$X^2 = 45.43^{***}$
여자	23.2	31.1	9.1	9.4	18.2	8.2	0.8	100.0	1356	
학교급별										
중학교	27.2	24.7	9.6	10.3	21.2	6.4	0.6	100.0	1047	$X^2 = 192.73^{***}$
인문고	13.8	35.5	4.8	7.5	22.1	14.8	1.7	100.0	589	
실업고	19.2	30.2	7.2	11.0	20.7	8.9	2.9	100.0	484	
대학교	15.0	46.8	2.3	5.1	14.3	15.0	1.4	100.0	711	
거주지별										
서울	17.1	33.6	4.3	9.3	21.6	12.7	1.4	100.0	645	$X^2 = 56.60$
경기	18.9	32.9	7.5	6.8	20.8	11.8	1.2	100.0	322	
강원	24.1	23.3	6.9	14.7	19.0	9.5	2.6	100.0	116	
충청	20.3	34.9	7.8	7.3	20.1	8.4	1.2	100.0	344	
영남	21.7	30.9	7.0	8.1	20.6	10.1	1.6	100.0	863	
호남	19.5	40.4	5.4	9.6	13.7	10.1	1.3	100.0	446	
제주	24.2	31.6	8.4	4.2	18.9	12.6	0.0	100.0	95	
지역규모별										
서울	16.4	34.4	4.5	9.5	20.1	13.3	1.8	100.0	727	$X^2 = 47.91^{***}$
직할시	20.0	34.8	5.3	7.1	19.4	12.3	1.2	100.0	914	
중소도시	21.5	33.6	5.9	9.4	19.3	8.9	1.5	100.0	727	
군지역	23.3	29.2	11.9	8.4	19.7	6.5	1.1	100.0	463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16.1	35.5	12.9	12.9	12.9	9.7	0.0	100.0	31	$X^2 = 42.25^*$
잘산다	18.1	30.1	7.2	9.2	20.9	13.3	1.2	100.0	249	
보통이다	20.4	33.5	6.2	8.5	19.6	10.5	1.3	100.0	2318	
못산다	18.4	35.8	6.0	7.5	19.4	10.0	3.0	100.0	201	
아주못산다	21.9	37.5	6.3	9.4	12.5	12.5	0.0	100.0	32	
실향민여부별										
있다	24.8	32.5	6.8	8.5	16.2	10.3	0.9	100.0	234	$X^2 = 6.50^*$
없다	19.6	33.5	6.3	8.5	19.9	10.8	1.4	100.0	2597	

○ 귀하는 현재의 국내외 정세로 보아 대략 언제쯤 통일이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단위 : %)

문항내용 배경요인	빠른시일내 가능하다	상당기간 경과후 가능하다	가능성이 적다	영원히 불가능하다	잘모르겠다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전체	13.6	58.5	17.7	1.9	8.2	0.1	100.0	3802	
성별									
남자	15.9	59.4	15.8	1.3	7.5	0.1	100.0	1706	$X^2=25.31^{***}$
여자	11.8	57.7	19.2	2.3	8.8	0.1	100.0	2096	
학교급별									
중학교	17.4	57.1	14.4	2.3	8.7	0.1	100.0	1238	$X^2=86.29^{***}$
인문고	13.1	58.0	19.3	1.3	8.3	0.0	100.0	892	
실업고	9.1	54.8	25.1	2.8	8.2	0.0	100.0	814	
대학교	13.1	64.6	13.8	0.9	7.5	0.2	100.0	858	
거주지별									
서울	13.1	57.1	20.6	2.1	7.0	0.0	100.0	966	$X^2=38.95^*$
경기	14.0	61.8	13.0	3.4	7.9	0.0	100.0	471	
강원	15.6	50.3	23.9	1.3	8.9	0.0	100.0	157	
충청	13.1	57.3	18.5	1.3	9.9	0.0	100.0	466	
영남	14.2	59.1	16.5	2.1	7.9	0.1	100.0	1082	
호남	11.9	60.1	17.1	0.6	9.9	0.4	100.0	537	
제주	16.3	58.5	15.4	1.6	8.1	0.0	100.0	123	
지역규모별									
서울	12.3	58.2	19.7	2.2	7.7	0.0	100.0	1104	$X^2=25.77^*$
직할시	13.2	58.9	18.9	1.5	7.4	0.1	100.0	1164	
중소도시	16.0	58.8	15.1	1.5	8.5	0.1	100.0	1008	
군지역	12.7	57.6	15.8	3.0	10.6	0.2	100.0	526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14.3	44.9	18.4	4.1	18.4	0.0	100.0	49	$X^2=42.93^{**}$
잘산다	13.9	61.8	16.8	1.1	6.1	0.3	100.0	374	
보통이다	13.6	58.4	17.7	2.0	8.2	0.0	100.0	3090	
못산다	15.1	59.2	18.5	0.8	5.9	0.4	100.0	238	
아주못산다	5.9	47.1	15.7	5.9	25.5	0.0	100.0	51	
실향민여부별									
있다	19.9	60.5	13.0	0.8	5.7	0.0	100.0	261	$X^2=15.76^{**}$
없다	13.2	58.3	18.0	2.0	8.4	0.1	100.0	3541	

○ 귀하는 누구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문항내용		남한	북한	남 북 한	남북한과	세계강대국	상관	무응답	계	사례수	비 고
배경요인		주도	주도	공동협력	세계강대국	협상	없다				
전	체	7.0	0.4	87.8	1.9	0.7	1.8	0.3	100.0	3802	
성	별										
남	자	8.7	0.5	85.8	1.8	0.6	2.2	0.3	100.0	1706	X ² =19.02**
여	자	5.6	0.4	89.5	2.0	0.8	1.5	0.2	100.0	2096	
학	교										
중	학	5.7	0.5	88.4	1.8	1.1	2.3	0.2	100.0	1238	X ² =95.20***
인	문	10.3	0.6	86.3	1.3	0.2	1.0	0.2	100.0	892	
실	업	9.1	0.5	82.7	4.2	2.2	2.2	0.1	100.0	814	
대	학	3.6	0.2	93.4	0.5	0.3	1.5	0.5	100.0	858	
거	주										
서	울	8.8	0.3	86.4	1.8	0.8	1.9	0.0	100.0	966	X ² =44.61
경	기	7.2	0.4	86.6	1.9	0.6	3.0	0.2	100.0	471	
강	원	11.5	0.0	84.1	3.2	0.0	1.3	0.0	100.0	157	
충	청	6.0	0.6	89.1	1.3	0.4	2.6	0.0	100.0	466	
영	남	6.1	0.7	87.9	2.1	1.0	1.8	0.4	100.0	1082	
호	남	5.2	0.2	91.1	1.7	0.4	0.6	0.9	100.0	537	
제	주	6.5	0.0	88.6	2.4	1.6	0.8	0.0	100.0	123	
지	역										
서	울	8.7	0.3	86.6	1.5	0.6	2.3	0.0	100.0	1104	X ² =23.18
직	할	6.3	0.8	88.1	2.1	0.8	1.6	0.3	100.0	1164	
중	소	7.0	0.3	88.8	1.6	0.5	1.6	0.2	100.0	1008	
군	지	5.1	0.4	88.0	2.7	1.3	1.7	0.8	100.0	526	
생	활										
아	주	14.3	2.0	67.3	2.0	0.0	12.2	2.0	100.0	49	X ² =94.02***
잘	산	10.7	0.5	82.6	1.9	1.1	3.2	0.0	100.0	374	
보	통	6.3	0.4	89.1	1.8	0.6	1.4	0.3	100.0	3090	
못	산	8.4	0.4	86.6	2.5	1.3	0.8	0.0	100.0	238	
아	주	7.8	0.0	72.5	3.9	2.0	11.8	2.0	100.0	51	
실	향										
있	다	10.7	0.0	83.5	1.9	0.8	2.3	0.8	100.0	261	X ² = 7.79
없	다	6.7	0.5	88.1	1.9	0.7	1.8	0.2	100.0	3541	

〈표 II-2-7〉

통일의 방법

○ 귀하는 통일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문항내용 배경요인		평화적인 통일	전쟁을 해 서라도 빨리	어떤 방법도 무방하다	잘모르겠다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전	체	91.8	1.8	1.7	4.5	0.2	100.0	3802	
성	별								
남	자	89.3	3.3	2.6	4.5	0.2	100.0	1706	$X^2=57.14^{***}$
여	자	93.8	0.5	1.0	4.4	0.2	100.0	2096	
학	교								
중	학	91.4	1.5	1.4	5.6	0.2	100.0	1238	$X^2=17.25^*$
인	문	91.1	1.9	2.2	4.6	0.1	100.0	892	
실	업	91.0	2.6	1.7	4.5	0.1	100.0	814	
대	학	93.7	1.3	1.7	2.7	0.6	100.0	858	
거	주								
서	울	91.4	1.4	2.2	4.9	0.1	100.0	966	$X^2=32.96^*$
경	기	93.6	0.8	0.2	5.1	0.2	100.0	471	
강	원	90.4	1.9	2.5	5.1	0.0	100.0	157	
충	청	90.3	3.9	1.1	4.7	0.0	100.0	466	
영	남	91.7	1.8	1.8	4.5	0.3	100.0	1082	
호	남	92.7	1.5	2.0	3.0	0.7	100.0	537	
제	주	91.9	0.8	4.1	3.3	0.0	100.0	123	
지	역								
서	울	91.6	1.3	2.0	5.2	0.0	100.0	1104	$X^2=11.82$
직	할	92.1	1.8	2.0	3.9	0.3	100.0	1164	
중	소	92.5	2.2	1.4	3.6	0.4	100.0	1008	
군	지	90.3	1.9	1.3	6.1	0.4	100.0	526	
생	활								
아	주	79.6	0.0	2.0	16.3	2.0	100.0	49	$X^2=56.10^{***}$
잘	산	88.8	3.2	3.2	4.8	0.0	100.0	374	
보	통	92.8	1.5	1.5	4.0	0.3	100.0	3090	
못	산	89.5	2.9	1.7	5.9	0.0	100.0	238	
아	주	74.5	5.9	5.9	13.7	0.0	100.0		
실	향								
있	다	90.8	1.1	2.7	5.0	0.4	100.0	261	$X^2= 2.24$
없	다	91.9	1.8	1.7	4.4	0.2	100.0	3541	

<표 II-2-8>

통일의 장애요인

○ 귀하는 통일을 이룩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만 적어주십시오)

(단위 : %)

문항내용		남북한 이념대립	남북지도층 이해관계	남북한 군사적대립	남북한 경제력차이	남북한간 이질화	통일방법상 차이	북한공산 체제고수
배경요인	전체	20.2	11.0	4.9	7.8	13.5	9.6	13.0
성별	남자	18.9	12.9	5.7	6.6	13.8	8.6	11.8
	여자	21.3	9.4	4.2	8.8	13.3	10.5	13.9
학교급별	중학교	15.3	9.6	6.0	11.0	10.9	12.6	17.4
	인문고	22.9	9.3	3.5	6.7	17.4	8.5	12.2
	실업고	22.9	8.1	6.1	8.5	12.1	10.0	14.5
	대학교	22.1	17.4	3.5	3.5	14.6	6.1	5.6
거주지별	서울	20.3	11.3	4.9	7.7	13.6	9.0	12.6
	경기	20.2	11.5	5.1	8.9	12.6	10.4	13.8
	강원	20.8	7.5	8.1	9.4	15.3	10.7	11.4
	충청	19.5	11.0	4.6	7.7	11.5	9.9	16.6
	영남	20.8	9.7	4.7	8.8	14.8	10.2	12.3
	호남	19.9	13.5	4.1	5.0	12.6	8.2	10.8
	제주	18.8	10.2	4.5	6.5	13.5	10.6	15.9
지역규모별	서울	20.6	13.8	4.6	7.2	13.5	8.2	11.4
	직할시	19.3	11.4	5.2	7.5	14.1	9.4	12.5
	중소도시	20.5	9.8	4.7	8.2	13.1	10.3	13.9
	군지역	21.1	5.8	5.0	9.0	12.9	12.0	15.5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22.6	3.2	9.7	8.6	8.6	7.5	9.7
	잘산다	18.3	11.0	5.1	8.9	11.9	9.8	14.6
	보통이다	20.5	10.9	4.7	7.9	13.8	9.8	13.0
	못산다	19.0	12.6	5.2	4.8	14.7	8.9	10.8
	아주못산다	21.0	16.0	6.0	6.0	8.0	4.0	13.0
실향민여부별	있다	20.0	11.0	5.9	6.7	14.1	8.6	13.5
	없다	20.3	11.0	4.8	7.9	13.5	9.7	12.9

(단위 : %)

문항내용 배경요인	주한미군 주둔	주변강대국 이해관계	상호 통일 의지와 노력 부족	무응답	계	사례수	비 고
전 체	2.3	6.7	10.0	1.1	100.0	7474	
성 별							
남 자	2.6	8.1	9.8	1.3	100.0	3360	$X^2 = 43.84^{***}$
여 자	2.1	5.5	10.2	0.8	100.0	4114	
학 교 급 별							
중 학 교	1.6	4.3	9.9	1.4	100.0	2448	$X^2 = 327.31^{***}$
인 문 고	2.0	6.1	10.4	0.9	100.0	1757	
실 업 고	2.3	5.2	9.2	1.0	100.0	1597	
대 학 교	3.6	12.1	10.6	0.8	100.0	1672	
거 주 지 별							
서 울	3.1	7.1	9.9	0.6	100.0	1920	$X^2 = 64.13$
경 기	1.6	5.3	8.9	1.4	100.0	919	
강 원	1.6	5.2	6.8	2.2	100.0	308	
충 청	1.6	7.3	9.4	0.9	100.0	919	
영 남	1.2	6.1	10.1	1.3	100.0	2113	
호 남	4.7	8.4	12.0	0.9	100.0	1050	
제 주	1.2	5.7	12.7	0.4	100.0	245	
지 역 규 모 별							
서 울	3.0	7.4	9.6	0.7	100.0	2237	$X^2 = 28.51$
직 할 시	2.3	6.5	10.7	1.0	100.0	2288	
중 소 도시	2.1	6.3	9.7	1.5	100.0	1973	
군 지 역	1.3	6.1	10.1	1.0	100.0	976	
생 활 수 준 별							
아주 잘 산 다	4.3	5.4	16.1	4.3	100.0	93	$X^2 = 53.84^{**}$
잘 산 다	2.3	7.0	9.6	1.3	100.0	738	
보 통 이 다	2.1	6.6	9.9	0.9	100.0	6081	
못 산 다	4.5	7.6	11.0	0.9	100.0	462	
아주 못 산 다	4.0	7.0	12.0	3.0	100.0	100	
실 향 민 여 부 별							
있 다	2.9	6.5	9.2	1.6	100.0	510	$X^2 = 10.81$
없 다	2.3	6.7	10.1	1.0	100.0	6964	

○ 귀하는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이 시급히 서둘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만 적어주십시오)

(단위 : %)

문항내용		남북한 상호이해 신뢰구축	남북한 상호교류	불가침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한의 자유화 개방화	주한미군 철수 및 보안법철폐	강대국의 협조요청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배경요인	전체	28.9	31.2	8.7	24.8	4.3	1.0	1.0	100.0	7463	
성별	남자	28.3	32.3	8.5	24.1	4.7	1.0	1.2	100.0	3356	$X^2=6.45$
	여자	29.3	30.3	8.9	25.4	4.1	0.9	0.9	100.0	4107	
학교급별	중학교	26.9	24.9	10.9	30.8	3.5	1.4	1.4	100.0	2423	
	인문고	29.6	36.0	7.0	23.6	2.7	0.3	0.8	100.0	1769	$X^2=115.13^{***}$
	실업고	26.7	28.8	10.1	29.2	3.0	0.9	1.2	100.0	1602	
	대학교	33.0	37.7	6.1	13.2	8.6	1.0	0.6	100.0	1669	
거주지별	서울	28.5	31.5	9.7	23.6	4.8	1.3	0.7	100.0	1928	
	경기	28.2	28.4	11.1	25.7	4.1	0.9	1.6	100.0	919	
	강원	28.0	33.1	8.0	23.2	2.2	2.2	3.2	100.0	314	$X^2=53.65^*$
	충청	30.1	30.2	7.5	26.8	3.2	1.4	0.8	100.0	917	
	영남	29.9	32.2	8.2	25.1	2.7	0.7	1.3	100.0	2109	
	호남	28.4	31.6	7.1	22.8	9.1	0.3	0.7	100.0	1031	
	제주	24.5	30.6	9.4	31.8	2.9	0.8	0.0	100.0	245	
지역규모별	서울	29.5	32.0	9.4	22.8	4.8	0.9	0.6	100.0	2168	
	직할시	28.6	30.8	8.8	25.2	4.2	1.2	1.1	100.0	2298	$X^2=14.18$
	중소도시	28.6	31.8	8.2	25.1	4.2	0.9	1.2	100.0	1980	
	군지역	28.7	29.3	8.4	27.6	3.9	0.7	1.4	100.0	1017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30.1	22.6	5.4	24.7	7.5	8.6	1.2	100.0	93	
	잘산다	27.1	29.6	8.8	25.9	5.4	1.2	1.9	100.0	737	$X^2=122.20^{***}$
	보통이다	29.3	31.5	8.8	24.9	3.9	0.8	0.9	100.0	6065	
	못산다	26.9	30.8	8.8	22.9	7.9	1.1	1.7	100.0	468	
	아주못산다	24.0	37.0	10.0	21.0	4.0	3.0	1.0	100.0	100	
성향민여부별	있다	29.6	32.9	7.8	23.2	4.3	1.4	1.0	100.0	514	$X^2=3.50$
	없다	28.8	31.1	8.8	25.0	4.3	0.9	1.0	100.0	6949	

○ 귀하는 현재의 분단된 조국이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통일이라고 보십니까?

(단위 : %)

문항내용 배경요인	상호교류 가능할때	평화공존 할때	단일주권 국가일때	잘모르 겠다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전체	19.0	14.3	62.3	4.0	0.3	100.0	3802	
성별								
남자	19.6	13.5	62.8	3.8	0.2	100.0	1706	$X^2=4.37$
여자	18.5	15.0	61.9	4.2	0.4	100.0	2096	
학교급별								
중학교	18.2	15.6	58.2	7.4	0.6	100.0	1238	$X^2=93.51^{***}$
인문고	14.3	13.7	69.2	2.7	0.1	100.0	892	
실업고	21.5	15.4	59.6	3.2	0.4	100.0	814	
대학교	22.6	12.2	63.8	1.4	0.0	100.0	858	
거주지별								
서울	17.6	15.6	63.0	3.5	0.2	100.0	966	$X^2=29.49$
경기	19.5	12.7	63.9	3.8	0.0	100.0	471	
강원	20.4	17.8	56.7	5.1	0.0	100.0	157	
충청	20.6	17.0	57.3	5.2	0.0	100.0	466	
영남	17.7	14.0	62.8	4.5	0.8	100.0	1082	
호남	22.2	11.0	63.9	2.8	0.2	100.0	537	
제주	17.1	13.0	65.9	4.1	0.0	100.0	123	
지역규모별								
서울	19.7	15.1	61.8	3.3	0.2	100.0	1104	$X^2=40.38^{***}$
직할시	19.4	15.2	61.8	3.4	0.2	100.0	1164	
중소도시	18.0	13.0	65.3	3.6	0.2	100.0	1008	
군지역	18.0	13.3	59.1	7.8	0.1	100.0	526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18.4	18.4	55.0	12.2	0.0	100.0	49	$X^2=33.45^*$
잘산다	19.3	16.8	59.9	3.5	0.5	100.0	374	
보통이다	18.8	14.4	62.7	3.8	0.3	100.0	3090	
못산다	21.0	8.4	66.0	4.6	0.0	100.0	238	
아주못산다	21.6	13.7	51.0	13.7	0.0	100.0	51	
실향민여부별								
있다	19.2	16.5	60.2	4.2	0.0	100.0	261	$X^2=1.28$
없다	19.0	14.2	62.5	4.0	0.0	100.0	3541	

<표 II-2-11>

통일국가의 체제

○ 귀하는 통일후 국가는 어떤 체제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문항내용		자유민주주의체제	공산주의체제	남북한혼합절충체제	어느체제도무방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전체	체	79.6	0.7	16.3	3.1	0.3	100.0	3802	
성별	별								
남자	자	74.2	0.6	20.3	4.7	0.2	100.0	1706	$X^2=67.50^{***}$
여자	자	84.0	0.7	13.2	1.8	0.3	100.0	2096	
학교급별	별								
중학교	교	87.6	1.0	8.7	2.5	0.2	100.0	1238	$X^2=231.96^{***}$
인문고	고	79.0	0.2	16.8	3.8	0.1	100.0	892	
실업고	고	84.9	0.2	11.3	3.2	0.4	100.0	814	
대학교	교	63.8	1.0	31.6	3.1	0.5	100.0	858	
거주지별	별								
서울	울	78.2	0.3	18.8	2.6	0.2	100.0	966	$X^2=29.90$
경기	기	82.6	0.8	12.7	3.6	0.2	100.0	471	
강원	원	82.2	0.0	13.3	4.5	0.0	100.0	157	
충청	청	83.9	0.4	13.5	2.1	0.0	100.0	466	
영남	남	77.9	1.0	17.0	3.5	0.6	100.0	1082	
호남	남	79.0	0.7	17.0	3.0	0.4	100.0	537	
제주	주	78.0	0.8	17.1	4.1	0.0	100.0	123	
지역규모별	별								
서울	울	77.4	0.5	19.4	2.6	0.2	100.0	1104	$X^2=20.90$
직할시	시	78.4	0.7	17.2	3.6	0.2	100.0	1164	
중소도시	시	81.8	0.8	13.6	3.3	0.5	100.0	1008	
군지역	역	82.9	0.8	13.4	2.7	0.4	100.0	526	
생활수준별	별								
아주잘산다	다	61.2	2.0	22.4	14.3	0.0	100.0	49	$X^2=64.29^{***}$
잘산다	다	77.0	0.8	18.1	4.0	0.0	100.0	374	
보통이다	다	81.1	0.6	15.4	2.7	0.3	100.0	3090	
못산다	다	71.0	1.7	22.7	3.8	0.8	100.0	238	
아주못산다	다	66.7	0.0	13.6	9.8	0.0	100.0	51	
실태인여부별	별								
있다	다	77.0	0.0	17.6	5.4	0.0	100.0	261	$X^2=7.14$
없다	다	79.8	0.7	16.2	2.9	0.3	100.0	3541	

○ 귀하는 통일이 되고 난 후의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과 비교하여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문항내용		매우 좋아질 것이다		점차 좋아질 것이다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매우 나빠질 것이다		예측하기가 힘들다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배경요인	체	10.1	64.7	2.9	10.2	11.9	0.2	100.0	3802						
성	별														
남	자	12.4	65.7	2.6	9.0	10.4	0.2	100.0	1706	X ² =24.89***					
여	자	8.4	64.0	3.1	11.2	13.1	0.1	100.0	2096						
학 교 급 별															
중 학 교		14.7	61.2	2.4	10.4	11.0	0.2	100.0	1238	X ² =130.94***					
인 문 고		4.7	70.6	2.0	11.1	11.4	0.1	100.0	892						
실 업 고		6.1	60.1	4.3	13.5	15.7	0.2	100.0	814						
대 학 교		12.9	68.2	3.1	5.8	9.9	0.0	100.0	858						
거 주 지 별															
서 울		9.7	63.1	3.7	12.4	10.9	0.1	100.0	966	X ² =62.90***					
경 기		9.8	64.5	3.2	10.4	11.9	0.2	100.0	471						
강 원		13.4	60.5	1.3	14.6	10.2	0.0	100.0	157						
충 청		16.1	61.2	2.4	9.4	10.9	0.0	100.0	466						
영 남		7.9	65.0	2.6	9.8	14.4	0.3	100.0	1082						
호 남		10.1	70.6	3.2	6.0	10.1	0.2	100.0	537						
제 주		7.3	69.9	0.8	11.4	10.6	0.0	100.0	123						
지 역 규 모 별															
서 울		10.7	63.0	3.8	11.8	10.5	0.1	100.0	1104	X ² =25.37*					
직 할 시		8.5	67.8	2.8	9.0	11.8	0.1	100.0	1164						
중 소 도 시		10.8	64.9	2.1	10.4	11.6	0.2	100.0	1008						
군 지 역		11.2	61.2	2.7	9.4	15.4	0.4	100.0	526						
생 활 수 준 별															
아주 잘 산 다		18.4	46.9	2.0	16.3	16.3	0.0	100.0	49	X ² =21.46					
잘 산 다		10.4	64.7	3.2	11.8	9.9	0.0	100.0	374						
보 통 이 다		9.7	65.4	2.8	10.0	11.8	0.2	100.0	3090						
못 산 다		13.4	62.6	2.9	8.0	13.0	0.0	100.0	238						
아주 못 산 다		7.8	52.9	3.9	17.6	17.6	0.0	100.0	51						
실 향 민 여 부 별															
있 다		13.0	69.0	1.9	10.7	5.4	0.0	100.0	261	X ² =14.05**					
없 다		9.9	64.4	3.0	10.2	12.3	0.2	100.0	3541						

○ 귀하는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십니까?

(단위 : %)

문항내용	정확히 알고있다	조금 알고있다	몰랐으나 내용은 모른다	전혀몰랐지 못했다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배경요인								
전체	3.4	39.4	47.9	8.9	0.4	100.0	3802	
성별								
남자	4.6	40.0	44.9	9.8	0.6	100.0	1706	$X^2=26.17^{***}$
여자	2.3	38.9	50.3	8.2	0.3	100.0	2096	
학교급별								
중학교	2.6	31.8	46.0	19.1	0.5	100.0	1238	$X^2=408.78^{***}$
인문고	3.8	47.4	46.2	2.4	0.2	100.0	892	
실업고	1.2	28.4	63.0	6.5	0.9	100.0	814	
대학교	6.1	52.4	37.9	3.4	0.2	100.0	858	
거주지별								
서울	3.2	39.8	49.4	7.6	0.1	100.0	966	$X^2=143.65^{***}$
경기	2.3	31.4	50.7	15.3	0.2	100.0	471	
강원	8.3	51.6	38.9	1.3	0.0	100.0	157	
충청	1.9	29.8	54.5	13.3	0.4	100.0	466	
영남	3.5	45.2	45.5	5.1	0.7	100.0	1082	
호남	4.5	38.2	46.6	9.9	0.9	100.0	537	
제주	1.6	42.3	38.2	17.9	0.0	100.0	123	
지역규모별								
서울	3.5	39.9	48.6	7.8	0.1	100.0	1104	$X^2=19.51$
직할시	3.0	38.0	50.3	8.3	0.3	100.0	1164	
중소도시	3.9	40.0	45.9	9.2	0.6	100.0	1008	
군지역	2.9	39.5	44.5	12.0	0.1	100.0	526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8.2	34.7	34.7	20.4	2.0	100.0	49	$X^2=31.75^*$
잘산다	5.1	40.9	45.2	8.8	0.0	100.0	374	
보통이다	3.0	39.4	48.5	8.6	0.4	100.0	3090	
못산다	4.2	35.3	50.0	9.2	1.3	100.0	238	
아주못산다	3.9	49.0	33.3	13.7	0.0	100.0	51	
실향민여부별								
있다	6.5	42.1	44.4	6.9	0.0	100.0	261	$X^2=10.85$
없다	3.1	39.2	48.1	9.1	0.5	100.0	3541	

〈표 II-2-14〉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인지도

○ 귀하는 북한이 내놓은 통일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십니까?

(단위 : %)

문항내용		정확히 알고있다	조금 알고있다	들었으나 내용은 모른다	전혀몰라 지 못했다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배경요인									
전체		2.9	29.4	35.1	32.3	0.3	100.0	3802	
성별									
남자		4.3	33.6	30.8	31.0	0.3	100.0	1706	$X^2=57.36^{***}$
여자		1.7	26.0	38.5	33.4	0.4	100.0	2096	
학교급별									
중학교		1.8	19.5	29.2	49.0	0.5	100.0	1238	$X^2=792.24^{***}$
인문고		2.5	33.7	40.8	22.8	0.2	100.0	892	
실업고		1.1	12.3	39.3	46.7	0.6	100.0	814	
대학교		6.5	55.4	33.6	4.5	0.0	100.0	858	
거주지별									
서울		3.4	28.1	34.7	33.7	0.1	100.0	966	$X^2=164.92^{***}$
경기		2.5	24.0	30.6	42.5	0.4	100.0	471	
강원		6.4	35.7	47.1	10.8	0.0	100.0	157	
충청		2.4	22.5	33.3	41.8	0.0	100.0	466	
영남		2.0	34.8	39.9	22.6	0.6	100.0	1082	
호남		3.7	27.9	32.2	35.6	0.6	100.0	537	
제주		0.8	37.4	16.3	45.5	0.0	100.0	123	
지역규모별									
서울		4.2	30.5	35.3	29.1	0.1	100.0	1104	$X^2=28.30^{***}$
직할시		2.1	28.4	37.9	31.4	0.2	100.0	1164	
중소도시		2.4	31.6	32.5	33.0	0.4	100.0	1008	
군지역		2.7	25.1	33.1	38.0	0.1	100.0	526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4.1	18.4	34.7	42.9	0.0	100.0	49	$X^2=26.68^{**}$
잘산다		3.7	30.2	31.6	34.5	0.0	100.0	374	
보통이다		2.4	29.2	35.8	12.7	19.8	100.0	3090	
못산다		5.5	31.1	31.0	31.5	0.0	100.0	238	
아주못산다		9.8	33.3	29.4	25.5	2.0	100.0	51	
실향민여부별									
있다		6.9	32.2	33.0	28.0	0.0	100.0	261	$X^2=18.55^{***}$
없다		2.6	29.2	35.2	32.6	0.4	100.0	3541	

○ (12. 13번 두문항에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신 분만 응답하십시오)
 귀하는 남북한의 통일방안중 어느 안이 더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문항내용 배경요인	남한측	북한측	양측 모두 실현 가능	양측 모두 실현불가능	계	사례수	비 고
전 체	53.0	4.7	21.1	21.1	100.0	1480	
성 별							
남 자	50.6	5.4	21.7	22.3	100.0	755	$X^2=4.37$
여 자	55.4	4.0	20.6	20.0	100.0	725	
학 교 급 별							
중 학 교	55.6	3.5	28.8	12.2	100.0	403	$X^2=135.08^{***}$
인 문 고	64.2	1.	13.6	21.1	100.0	374	
실 업 고	62.3	2.4	20.8	14.5	100.0	207	
대 학 교	38.5	9.5	20.8	31.3	100.0	496	
거 주 지 별							
서 울	53.1	6.2	18.4	22.3	100.0	354	$X^2=29.39^*$
경 기	49.7	4.6	20.3	25.5	100.0	153	
강 원	59.5	1.2	19.0	20.2	100.0	84	
충 청	48.9	5.1	26.1	19.9	100.0	176	
영 남	55.4	2.5	21.9	20.2	100.0	475	
호 남	50.3	9.3	22.8	17.6	100.0	193	
제 주	53.3	2.2	15.6	28.9	100.0	45	
지 역 규 모 별							
서 울	52.3	5.6	17.8	24.3	100.0	432	$X^2=10.40$
직 할 시	50.7	4.3	23.6	21.4	100.0	440	
중 소 도시	54.7	4.2	21.7	20.0	100.0	406	
군 지 역	56.9	5.0	21.8	16.3	100.0	202	
생 활 수 준 별							
아주 잘 산 다	47.6	9.5	9.5	33.3	100.0	21	$X^2=29.64^{**}$
잘 산 다	57.8	3.2	16.2	22.7	100.0	154	
보 통 이 다	54.1	4.3	21.7	19.9	100.0	1187	
못 산 다	40.2	10.3	23.0	26.4	100.0	87	
아주 못 산 다	25.8	9.7	25.8	38.7	100.0	31	
실 향 민 여 부 별							
있 다	48.8	3.3	23.1	24.8	100.0	212	$X^2=2.08$
없 다	53.3	4.9	21.0	21.0	100.0	1359	

○ 귀하는 최근 「남북한 UN 동시가입」, 「남북합의서」, 「비핵화선언」 등 일련의 사태들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문항내용	매우 빠른 편이다	약간 빠른 편이다	적절한 편이다	약간 늦은 편이다	매우 늦은 편이다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배경요인									
전체	6.0	19.1	37.1	32.4	4.7	0.7	100.0	3802	
성별									
남자	6.9	19.5	35.6	32.2	5.2	0.5	100.0	1706	X ² =7.94
여자	5.2	18.8	38.2	32.6	4.2	0.9	100.0	2096	
학교급별									
중학교	5.4	17.0	38.9	32.4	5.7	0.6	100.0	1238	X ² =29.20**
인문고	6.1	23.2	33.4	31.7	5.2	0.4	100.0	892	
실업고	7.4	19.9	35.6	32.7	3.7	0.7	100.0	814	
대학교	5.4	17.1	39.5	33.0	3.7	1.3	100.0	858	
거주지별									
서울	5.5	17.7	36.1	35.4	5.0	0.3	100.0	966	X ² =24.08
경기	5.7	20.4	36.9	31.0	5.1	0.8	100.0	471	
강원	9.6	22.3	33.8	29.9	4.5	0.0	100.0	157	
충청	7.1	17.2	29.1	30.5	6.0	0.2	100.0	466	
영남	5.9	19.4	37.5	32.9	3.5	0.7	100.0	1082	
호남	5.6	19.2	36.9	31.3	5.0	2.0	100.0	537	
제주	4.1	26.0	38.2	26.0	4.9	0.8	100.0	123	
지역규모별									
서울	6.5	17.8	36.7	33.8	5.0	0.3	100.0	1104	X ² =10.33
직할시	5.5	18.8	38.1	33.0	4.2	0.3	100.0	1164	
중소도시	5.2	20.8	36.3	31.1	5.2	1.5	100.0	1008	
군지역	7.4	19.4	36.9	31.0	4.2	1.1	100.0	526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16.3	18.4	32.7	26.5	6.1	0.0	100.0	49	X ² =49.77***
잘산다	7.2	19.0	33.2	33.4	6.4	0.8	100.0	374	
보통이다	5.6	19.7	38.2	31.2	4.5	0.7	100.0	3090	
못산다	5.5	15.1	28.6	47.1	2.9	0.8	100.0	238	
아주못산다	9.8	5.9	41.2	35.5	7.8	0.0	100.0	51	
실태만여부별									
있다	6.5	20.3	37.9	29.1	5.7	0.4	100.0	261	X ² =2.02
없다	5.9	19.0	37.0	32.7	4.6	0.8	100.0	3541	

통일문제 논의의 문제점

○ 귀하는 현재 사회 전반에서 일고 있는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불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문항 내용		기성세대중심으로 젊은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중심으로 일반국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실현가능성이 적고 너무 추상적이다	남북현을 적대 대립관계로만 한견해가 너무 생각한다	통일문제에 대해 개별적이다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배경요인										
전체		13.7	46.6	15.7	11.8	9.9	2.3	100.0	3802	
성별										
남자		14.6	44.5	15.8	11.8	10.5	2.9	100.0	1706	$X^2=12.53^*$
여자		12.9	48.4	15.6	11.7	9.4	1.9	100.0	2096	
학교급별										
중학교		15.6	46.3	13.1	12.1	10.5	2.5	100.0	1238	$X^2=82.96^{***}$
인문고		10.0	46.3	17.9	9.5	12.6	3.7	100.0	892	
실업고		17.7	47.1	12.7	11.9	9.0	1.7	100.0	814	
대학교		10.8	47.1	20.0	13.4	7.2	1.4	100.0	858	
거주지별										
서울		13.1	45.7	16.9	14.6	8.2	1.6	100.0	966	$X^2=33.95$
경기		14.2	47.3	13.8	11.7	11.3	1.7	100.0	471	
강원		15.3	50.3	14.6	6.4	10.2	3.2	100.0	157	
충청		14.4	46.4	16.3	10.9	10.7	1.3	100.0	466	
영남		13.1	45.7	16.6	10.3	10.7	3.5	100.0	1082	
호남		13.6	49.7	13.8	11.5	8.8	2.6	100.0	537	
제주		15.4	42.3	13.0	13.8	13.0	2.4	100.0	123	
지역규모별										
서울		13.8	44.7	17.3	14.3	8.5	1.4	100.0	1104	$X^2=36.46^{**}$
직할시		13.5	46.0	16.8	11.4	9.7	2.5	100.0	1164	
중소도시		12.3	49.8	13.1	10.9	10.7	3.2	100.0	1008	
군지역		16.3	46.0	14.8	8.7	11.8	2.2	100.0	526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22.4	36.7	14.3	10.2	10.2	6.1	100.0	49	$X^2=34.22^*$
잘산다		14.2	44.7	16.3	8.8	12.0	4.0	100.0	374	
보통이다		13.9	47.4	15.5	11.6	9.5	2.1	100.0	3090	
못산다		9.7	44.1	16.8	16.8	10.5	2.1	100.0	238	
아주못산다		7.8	33.3	17.6	23.5	13.7	4.0	100.0	51	
실향민여부별										
있다		15.3	49.8	14.6	9.6	7.7	3.1	100.0	261	$X^2=5.98$
없다		13.5	46.4	15.8	11.9	10.1	2.3	100.0	3541	

○ 귀하는 통일문제 논의의 개방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문항내용 배경요인	완전개방	국익고려한 개방	정부·전문가 중심으로제한	민주주의부정 논의만 제한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전체	54.5	34.9	6.8	3.2	0.6	100.0	3802	
성별								
남자	53.0	34.5	8.5	3.6	0.4	100.0	1706	$X^2=17.13^{**}$
여자	55.8	35.2	5.5	2.8	0.7	100.0	2096	
학교급별								
중학교	53.5	31.7	10.5	3.6	0.7	100.0	1238	
인문고	55.5	38.6	3.4	2.1	0.4	100.0	892	$X^2=78.77^{***}$
실업고	50.4	36.9	8.4	4.1	0.4	100.0	814	
대학교	59.0	33.9	3.7	2.8	0.6	100.0	858	
거주지별								
서울	54.0	36.1	6.2	3.5	0.1	100.0	966	
경기	55.2	32.1	10.0	2.1	0.6	100.0	471	
강원	57.3	32.5	5.7	4.5	0.0	100.0	157	
충청	50.4	35.4	9.4	4.7	0.0	100.0	466	$X^2=92.54^{***}$
영남	50.4	39.4	6.6	2.7	1.0	100.0	1082	
호남	65.5	26.8	4.3	2.4	0.9	100.0	537	
제주	56.1	33.3	4.9	4.9	0.8	100.0	123	
지역규모별								
서울	53.9	35.9	6.8	3.4	0.1	100.0	1104	
직할시	53.4	36.9	6.5	2.5	0.6	100.0	1164	$X^2=19.11$
중소도시	55.9	33.7	6.2	3.8	0.5	100.0	1008	
군지역	55.7	30.6	8.9	3.2	1.5	100.0	526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38.8	34.7	14.3	10.2	2.0	100.0	49	
잘산다	50.0	36.4	8.3	5.1	0.3	100.0	374	$X^2=42.12^{***}$
보통이다	55.2	35.0	6.4	2.8	0.6	100.0	3090	
못산다	59.2	31.5	6.3	2.9	0.0	100.0	238	
아주못산다	37.3	33.3	15.7	9.8	3.9	100.0	51	
실태인여부별								
있다	58.2	34.1	5.4	2.3	0.0	100.0	261	$X^2=2.39$
없다	54.3	35.0	6.9	3.2	0.6	100.0	3541	

<표 II-2-19>

통일의 주체세대

○ 귀하는 통일을 이루는데 주체가 되는 세대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문항내용		나를 포함한 우리세대	기성세대	미래세대	모든 국민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배경요인	전체	33.1	7.0	14.5	45.4	0.1	100.0	3802	
성별	남자	38.5	6.3	16.1	39.1	0.1	100.0	1706	X ² =61.81***
	여자	28.7	7.6	13.2	50.5	0.0	100.0	2096	
학교급별	중학교	31.9	6.7	13.3	47.9	0.2	100.0	1238	X ² =27.86**
	인문고	36.3	7.3	15.5	40.9	0.0	100.0	892	
	실업고	28.5	9.0	16.1	46.4	0.0	100.0	814	
	대학교	35.7	5.4	13.5	45.5	0.0	100.0	858	
거주지별	서울	30.3	9.6	14.3	45.7	0.1	100.0	966	X ² =52.90***
	경기	34.8	5.9	13.2	46.1	0.0	100.0	471	
	강원	37.6	7.6	21.0	33.8	0.0	100.0	157	
	충청	33.9	2.4	16.7	47.0	0.0	100.0	466	
	영남	33.0	6.7	14.0	46.2	0.1	100.0	1082	
	호남	32.8	7.3	12.1	47.9	0.0	100.0	537	
	제주	40.7	8.9	18.7	31.7	0.0	100.0	123	
지역규모별	서울	31.5	9.4	15.3	43.7	0.1	100.0	1104	X ² =27.18**
	직할시	34.0	6.8	14.7	44.5	0.0	100.0	1164	
	중소도시	35.9	5.1	13.0	46.0	0.0	100.0	1008	
	군지역	28.7	6.3	15.0	49.8	0.2	100.0	526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38.8	4.1	22.4	34.7	0.0	100.0	49	X ² =12.32
	잘산다	36.6	5.6	13.1	44.7	0.0	100.0	374	
	보통이다	32.8	7.2	14.4	45.5	0.1	100.0	3090	
	못산다	30.3	5.9	14.7	49.2	0.0	100.0	238	
	아주못산다	33.3	11.8	17.6	37.3	0.0	100.0	51	
실태인여부별	있다	39.8	7.3	13.4	39.5	0.0	100.0	261	X ² =6.32
	없다	32.6	7.0	14.5	45.8	0.1	100.0	3541	

○ 귀하는 청소년들이 남북통일에 기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배경요인	문항내용	충분한 능력	다소 능력	별로 능력	전혀 능력	무응답	계	사례수	비 고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전 체		24.5	52.3	20.0	3.2	0.1	100.0	3802	
성 별									
남 자		24.9	49.8	20.8	4.5	0.1	100.0	1706	$X^2=22.56^{***}$
여 자		24.2	54.2	19.4	2.1	0.0	100.0	2096	
학 교 급 별									
중 학 교		25.6	48.9	21.3	4.1	0.0	100.0	1238	$X^2=34.90^{***}$
인 문 고		24.9	53.9	18.6	2.6	0.0	100.0	892	
실 업 고		19.8	53.6	22.6	3.9	0.1	100.0	814	
대 학 교		27.0	54.1	17.1	1.6	0.1	100.0	858	
거 주 지 별									
서 울		24.4	50.4	21.6	3.4	0.1	100.0	966	$X^2=59.64^{***}$
경 기		27.8	49.0	18.7	4.5	0.0	100.0	471	
강 원		23.6	50.3	23.6	2.5	0.0	100.0	157	
충 청		22.5	54.9	19.5	3.0	0.0	100.0	466	
영 남		19.1	55.9	21.4	3.4	0.1	100.0	1082	
호 남		33.5	50.1	14.7	1.7	0.0	100.0	537	
제 주		29.3	48.8	20.3	1.6	0.0	100.0	123	
지 역 구 모 별									
서 울		25.4	49.7	21.5	3.4	0.1	100.0	1104	$X^2=17.62^*$
직 할 시		23.7	52.0	20.7	3.6	0.0	100.0	1164	
중 소 도시		26.8	52.1	18.5	2.6	0.1	100.0	1008	
군 지 역		20.2	58.6	18.4	2.9	0.0	100.0	526	
생 활 수 준 별									
아주 잘 산 다		32.7	42.9	14.3	10.2	0.0	100.0	49	$X^2=55.04^{***}$
잘 산 다		28.9	48.7	18.4	4.0	0.0	100.0	374	
보 통 이 다		23.8	53.1	20.3	2.8	0.1	100.0	3090	
못 산 다		26.9	50.4	20.2	2.5	0.0	100.0	238	
아주 못 산 다		17.6	45.1	19.6	17.6	0.0	100.0	51	
실 향 민 여 부 별									
있 다		19.5	55.2	20.3	5.0	0.0	100.0	261	$X^2=6.25$
없 다		24.9	52.0	20.0	3.0	0.1	100.0	3541	

○ 귀하는 최근 일부 대학생들이 직접 북한 청소년들과 만나 통일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문항내용		매우 긍정적	약간 긍정적	약간 부정적	매우 부정적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배경요인	전체	21.3	49.2	21.8	7.4	0.3	100.0	3802	
성별	남자	20.2	45.3	23.6	10.7	0.2	100.0	1706	X ² =65.21***
	여자	22.2	52.4	20.3	4.6	0.4	100.0	2096	
학교급별	중학교	25.9	49.5	16.6	7.8	0.2	100.0	1238	X ² =101.19***
	인문고	19.7	41.6	27.7	10.5	0.4	100.0	892	
	실업고	21.0	51.5	20.4	7.0	0.1	100.0	814	
	대학교	16.6	54.5	24.4	3.8	0.7	100.0	858	
거주지별	서울	19.0	48.7	23.9	7.9	0.5	100.0	966	X ² =114.20***
	경기	22.1	52.0	17.4	8.1	0.4	100.0	471	
	강원	22.9	53.5	15.9	7.6	0.0	100.0	157	
	충청	18.5	48.1	24.0	9.2	0.2	100.0	466	
	영남	18.9	46.4	26.4	8.1	0.1	100.0	1082	
	호남	32.2	52.9	11.7	2.4	0.7	100.0	537	
	제주	17.9	50.4	23.6	8.1	0.0	100.0	123	
지역규모별	서울	18.8	50.0	23.3	7.3	0.6	100.0	1104	X ² =26.81**
	직할시	20.8	47.2	23.1	8.6	0.3	100.0	1164	
	중소도시	24.4	47.7	20.9	6.8	0.1	100.0	1008	
	군지역	21.9	54.9	17.3	5.7	0.2	100.0	526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32.7	44.9	14.3	8.2	0.0	100.0	49	X ² =22.15
	잘산다	24.6	47.1	19.8	8.3	0.3	100.0	374	
	보통이다	20.4	49.9	22.3	7.1	0.4	100.0	3090	
	못산다	26.1	47.1	19.7	6.7	0.4	100.0	238	
	아주못산다	21.6	43.2	21.6	11.6	2.0	100.0	51	
실태민여부별	있다	20.7	45.6	23.8	9.6	0.4	100.0	261	X ² =3.31
	없다	21.3	49.5	21.6	7.2	0.3	100.0	3541	

〈표 II-3-1〉

북한 영화 관람 의사

○ 귀하는 북한영화가 상영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위 : %)

배경요인	문항내용	반드시 보겠다	가능한 보겠다	보지 않겠다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전체		18.1	52.6	6.1	23.1	0.1	100.0	3802	
성별									
남자		15.2	51.3	8.3	25.0	0.2	100.0	1706	$X^2 = 47.00^{***}$
여자		20.5	53.6	4.3	21.6	0.0	100.0	2096	
학교급별									
중학교		20.2	48.0	7.8	24.1	0.0	100.0	1238	$X^2 = 53.69^{***}$
인문고		16.7	50.7	5.7	26.8	0.1	100.0	892	
실업고		19.8	55.8	6.1	18.3	0.0	100.0	814	
대학교		14.9	58.0	4.2	22.6	0.2	100.0	858	
거주지별									
서울		18.6	55.9	5.1	20.4	0.0	100.0	966	$X^2 = 53.71^{**}$
경기		17.4	50.7	6.2	25.5	0.2	100.0	471	
강원		21.7	52.2	5.7	19.7	0.6	100.0	157	
충청		16.3	51.5	8.2	23.8	0.2	100.0	466	
영남		17.0	50.6	6.6	25.8	0.0	100.0	1082	
호남		20.7	52.5	5.8	21.0	0.0	100.0	537	
제주		17.1	54.5	4.9	23.6	0.0	100.0	123	
지역규모별									
서울		17.8	55.4	5.2	21.5	0.1	100.0	1104	$X^2 = 23.92$
직할시		15.6	52.1	7.6	24.5	0.2	100.0	1164	
중소도시		20.1	51.2	6.0	22.7	0.0	100.0	1008	
군지역		20.2	50.0	5.3	24.5	0.0	100.0	526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22.4	32.7	12.2	32.7	0.0	100.0	49	$X^2 = 29.65$
잘산다		20.1	52.4	8.8	18.7	0.0	100.0	374	
보통이다		17.6	53.5	5.7	23.1	0.1	100.0	3090	
못산다		21.4	46.6	5.0	26.9	0.0	100.0	238	
아주못산다		11.8	45.1	9.8	33.3	0.0	100.0	51	
실향민여부별									
있다		22.6	51.3	6.1	19.9	0.0	100.0	261	$X^2 = 5.16$
없다		17.8	52.6	6.2	23.4	0.1	100.0	3541	

〈표 II-3-2〉

북한 방문 의사

○ 귀하는 남북한간의 상호왕래가 허용되면 북한을 방문하고 싶으십니까?

(단위 : %)

문항내용	방문하고 싶다	방문하고 싶지않다	무응답	계	사례수	비 고
배경요인						
전 체	91.7	8.1	0.3	100.0	3802	
성 별						
남 자	91.1	8.4	0.4	100.0	1706	$X^2 = 1.18$
여 자	92.1	7.8	0.1	100.0	2096	
학 교 급 별						
중 학 교	89.5	10.2	0.3	100.0	1238	$X^2 = 29.75^{***}$
인 문 고	91.6	8.2	0.2	100.0	892	
실 업 고	90.9	8.8	0.2	100.0	814	
대 학 교	95.6	4.2	0.2	100.0	858	
거 주 지 별						
서 울	90.5	9.4	0.1	100.0	966	$X^2 = 19.06$
경 기	89.2	10.0	0.8	100.0	471	
강 원	91.7	8.3	0.0	100.0	157	
충 청	91.0	9.0	0.0	100.0	466	
영 남	92.2	7.3	0.5	100.0	1082	
호 남	95.3	4.7	0.0	100.0	537	
계 주	91.9	8.1	0.0	100.0	123	
지 역 규 모 별						
서 울	90.1	9.8	0.1	100.0	1104	$X^2 = 11.73$
직 할 시	91.9	7.6	0.4	100.0	1164	
중 소 도시	92.0	7.8	0.2	100.0	1008	
군 지 역	93.7	5.9	0.4	100.0	526	
생 활 수 준 별						
아주 잘 산다	87.8	12.2	0.0	100.0	49	$X^2 = 10.82$
잘 산 다	89.0	10.7	0.3	100.0	374	
보 통 이 다	92.2	7.6	0.2	100.0	3090	
못 산 다	92.0	8.0	0.0	100.0	238	
아주 못 산다	80.4	15.7	0.9	100.0	51	
실 향 민 여 부 별						
있 다	92.0	8.0	0.0	100.0	261	$X^2 = 0.22$
없 다	91.6	8.1	0.3	100.0	3541	

〈표 II-3-3〉

북한 방문 희망처

○ 귀하가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경우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하나만 적어 주십시오.

(단위 : %)

문항내용	자연(백두산, 금강산)	군사시설(땅굴, 핵무기)	대 도시(평양, 개성)	부모님의 고향	김 일 성 관련장소	교육기관	시 골
배경요인							
전 체	53.4	1.3	12.4	1.2	8.2	6.4	0.9
성 별							
남 자	61.8	1.1	14.2	1.1	6.4	2.8	1.2
여 자	46.6	1.4	11.0	1.2	9.6	9.4	0.8
학 교 급 별							
중 학 교	54.7	2.0	7.5	1.1	8.0	7.3	0.8
인 문 고	49.4	1.2	14.7	1.1	9.9	6.4	1.2
실 업 고	49.3	1.4	10.6	0.7	10.6	7.9	0.6
대 학 교	59.8	0.2	19.0	1.7	4.4	3.8	1.2
거 주 지 별							
서 울	51.8	0.5	13.0	1.3	8.4	6.8	0.7
경 기	52.7	1.1	11.9	1.9	8.5	6.8	0.0
강 원	53.5	0.6	15.3	3.8	8.9	7.0	0.6
충 청	54.3	0.9	14.4	1.3	5.6	5.6	1.7
영 남	50.7	2.5	12.7	0.6	9.8	6.0	1.0
호 남	62.6	1.3	9.1	0.4	6.1	6.9	1.3
제 주	50.4	0.0	11.4	1.6	8.9	5.7	1.6
지 역 규 모 별							
서 울	52.5	0.5	13.5	1.8	7.9	6.2	0.6
직 할 시	56.1	1.5	14.2	0.8	6.6	5.0	0.9
중 소 도 시	52.8	1.1	11.5	1.2	8.6	7.2	1.3
군 지 역	50.8	2.9	8.2	0.6	11.4	8.6	1.1
생 활 수 준 별							
아주잘산다	40.8	0.0	4.1	4.1	12.2	12.2	0.0
잘 산 다	49.5	0.8	13.6	2.9	10.2	5.6	0.5
보 통 이 다	53.9	1.4	12.7	1.0	7.6	6.4	1.1
못 산 다	55.9	1.3	10.1	0.4	8.4	7.1	0.0
아주못산다	56.9	0.0	5.9	0.0	21.6	3.9	2.0
실 향 민 여 부 별							
있 다	49.0	0.4	12.6	11.5	6.1	5.7	0.8
없 다	53.8	1.4	12.4	0.4	8.3	6.5	1.0

(단위 : %)

배경요인 \ 분항내용	생활현장(일반 가정,동네시장)	아오지, 집단농장	무 응 답	계	사 례 수	비 고
전 체	6.9	1.8	7.4	100.0	3802	
성 별						
남 자	3.3	2.5	5.6	100.0	1706	$X^2 = 191.54^{***}$
여 자	9.9	1.2	8.9	100.0	2096	
학 교 급 별						
중 학 교	8.6	0.6	9.5	100.0	1238	$X^2 = 187.80^{***}$
인 문 고	7.0	3.4	5.7	100.0	892	
실 업 고	9.3	1.6	8.1	100.0	814	
대 학 교	2.2	2.1	5.5	100.0	858	
거 주 지·별						
서 울	7.7	2.2	7.6	100.0	966	$X^2 = 90.70^{***}$
경 기	6.2	1.7	9.3	100.0	471	
강 원	6.4	0.6	3.2	100.0	157	
충 청	7.7	1.7	6.9	100.0	466	
영 남	6.7	2.0	7.9	100.0	1082	
호 남	5.8	0.6	6.0	100.0	537	
제 주	8.9	4.1	7.3	100.0	123	
지 역 규 모 별						
서 울	6.8	1.9	8.3	100.0	1104	$X^2 = 67.90^{***}$
직 할 시	5.9	1.9	7.1	100.0	1164	
중 소 도 시	7.9	2.1	6.3	100.0	1008	
군 지 역	7.6	0.8	8.2	100.0	526	
생 활 수 준 별						
아주잘산다	8.2	2.0	16.3	100.0	49	$X^2 = 63.30^{***}$
잘 산 다	7.8	1.6	7.5	100.0	374	
보 통 이 다	7.0	1.7	7.2	100.0	3090	
못 산 다	5.0	4.2	7.6	100.0	238	
아주못산다	3.9	0.0	5.9	100.0	51	
실향민여부별						
있 다	4.6	2.3	6.9	100.0	261	$X^2 = 264.60^{***}$
없 다	7.1	1.8	7.4	100.0	3541	

〈표 II-3-4〉

북한에 관한 지식정도

○ 귀하는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문항내용 배경요인	매우 많이 알고 있다	약간 많이 알고 있다	보통이다	약간 적게 알고 있다	매우 적게 알고 있다	무응답	계	사례수	비 고
전 체	2.5	14.7	63.5	12.0	7.2	0.2	100.0	3802	
성 별									
남 자	3.5	17.4	61.5	10.9	6.6	0.1	100.0	1706	$X^2 = 31.86^{***}$
여 자	1.8	12.5	65.1	12.8	7.6	0.2	100.0	2096	
학 교 급 별									
중 학 교	2.9	15.3	58.2	14.9	8.5	0.2	100.0	1238	$X^2 = 86.83^{***}$
인 문 고	2.2	13.1	71.6	8.6	4.1	0.2	100.0	892	
실 업 고	1.4	11.8	70.0	10.1	6.6	0.1	100.0	814	
대 학 교	3.4	18.1	56.4	13.1	9.0	0.1	100.0	858	
거 주 지 별									
서 울	2.2	14.5	64.4	11.7	7.1	0.1	100.0	966	$X^2 = 64.80^{***}$
경 기	3.6	13.2	63.7	10.0	9.3	0.2	100.0	471	
강 원	4.5	19.7	50.3	17.2	8.3	0.0	100.0	157	
충 청	1.7	17.4	53.2	17.2	10.1	0.4	100.0	468	
영 남	2.4	14.0	67.8	10.4	5.3	0.1	100.0	1082	
호 남	2.4	13.0	65.4	12.3	6.7	0.2	100.0	537	
제 주	3.3	17.9	65.0	8.1	5.7	0.0	100.0	123	
지 역 규 모 별									
서 울	2.8	15.3	61.6	11.6	8.5	0.2	100.0	1104	$X^2 = 19.13$
직 할 시	2.5	14.0	66.7	11.3	5.4	0.1	100.0	1164	
중 소 도 시	2.2	16.1	62.3	12.0	7.1	0.3	100.0	1008	
군 지 역	2.7	12.2	62.7	14.1	8.4	0.0	100.0	526	
생 활 수 준 별									
아주 잘 산 다	16.3	10.2	51.0	12.2	8.2	2.0	100.0	49	$X^2 = 146.98^{***}$
잘 산 다	5.3	25.9	53.5	9.9	5.3	0.0	100.0	374	
보 통 이 다	1.9	13.1	65.9	11.9	7.0	0.1	100.0	3090	
못 산 다	2.1	18.1	56.3	15.1	8.0	0.4	100.0	238	
아주 못 산 다	2.8	13.7	57.3	15.7	15.5	0.0	100.0	51	
실 향 민 여 부 별									
있 다	4.2	19.9	57.1	12.3	6.5	0.0	100.0	261	$X^2 = 10.41^*$
없 다	2.4	14.3	64.0	11.9	7.2	0.2	100.0	3541	

<표 II-3-5>

북한관련 지식의 획득원

○ 귀하가 북한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주로 얻는 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2개만 적어주십시오)

(단위 : %)

문항내용		신 문· 잡 지	TV· 라디오	학교교육	각 종 관련서적	부모·형제 및 친척	친 구· 동아리활동	무응답	계	사례수	비 고
배경요인	전 체	23.7	41.3	20.6	7.5	3.3	3.0	0.5	100.0	7392	
성	별										
남	자	25.7	41.0	18.5	8.8	2.5	2.9	0.7	100.0	3316	$X^2 = 43.45^{***}$
여	자	22.1	41.5	22.3	6.5	4.0	3.2	0.4	100.0	4076	
학 교	급 별										
중 학 교		22.1	42.0	21.4	6.9	5.4	1.7	0.5	100.0	2437	$X^2 = 292.40^{***}$
인 문 고		21.7	42.9	24.9	5.5	2.8	1.4	0.8	100.0	1740	
실 업 고		19.6	44.4	26.7	4.6	2.8	1.6	0.3	100.0	1578	
대 학 교		32.2	35.4	9.0	13.4	1.3	8.1	0.5	100.0	1637	
거 주 지	별										
서 울		24.4	40.6	19.7	7.5	4.5	2.9	0.5	100.0	1885	$X^2 = 60.79^{**}$
경 기		25.8	40.3	19.0	8.8	2.4	2.8	0.8	100.0	916	
강 원		19.2	40.7	24.4	10.1	2.9	2.3	0.3	100.0	307	
충 청		23.2	40.7	21.4	6.3	4.6	3.4	0.3	100.0	901	
영 남		21.7	43.3	21.9	7.2	2.6	2.7	0.6	100.0	2096	
호 남		24.8	40.5	20.0	7.1	3.0	4.2	0.4	100.0	1043	
제 주		30.3	38.9	18.4	8.2	1.6	2.0	0.4	100.0	244	
지 역	규모 별										
서 울		26.0	40.5	17.5	8.2	4.3	3.1	0.5	100.0	2146	$X^2 = 20.50$
직 할 시		22.8	42.0	21.8	7.3	2.3	3.2	0.6	100.0	2272	
중 소 도시		23.1	41.2	21.8	7.4	3.3	2.8	0.4	100.0	1955	
군 지 역		22.0	41.4	22.4	6.9	3.6	2.9	0.8	100.0	1019	
생 활	수준 별										
아주 잘 산 다		23.4	37.2	20.2	9.6	2.1	5.3	2.1	100.0	94	$X^2 = 20.03$
잘 산 다		24.7	41.0	17.1	9.0	4.5	2.6	1.1	100.0	730	
보 통 이 다		23.7	41.6	21.1	7.2	3.2	2.8	0.4	100.0	6008	
못 산 다		21.8	38.7	20.1	7.5	3.2	6.5	0.2	100.0	464	
아주 못 산 다		26.0	35.4	14.6	11.5	7.3	3.1	2.1	100.0	96	
실 향	민여부 별										
있 다		22.4	41.4	17.6	9.9	4.6	4.0	0.2	100.0	505	$X^2 = 6.58$
없 다		23.8	41.3	20.9	7.3	3.3	3.0	0.5	100.0	6887	

〈표 II-3-6〉

북한관련 지식의 신뢰도

○ 귀하는 자신이 접하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나 자료가 실제의 북한과 어느 정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배경요인	문항내용	실제의 북한과	다소 실상과	전혀 실상과	잘모르겠다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전체		20.3	56.4	5.1	18.0	0.2	100.0	3802	
성별									
남자		20.6	56.9	4.9	17.4	0.2	100.0	1706	$X^2=3.58$
여자		20.1	56.0	5.2	18.5	0.2	100.0	2096	
학교급별									
중학교		20.9	46.6	8.0	24.3	0.2	100.0	1238	$X^2=137.17^{***}$
인문고		20.1	60.5	3.9	15.2	0.2	100.0	892	
실업고		24.3	55.5	4.5	15.4	0.2	100.0	814	
대학교		16.0	67.1	2.6	14.2	0.1	100.0	858	
거주지별									
서울		18.7	59.3	5.1	16.8	0.1	100.0	966	$X^2=39.31$
경기		20.2	56.1	7.0	16.3	0.4	100.0	471	
강원		19.7	55.4	6.4	18.5	0.0	100.0	157	
충청		19.7	53.9	6.2	20.0	0.2	100.0	466	
영남		23.3	54.2	4.2	18.1	0.3	100.0	1082	
호남		18.4	57.0	4.7	19.9	0.0	100.0	537	
제주		18.7	63.4	1.6	16.3	0.0	100.0	123	
지역규모별									
서울		18.4	60.1	5.3	16.1	0.1	100.0	1104	$X^2=31.63^{**}$
직할시		20.8	56.4	4.2	18.3	0.3	100.0	1164	
중소도시		21.5	56.3	5.3	16.7	0.2	100.0	1008	
군지역		21.1	49.0	6.1	23.8	0.0	100.0	526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12.2	55.1	12.2	20.4	0.0	100.0	49	$X^2=31.78^*$
잘산다		22.2	56.4	5.6	15.0	0.5	100.0	374	
보통이다		20.4	56.8	4.8	18.0	0.3	100.0	3090	
못산다		19.7	55.0	5.9	19.3	0.0	100.0	238	
아주못산다		15.7	41.2	9.8	33.3	0.0	100.0	51	
실향민여부별									
있다		21.1	59.8	3.8	15.3	0.0	100.0	261	$X^2=2.74$
없다		20.3	56.2	5.2	18.2	0.2	100.0	3541	

○ 귀하는 북한에 대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단위 : %)

문항내용	자 연 (백두산, 금강산)	같은 민족	긍정적 이미지	김일성 김정일	군사적 문제	청소년의 생활
배경요인	4.4	2.7	1.7	27.1	10.0	4.5
성 별						
남 자	6.2	3.4	1.8	29.1	10.9	2.6
여 자	3.0	2.1	1.6	25.5	9.3	6.0
학 교 급 별						
중 학 교	3.8	1.7	1.4	21.7	9.8	5.3
인 문 고	3.5	2.4	2.1	29.8	12.0	4.1
실 업 고	3.3	1.0	0.9	27.9	10.4	4.8
대 학 교	7.5	5.9	2.4	31.4	7.9	3.3
거 주 지 별						
서 울	4.5	2.8	1.7	29.1	10.9	4.7
경 기	3.8	2.1	1.3	28.7	7.0	5.5
강 원	1.9	2.5	0.6	24.8	14.0	6.3
충 청	4.1	4.9	1.9	21.7	10.3	4.1
영 남	3.7	1.9	1.7	29.5	8.9	3.7
호 남	7.6	2.6	2.2	22.2	12.1	4.3
제 조	4.1	1.6	1.6	30.1	9.8	5.7
지 역 규 모 별						
서 울	4.6	2.4	1.4	29.5	11.0	4.8
직 할 시	4.6	2.2	1.5	26.9	9.6	4.2
중 소 도시	4.2	3.8	2.1	24.2	9.8	4.6
군 지 역	4.2	2.1	1.7	28.1	9.3	4.2
생 활 수 준 별						
아주 잘 산 다	2.0	4.1	2.0	24.5	10.2	4.1
잘 산 다	4.3	2.4	1.9	22.2	10.7	4.5
보 통 이 다	4.4	2.6	1.7	27.1	9.8	4.5
못 산 다	5.5	3.8	1.3	31.9	11.8	4.6
아주 못 산 다	3.9	3.9	0.0	43.1	7.8	0.0
실 향 민 여 부 별						
있 다	5.0	3.8	1.1	29.5	7.7	3.8
없 다	4.4	2.6	1.7	26.9	10.2	4.5

(단위 : %)

문항내용 배경요인		정치체제	상징물	주민생활	무응답	계	사례수	비 고
전 체		17.5	6.4	16.6	9.1	100.0	3802	
성 별								
남 자		18.3	5.3	14.7	7.7	100.0	1706	$X^2=72.75^{***}$
여 자		16.8	7.4	18.2	10.2	100.0	2096	
학 교 급 별								
중 학 교		24.3	4.0	17.4	10.6	100.0	1238	$X^2=208.82^{***}$
인 문 고		12.9	9.1	17.8	6.3	100.0	892	
실 업 고		18.8	5.8	17.3	9.8	100.0	814	
대 학 교		11.1	7.9	13.5	9.1	100.0	858	
거 주 지 별								
서 울		18.8	7.8	13.6	6.3	100.0	966	$X^2=94.85^{***}$
경 기		20.4	5.5	15.9	9.8	100.0	471	
강 원		14.6	7.6	22.3	5.1	100.0	157	
충 청		18.7	5.8	20.6	7.9	100.0	466	
영 남		16.1	5.0	18.5	11.1	100.0	1082	
호 남		15.8	8.0	13.8	11.4	100.0	537	
제 주		13.8	6.5	17.1	9.8	100.0	123	
지 역 규 모 별								
서 울		17.9	7.8	13.7	6.9	100.0	1104	$X^2=37.91^*$
직 할 시		16.9	5.9	17.0	11.0	100.0	1164	
중 소 도 시		16.5	6.8	19.8	8.2	100.0	1008	
군 지 역		19.6	4.0	15.8	11.0	100.0	526	
생 활 수 준 별								
아주 잘 산 다		16.3	10.2	16.3	10.2	100.0	49	$X^2=38.51$
잘 산 다		17.1	8.0	17.9	11.0	100.0	374	
보 통 이 다		18.2	6.3	16.6	8.7	100.0	3090	
못 산 다		10.9	4.2	16.8	9.2	100.0	238	
아주 못 산 다		5.9	11.8	9.8	13.7	100.0	51	
실 향 민 여 부 별								
있 다		16.1	7.3	20.3	5.4	100.0	261	$X^2=6.73$
없 다		17.6	6.4	16.4	9.3	100.0	3541	

○ 귀하가 생각하기에 북한 사회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단위 : %)

문항내용		동일한 민족이 세운 다른 국가	억압적 획일적인 해체국가	가장 위험한 공산주의 적대국	주제사상의 자유국가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할 민족의 영토	관계가 없는 험악고립된 주변국가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배경요인	전체	13.1	51.8	5.5	3.9	22.9	1.3	1.6	100.0	3802	
성별	남자	14.9	45.6	4.9	4.9	26.7	1.3	1.6	100.0	1706	$X^2=60.79^{***}$
	여자	11.6	56.8	5.9	3.1	19.9	1.2	1.4	100.0	2096	
학교급별	중학교	9.9	57.7	6.5	3.4	19.1	2.1	1.2	100.0	1238	$X^2=254.66^{***}$
	인문고	13.6	51.5	4.8	2.6	25.2	0.7	1.6	100.0	892	
	실업고	10.4	60.9	7.2	1.6	17.0	1.4	1.4	100.0	814	
	대학교	19.6	34.8	2.9	8.3	31.7	0.7	1.9	100.0	858	
거주지별	서울	12.7	55.6	4.9	4.1	19.8	1.4	1.4	100.0	966	$X^2=111.15^{***}$
	경기	12.3	52.9	5.1	3.8	21.7	2.1	2.1	100.0	471	
	강원	14.0	45.2	12.1	4.5	18.5	1.3	4.5	100.0	157	
	충청	10.3	51.5	7.7	3.6	23.8	1.7	1.3	100.0	466	
	영남	12.6	54.0	5.4	3.3	22.2	1.1	1.5	100.0	1082	
	호남	16.8	40.6	3.9	5.4	31.8	0.4	1.1	100.0	537	
	제주	16.3	44.7	2.4	1.6	17.9	17.0	0.0	100.0	123	
지역규모별	서울	13.8	52.8	5.3	4.2	20.6	1.7	1.8	100.0	1104	$X^2=24.98$
	직할시	13.4	49.8	5.8	3.7	24.9	1.3	1.2	100.0	1164	
	중소도시	10.8	52.9	5.3	4.3	24.1	0.7	1.0	100.0	1008	
	군지역	15.2	51.7	5.7	3.2	21.3	1.5	1.3	100.0	526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24.5	32.7	10.2	8.2	14.3	8.2	2.0	100.0	49	$X^2=93.09^{***}$
	잘산다	12.8	51.3	5.6	2.9	25.1	0.3	1.8	100.0	374	
	보통이다	12.6	53.1	5.7	3.7	22.4	1.2	1.4	100.0	3090	
	못산다	18.5	40.8	2.9	0.0	26.9	1.7	9.2	100.0	238	
	아주못산다	7.8	43.1	0.0	11.8	27.5	7.8	2.0	100.0	51	
실향민여부별	있다	16.5	47.5	6.5	4.6	21.5	1.1	2.3	100.0	261	$X^2=7.10$
	없다	12.8	52.1	5.4	3.9	23.0	1.3	1.5	100.0	3541	

〈표 II-3-9〉

남북한 생활수준 비교

○ 귀하는 남북한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문항내용		남한이 더 앞선다	북한이 더 앞선다	남북한이 비슷하다	비교가 불가능하다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배경요인	전체	88.1	1.8	5.3	4.7	0.2	100.0	3802	
성별	남자	87.8	1.6	5.0	5.4	0.2	100.0	1706	$X^2 = 4.78$
	여자	88.4	1.9	5.5	4.1	0.1	100.0	2096	
학교급별	중학교	85.5	2.9	8.0	3.6	0.0	100.0	1238	$X^2 = 79.84^{***}$
	인문고	92.2	0.9	2.1	4.7	0.1	100.0	892	
	실업고	89.3	1.8	5.2	3.3	0.4	100.0	814	
	대학교	86.7	0.9	4.8	7.3	0.2	100.0	858	
거주지별	서울	87.1	1.9	6.2	4.9	0.0	100.0	966	$X^2 = 37.77^*$
	경기	88.3	1.9	4.5	5.3	0.0	100.0	471	
	강원	88.5	0.0	4.5	6.4	0.6	100.0	157	
	충청	85.6	2.4	7.3	4.7	0.0	100.0	466	
	영남	90.3	1.5	3.7	4.3	0.3	100.0	1082	
	호남	86.4	2.2	6.3	4.7	0.4	100.0	537	
	제주	93.5	0.8	4.1	1.6	0.0	100.0	123	
지역규모별	서울	87.5	1.6	5.5	5.2	0.2	100.0	1104	$X^2 = 22.12^*$
	직할시	88.0	1.5	4.5	5.8	0.2	100.0	1164	
	중소도시	89.6	2.0	4.9	3.4	0.2	100.0	1008	
	군지역	87.1	2.1	7.4	3.4	0.0	100.0	526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67.3	10.2	8.2	14.3	0.0	100.0	49	$X^2 = 65.02^{***}$
	잘산다	89.0	2.4	4.3	4.3	0.0	100.0	374	
	보통이다	89.1	1.6	4.8	4.8	0.2	100.0	3090	
	못산다	81.5	2.1	10.9	10.9	0.0	100.0	238	
	아주못산다	76.5	0.0	11.8	11.8	0.0	100.0	51	
실향민여부별	있다	88.1	0.8	5.7	5.4	0.0	100.0	261	$X^2 = 2.14$
	없다	88.1	1.8	5.3	4.6	0.2	100.0	3541	

〈표 Ⅱ-3-10〉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 귀하는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문항내용 배경요인	같은민족	무서운 사람들	외국인	불쌍한 사람들	관심밖의 사람들	무응답	계	사례수	비 고
전 체	49.4	5.1	1.0	39.9	2.6	1.9	100.0	3802	
성 별									
남 자	55.2	3.5	0.8	36.2	2.6	1.7	100.0	1706	$X^2 = 48.01^{***}$
여 자	44.8	6.4	1.1	42.9	2.6	2.2	100.0	2096	
학 교 급 별									
중 학 교	42.0	5.7	1.5	46.8	2.7	1.4	100.0	1238	$X^2 = 273.45^{***}$
인 문 고	45.2	5.5	0.8	43.0	2.2	3.2	100.0	892	
실 업 고	40.7	6.6	0.7	45.9	3.8	2.2	100.0	814	
대 학 교	72.8	2.3	0.7	21.1	1.7	1.3	100.0	858	
거 주 지 별									
서 울	47.3	5.8	1.1	39.8	3.7	2.3	100.0	966	$X^2 = 78.30^{***}$
경 기	50.3	5.7	0.8	36.9	3.8	2.3	100.0	471	
강 원	51.6	8.9	1.3	35.7	1.3	1.3	100.0	157	
충 청	47.9	5.8	1.5	42.3	1.7	0.9	100.0	466	
영 남	45.1	4.6	0.8	44.8	1.8	2.8	100.0	1082	
호 남	61.3	3.0	0.6	32.4	1.9	0.9	100.0	537	
제 조	52.0	3.3	0.8	39.0	4.9	0.0	100.0	123	
지 역 규 모 별									
서 울	50.3	5.8	1.2	37.2	3.4	2.2	100.0	1104	$X^2 = 25.03^*$
직 할 시	49.5	4.1	0.8	41.2	2.4	2.1	100.0	1164	
중 소 도시	51.4	4.9	1.2	39.3	1.9	1.4	100.0	1008	
군 지 역	43.7	6.3	0.6	44.1	2.9	2.5	100.0	526	
생 활 수 준 별									
아주잘산다	42.9	10.2	6.1	34.7	2.0	4.1	100.0	49	$X^2 = 37.66^{**}$
잘 산 다	47.1	4.8	1.1	41.2	3.5	2.4	100.0	374	
보 통 이 다	49.4	5.0	0.8	40.5	2.4	1.9	100.0	3090	
못 산 다	55.0	5.0	1.3	34.0	3.8	0.8	100.0	238	
아주못산다	47.1	11.8	2.0	29.4	5.9	3.9	100.0	51	
실 향 민 여 부 별									
있 다	51.3	5.0	1.9	37.2	1.5	3.1	100.0	261	$X^2 = 6.00$
없 다	49.3	5.1	0.9	40.1	2.7	1.9	100.0	3541	

○ 귀하는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들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단위 : %)

배경요인	문항내용						계	사례수	비	고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약간 친근하게 느껴진다	보통이다	별로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	전혀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	무응답				
전체	7.4	19.3	29.7	35.0	8.5	0.1	100.0	3802		
성별										
남자	8.5	20.5	32.4	32.4	7.4	0.2	100.0	1706	$X^2 = 19.18^{***}$	
여자	6.5	18.3	28.7	37.1	9.4	0.0	100.0	2096		
학교급별										
중학교	7.0	17.6	33.0	33.2	9.1	0.1	100.0	1238	$X^2 = 116.07^{***}$	
인문고	6.6	18.3	24.0	42.9	8.1	0.1	100.0	892		
실업고	5.0	18.9	28.4	34.3	13.1	0.2	100.0	814		
대학교	11.1	23.1	32.2	29.8	3.7	0.1	100.0	858		
거주지별										
서울	6.3	19.6	27.0	36.5	10.6	0.0	100.0	966	$X^2 = 81.74^{***}$	
경기	8.5	17.2	29.9	35.0	9.3	0.0	100.0	471		
강원	13.4	16.6	21.7	41.4	7.0	0.0	100.0	157		
충청	7.1	20.2	29.4	34.1	9.2	0.0	100.0	466		
영남	5.5	19.0	31.5	34.7	9.1	0.2	100.0	1082		
호남	11.0	21.6	34.8	28.1	3.9	0.6	100.0	537		
제주	6.5	17.1	22.8	49.6	4.1	0.0	100.0	123		
지역규모별										
서울	7.3	19.4	27.0	35.9	10.4	0.0	100.0	1104	$X^2 = 40.08^{***}$	
직할시	7.3	20.7	31.9	33.2	6.6	0.3	100.0	1164		
중소도시	8.3	18.4	27.1	38.6	7.5	0.1	100.0	1008		
군지역	6.1	17.7	35.6	30.0	10.6	0.0	100.0	526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14.3	12.2	24.5	36.7	12.2	0.0	100.0	49	$X^2 = 41.03^{***}$	
잘산다	9.9	22.7	25.9	32.4	8.8	0.3	100.0	374		
보통이다	6.8	19.3	30.3	35.3	8.2	0.1	100.0	3090		
못산다	10.5	17.2	29.8	34.9	7.6	0.0	100.0	238		
아주못산다	7.8	7.8	25.5	33.3	25.5	0.0	100.0	51		
실향민여부별										
있다	13.4	22.2	24.1	32.2	8.0	0.0	100.0	261	$X^2 = 18.41^{**}$	
없다	7.0	19.1	30.1	35.2	8.6	0.1	100.0	3541		

<표 Ⅱ-3-12>

북한 주민에 대한 대면 태도

○ 귀하는 지금 당장 외국에서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위 : %)

분항내용		동포로서	담담히	위험없으면	대화를	만나 봐야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배경요인		적극환대	대하겠다	만나서 대화	피하겠다	안다				
전체		27.0	27.0	15.8	3.4	26.7	0.2	100.0	3802	
성별										
남자		29.8	26.6	14.7	3.5	25.3	0.2	100.0	1706	$X^2 = 14.58^{**}$
여자		24.6	27.2	16.7	3.4	28.0	0.1	100.0	2096	
학교급별										
중학교		28.0	22.3	15.8	5.4	28.2	0.3	100.0	1238	$X^2 = 128.56^{***}$
인문고		23.4	29.8	17.9	2.2	26.5	0.1	100.0	892	
실업고		21.6	24.6	16.5	3.8	33.5	0.0	100.0	814	
대학교		34.1	33.0	12.8	1.4	18.5	0.1	100.0	858	
거주지별										
서울		26.5	27.7	16.5	3.0	26.2	0.1	100.0	966	$X^2 = 70.60^{***}$
경기		23.8	27.6	13.6	3.6	31.0	0.4	100.0	471	
강원		29.3	32.5	14.0	3.8	19.7	0.6	100.0	157	
충청		25.1	27.0	18.9	5.6	23.4	0.0	100.0	466	
영남		24.4	26.5	17.3	3.1	28.6	0.1	100.0	1082	
호남		37.6	22.2	12.3	2.4	25.3	0.2	100.0	537	
제주		22.8	35.8	10.6	4.1	26.8	0.0	100.0	123	
지역규모별										
서울		25.5	28.8	16.8	2.7	26.2	0.1	100.0	1104	$X^2 = 11.89$
직할시		27.5	26.9	15.5	4.0	26.0	0.1	100.0	1164	
중소도시		28.3	26.6	15.1	3.4	26.3	0.4	100.0	1008	
군지역		26.4	24.0	15.4	3.8	30.4	0.0	100.0	526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22.4	30.6	22.4	10.2	14.3	0.0	100.0	49	$X^2 = 38.83^{**}$
잘산다		29.9	24.6	19.3	3.5	22.7	0.0	100.0	374	
보통이다		26.6	27.6	15.3	3.3	26.9	0.2	100.0	3090	
못산다		30.7	21.8	14.3	1.7	31.5	0.0	100.0	238	
아주못산다		13.7	23.5	17.6	9.8	35.3	0.0	100.0	51	
실향민여부별										
있다		30.3	30.3	13.4	1.9	24.1	0.0	100.0	261	$X^2 = 5.81$
없다		26.7	26.7	15.9	3.5	26.9	0.2	100.0	3541	

〈표 II-3-13〉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경기

○ 귀하는 북한과 다른 나라가 경기를 하고 있다면 어느 팀을 응원하시겠습니까?

(단위 : %)

문항내용 배경요인	북한을 응원하겠다	다른나라를 응원하겠다	상황에 따라 응원하겠다	아무도 응원 하지 않겠다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전체	72.7	3.7	14.9	8.7	0.1	100.0	3802	
성별								
남자	80.8	2.6	10.0	6.7	0.0	100.0	1706	$X^2=102.64^{***}$
여자	66.1	4.6	18.9	10.3	0.1	100.0	2096	
학교급별								
중학교	66.5	5.3	20.0	8.1	0.1	100.0	1238	$X^2=147.46^{***}$
인문고	75.2	2.6	11.5	10.7	0.0	100.0	892	
실업고	65.7	5.2	17.7	11.3	0.1	100.0	814	
대학교	85.7	1.2	8.3	4.9	0.0	100.0	858	
거주지별								
서울	67.1	4.6	18.2	10.1	0.0	100.0	966	$X^2= 61.59^{***}$
경기	71.5	5.9	14.4	8.1	0.0	100.0	471	
강원	80.9	1.9	12.1	5.1	0.0	100.0	157	
충청	73.6	3.9	12.9	9.7	0.0	100.0	466	
영남	72.5	3.7	14.6	9.1	0.2	100.0	1082	
호남	82.1	0.7	11.4	5.8	0.0	100.0	537	
제주	68.3	3.3	19.5	8.9	0.0	100.0	123	
지역규모별								
서울	68.8	4.3	17.4	9.5	0.0	100.0	1104	$X^2= 19.86^*$
직할시	76.2	3.0	13.0	7.7	0.1	100.0	1164	
중소도시	73.6	4.3	13.7	8.4	0.0	100.0	1008	
군지역	71.3	3.0	16.2	9.3	0.2	100.0	526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55.1	12.2	18.4	14.3	0.0	100.0	49	$X^2= 26.64^{**}$
잘산다	72.2	4.0	18.2	5.3	0.3	100.0	374	
보통이다	73.2	3.5	14.5	8.8	0.0	100.0	3090	
못산다	72.3	4.2	13.4	10.1	0.0	100.0	238	
아주못산다	62.7	5.9	17.6	13.7	0.0	100.0	51	
실향민여부별								
있다	75.9	2.7	12.6	8.8	0.0	100.0	261	$X^2= 2.14$
없다	72.5	3.8	15.1	8.6	0.1	100.0	3541	

<표 II-4-1>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 최근 남북한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됨에 따라 남북한간에 다양한 접촉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귀하는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문항내용	통일에 필요하니 이뤄져야한다	통일과 무관. 한민족 한형제이므로 이뤄져야한다	반드시 이루어져 필요는 없다	대남전략이용 절대로 이루어 져서는 안된다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배경요인								
전체	36.0	50.9	10.2	2.1	0.7	100.0	3802	
성별								
남자	37.6	50.1	9.2	2.6	0.6	100.0	1706	$X^2=191.54^{***}$
여자	34.8	51.6	11.0	1.7	0.9	100.0	2096	
학교급별								
중학교	40.9	44.0	12.2	2.4	0.5	100.0	1238	$X^2=187.80^{***}$
인문고	33.0	55.2	9.1	2.1	0.7	100.0	892	
실업고	33.3	51.2	12.0	2.7	0.7	100.0	814	
대학교	34.8	56.2	6.8	1.0	1.2	100.0	858	
거주지별								
서울	35.8	48.8	12.8	1.9	0.7	100.0	966	$X^2=90.70^{***}$
경기	34.6	52.2	10.0	2.8	0.4	100.0	471	
강원	37.6	52.2	6.4	3.2	0.6	100.0	157	
충청	36.1	50.6	10.5	2.6	0.2	100.0	466	
영남	37.1	48.5	10.8	3.5	0.1	100.0	1082	
호남	35.4	57.7	5.2	0.7	0.9	100.0	537	
제주	35.0	53.7	10.6	0.8	0.0	100.0	123	
지역규모별								
서울	36.0	49.3	12.1	2.2	0.6	100.0	1104	$X^2=67.90^{***}$
직할시	36.3	52.7	8.1	2.1	0.9	100.0	1164	
중소도시	34.9	52.5	9.8	2.2	0.6	100.0	1008	
군지역	37.8	47.3	12.0	1.9	1.0	100.0	526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36.7	46.9	6.1	10.2	0.0	100.0	49	$X^2=63.30^{***}$
잘산다	36.1	51.3	9.4	2.9	0.3	100.0	374	
보통이다	36.1	51.1	10.3	1.8	0.8	100.0	3090	
못산다	38.0	50.8	10.9	0.0	0.3	100.0	238	
아주못산다	25.5	43.1	13.7	17.6	0.0	100.0	51	
실향민여부별								
있다	38.3	52.9	5.7	1.5	1.5	100.0	261	$X^2=264.60^{***}$
없다	35.9	50.8	10.5	2.1	0.7	100.0	3541	

〈표 II-4-2〉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영향

○ 귀하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남북한 관계 개선 및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문항내용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친다	약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약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배경요인									
전체	16.8	55.7	23.8	2.6	0.9	0.2	100.0	3802	
성별									
남자	19.1	54.3	22.1	2.8	1.6	0.1	100.0	1706	$X^2=28.66^{***}$
여자	14.9	56.7	25.2	2.5	0.4	0.2	100.0	2096	
학교급별									
중학교	16.6	53.3	25.5	3.2	1.4	0.1	100.0	1238	$X^2=50.84^{***}$
인문고	18.0	58.3	21.4	0.8	1.2	0.2	100.0	892	
실업고	14.4	53.6	27.1	4.2	0.6	0.1	100.0	814	
대학교	18.1	58.3	20.6	2.3	0.3	0.3	100.0	858	
거주지별									
서울	14.8	54.2	26.8	2.6	1.3	0.2	100.0	966	$X^2=57.48^{**}$
경기	16.8	54.4	25.9	1.9	0.8	0.2	100.0	471	
강원	17.8	51.0	25.5	4.5	1.3	0.0	100.0	157	
충청	16.7	54.1	25.8	2.6	0.9	0.0	100.0	466	
영남	15.0	57.9	23.1	3.0	0.8	0.2	100.0	1082	
호남	23.8	56.4	16.9	2.4	0.2	0.2	100.0	537	
제주	16.3	61.0	18.7	0.8	2.4	0.8	100.0	123	
지역규모별									
서울	15.3	53.9	26.7	2.3	1.5	0.3	100.0	1104	$X^2=30.23^*$
직할시	17.6	55.0	24.1	2.7	0.7	0.0	100.0	1164	
중소도시	18.4	58.5	19.4	2.5	0.8	0.4	100.0	1008	
군지역	15.0	55.3	25.5	3.6	0.6	0.0	100.0	526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20.4	40.8	16.3	8.2	14.3	0.0	100.0	49	$X^2=151.56^{***}$
잘산다	18.7	53.7	22.5	4.0	1.1	0.0	100.0	374	
보통이다	16.0	56.7	24.2	2.3	0.6	0.0	100.0	3090	
못산다	21.8	53.8	20.6	2.9	0.8	0.0	100.0	238	
아주못산다	23.5	31.4	33.3	3.9	7.8	0.0	100.0	51	
실태민여부별									
있다	16.1	54.0	26.8	2.3	0.8	0.0	100.0	261	$X^2=1.57$
없다	16.8	55.8	23.6	2.7	1.0	0.2	100.0	3541	

<표 II-4-3>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가능성

○ 귀하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문항내용		매우 높다	약간 높다	보통 이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무응답	제 사례수	비 고	
배경요인										
전 체		5.7	23.7	41.9	22.8	5.7	0.1	100.0	3802	X ² =62.64***
성 별										
남 자		5.7	27.6	36.0	23.2	7.4	0.2	100.0	1706	
여 자		5.8	20.5	46.8	22.5	4.3	0.1	100.0	2096	
학 교 급 별										X ² =85.94***
중 학 교		6.0	23.7	45.2	18.9	6.2	0.0	100.0	1238	
인 문 고		4.3	20.9	37.1	29.6	8.0	0.2	100.0	892	
실 업 고		4.3	22.6	44.6	24.6	3.8	0.1	100.0	814	
대 학 교		8.3	27.6	39.7	19.7	4.4	0.2	100.0	858	
거 주 지 별										X ² =91.64***
서 울		5.0	22.4	43.6	25.6	3.4	0.1	100.0	966	
경 기		4.0	24.0	41.4	22.7	7.9	0.0	100.0	471	
강 원		10.2	22.9	35.0	20.4	11.5	0.0	100.0	157	
충 청		5.8	25.3	43.3	18.9	6.7	0.0	100.0	466	
영 남		4.7	22.9	42.4	23.7	6.1	0.2	100.0	1082	
호 남		8.8	26.1	40.8	19.6	4.7	0.2	100.0	537	
제 주		8.1	24.4	35.0	26.0	5.7	0.8	100.0	123	
지 역 규 모 별										X ² =22.41
서 울		5.9	23.4	42.7	23.8	4.3	0.0	100.0	1104	
직 할 시		5.1	23.9	40.8	23.7	6.5	0.0	100.0	1164	
중 소 도 시		7.0	23.6	41.0	21.5	6.4	0.4	100.0	1008	
군 지 역		4.4	24.1	44.7	21.1	6.5	0.2	100.0	526	
생 활 수 준 별										X ² =115.43***
아주 잘 산 다		22.4	26.5	26.5	12.2	12.2	0.0	100.0	49	
잘 산 다		7.5	24.9	41.2	21.9	4.5	0.0	100.0	374	
보 통 이 다		5.3	23.7	43.3	22.2	5.4	0.0	100.0	3090	
못 산 다		5.9	22.7	31.5	34.5	5.5	0.0	100.0	238	
아주 못 산 다		0.0	19.6	29.4	21.6	29.4	0.0	100.0	51	
실 향 민 여 부 별										X ² =9.57
있 다		8.8	23.0	37.9	21.8	8.4	0.0	100.0	261	
없 다		5.5	23.8	42.2	22.9	5.5	0.1	100.0	3541	

〈표 II-4-4〉

남북한 청소년 교류 참가의사

○ 귀하는 앞으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이 전개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위 : %)

배경요인	문항내용	반드시 참가하겠다	가능한 참가하겠다	참가하지 않겠다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전체		16.5	55.3	4.7	23.3	0.2	100.0	3802	
성별									
남자		16.6	56.1	5.0	22.1	0.2	100.0	1706	$X^2=4.91$
여자		16.5	54.6	4.4	24.2	0.2	100.0	2096	
학교급별									
중학교		18.2	54.5	4.8	22.3	0.2	100.0	1238	$X^2=16.04$
인문고		17.9	54.0	4.4	23.3	0.3	100.0	892	
실업고		15.4	55.3	5.2	24.1	0.1	100.0	814	
대학교		13.9	57.7	4.4	23.8	0.2	100.0	858	
거주지별									
서울		14.2	54.3	5.6	25.7	0.2	100.0	966	$X^2=41.26^{**}$
경기		15.3	55.0	5.7	23.8	0.2	100.0	471	
강원		19.1	54.8	6.4	19.7	0.0	100.0	157	
충청		15.5	56.0	5.6	23.0	0.0	100.0	466	
영남		14.8	53.2	12.2	19.6	0.2	100.0	1082	
호남		21.0	54.1	3.2	21.5	0.2	100.0	537	
제주		19.5	60.2	4.1	14.6	0.6	100.0	123	
지역규모별									
서울		13.7	54.2	5.8	26.3	0.1	100.0	1104	$X^2=11.01$
직할시		17.2	56.4	4.7	21.4	0.3	100.0	1164	
중소도시		18.0	55.8	3.6	22.4	0.3	100.0	1008	
군지역		18.4	54.4	4.6	22.6	0.0	100.0	526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18.4	51.0	12.2	18.4	0.0	100.0	49	$X^2=66.59^{***}$
잘산다		21.1	51.3	4.5	22.5	0.5	100.0	374	
보통이다		15.7	56.4	4.5	23.2	0.2	100.0	3090	
못산다		18.9	52.5	4.6	23.9	0.0	100.0	238	
아주못산다		19.6	33.3	13.7	33.3	0.0	100.0	51	
실태민여부별									
있다		23.8	51.3	3.8	20.7	0.4	100.0	261	$X^2=25.78^*$
없다		16.0	55.6	4.8	23.4	0.2	100.0	3541	

〈표 II-4-5〉

가장 참여하고 싶은 교류활동

○ 귀하가 만약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에 참여한다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어느 것입니까?

(단위 : %)

문항내용 배경요인	유적지 및 명승지답사	체육활동	음악·미술 예능활동	국토순례 대행진	문화활동	수확여행및 단체여행	무응답	계	사례수	비고
전체	21.4	7.9	8.8	26.0	2.4	31.5	2.0	100.0	3802	
성별										
남자	21.3	11.7	5.3	30.5	2.1	27.1	2.1	100.0	1706	$X^2=146.26^{***}$
여자	21.5	4.8	11.7	22.4	2.7	35.1	1.8	100.0	2096	
학교급별										
중학교	22.7	9.8	6.6	15.1	3.0	41.6	1.2	100.0	1238	$X^2=353.61^{***}$
인문고	20.0	5.9	10.9	28.6	1.8	31.3	3.6	100.0	892	
실업고	17.4	10.0	10.9	22.5	2.5	35.4	1.3	100.0	814	
대학교	24.8	5.1	10.0	42.5	2.2	13.4	1.8	100.0	858	
거주지별										
서울	21.5	7.1	8.7	22.2	2.7	36.0	1.8	100.0	966	$X^2=86.43^{***}$
경기	20.6	6.4	11.3	24.8	2.1	31.6	3.2	100.0	471	
강원	26.8	9.6	7.6	22.9	3.2	28.7	1.3	100.0	157	
충청	20.4	9.2	12.7	29.8	3.0	24.0	0.9	100.0	466	
영남	20.6	8.3	6.0	29.1	1.2	32.8	2.0	100.0	1082	
호남	22.9	8.0	10.6	24.8	3.7	27.6	2.4	100.0	537	
제주	21.1	7.3	4.9	29.3	3.3	32.5	1.6	100.0	123	
지역규모별										
서울	22.2	6.6	10.7	22.7	2.4	33.4	1.9	100.0	1104	$X^2=31.69^*$
직할시	21.6	8.8	8.3	26.9	2.2	30.2	2.0	100.0	1164	
중소도시	20.0	8.3	8.0	29.7	3.0	28.9	2.1	100.0	1008	
군지역	22.1	7.6	7.6	24.1	1.7	35.2	1.7	100.0	526	
생활수준별										
아주잘산다	14.3	8.2	8.2	18.4	6.1	38.8	6.1	100.0	49	$X^2=34.17$
잘산다	23.3	7.5	11.0	20.1	1.9	34.0	2.4	100.0	374	
보통이다	21.4	7.9	8.8	26.3	2.3	31.4	1.9	100.0	3090	
못산다	21.8	8.4	5.9	32.4	2.9	26.9	1.7	100.0	238	
아주못산다	15.7	3.9	9.8	29.4	5.9	33.3	2.0	100.0	51	
실향민여부별										
있다	23.8	5.0	12.3	28.7	3.4	24.1	2.7	100.0	261	$X^2=15.44^*$
없다	21.2	8.1	8.6	25.8	2.3	32.0	1.9	100.0	3541	

